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모국어 전이 현상 연구

－ 한국인 학생의 중국어 작문 실례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鍾慧賢

2019年 2月



모국어 전이 현상 연구

-한국인 학생의 중국어 작문 실례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恩希

鐘 慧 賢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2月

鐘慧賢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安在哲

委

員

李滢鎬

委

員

金恩希

委

員

文紅

委

員

金恩希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9年 2月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동기와 목적	1
2. 연구내용과 연구 방법	3
3. 선행연구 고찰	12
1) 언어전이 현상에 관한 연구	12
2)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습득 상관연구와 언어전이	13
3) 한국학생 중국어 작문 연구현황	14
II. 모국어 전이 분석	24
1. 오류 발생 범위	24
1)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	24
2) 목표어 지식	24
3) 문화적 요인	25
4) 학습전략과 사교전략	25
5) 학습환경	26
2. 오류 원인	28
1) 모국어의 영향	28
2) 모국어와 목표어의 교차	29
3) 사전류 해석	30
3. 품사오류	30
1) 실사오류	30
2) 허사오류	43
4. 어의 오류	83
1) 한중 어의 불일치 오용	83
2) 한중 어의 차이의 오용	90
3) 한중 문체 차이의 오용	90
III. 통사 오류 분석	92
1. 부사 상황어의 어순어류	92
2. 개사 상황어의 어순어류	96
1) 개사구 상황어와 술어 순서오류	96
2) 개사구 상황어와 주어의 순서 착오	99
3) 개사구 상황어와 부정사 상황어 순서 착오	100
3. 조동사 상황어의 어순어류	100

4. 수량구 상황어의 어순어류	103
1) 시량구의 어순오류	103
2) 동량구의 어순오류	104
5. 소결	106
IV. 결론	114
참고문헌	117
【ABSTRACT】	123
【부록】	125

I. 서론

1. 연구 동기와 목적

중국어 학습의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 4개의 기본 영역 중, 쓰기는 가장 복잡하고, 숙달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쓰기 기능의 복잡성과 어려움 때문에 언어학습 중 가장 늦게 습득되는 기능이기도 하다. 또한 쓰기는 하나의 복잡한 사유과정이다. 사유방식의 차이는 단어 선택과 문장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사유방식은 매우 다르며, 두 언어는 각자 독특한 언어표현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언어학습자는 쓰기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필자가 중국어 글쓰기 수업 지도 중 한국 고등학생들이 중국어 작문을 할 때, 글쓰기 기법 외에도 언어 사용의 여러 방면에서 한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학생들이 중국어 작문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모국어의 표현습관과 문법규칙을 중국어에 전이시켜 어휘와 문법의 선택, 단락의 연결에서 오류문장을 자주 만드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①*全世界人们喜欢旅行济州。

全世界的人都喜欢来济州旅行。

전 세계 사람들이 제주여행을 좋아한다.

②*我想给你们推荐吃橘子一下。

我想推荐你们尝一下橘子。

나는 여러분에게 귤을 맛보도록 추천하고 싶다.

③*今年下雪很多了。

今年下了很多雪。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왔다.

④*从小时候我对运动有了很大的关心。

从小我就对运动很感兴趣。

어려서부터 나는 운동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⑤*我们在宿舍里生活。所以有很多空闲时间是很难。

我们在宿舍生活，所以很难有很多空闲时间。

우리는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그래서 많은 여유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⑥*我从在英语音乐剧社团以后，产生了对音乐剧很感兴趣。它的雄壮让我兴奋，还有给我很感动。

从我参加英语音乐剧社团以后，对音乐剧产生了兴趣。它的雄壮让我兴奋，还让我很感动。

나는 영어뮤지컬 동아리에 가입한 후, 뮤지컬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의 웅장함이 나를 감동케 하며 아직도 나에게 감동이 남아있다.

⑦*我希望合格决赛第一名。

我希望通过决赛取得第一名。

나는 1등으로 결승에 합격하기를 희망한다.

⑧*我要上着大学准备就业。

我要在上大学期间准备就业。

나는 대학 재학 중에 취업을 준비하려 한다.

위에서 열거한 예문들은 한국 고등학생들의 중국어 작문 중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오류들이다. 비록 그들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의사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은 중국인이 듣기에 어색한 표현이다. 그래서 평소 필자는 중국어 작문 수업 지도 중, 학생들이 만드는 많은 오류 문장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중국어 작문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수집 정리 과정 중 학습전략의 영향 및 학습 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는 오류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관련 논문을 살펴보니,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습득 과정 중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지만, 오류에 영향을 주는 모국어 전이에 관련된 연구 논문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필자는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작문에 대한 모국어전이 연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본 연구논문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 본 논문은 총괄적으로 이전의 언어전이 연구의 기초 위에서, 한국 고등학생의 중국어 작문 중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가 학생들의 중국어 습득과정 중에서 생성되는 언어전이 현상과 관련됨을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모국어 전이 부분에서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습득과 관련된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며, 모국어 전이

발생의 주요 조건과 특징을 고찰한 후 두 언어 습득과정의 특성과 본질을 인식하고, 또한 이 토대 위에서 한국학생들에게 맞춘 중국어 작문 수업을 제안하려고 한다.

2. 연구내용과 연구 방법

俞理明(2004)에 따르면 언어전이 연구는 20세기 50년대와 60년대 전기에 활발했으나, 70년대에 쇠퇴기를 경험했고, 80년대 후기에는 다시 한 번 골기하였다.¹⁾ 이런 골곡이 반복된 과정 중 학자들의 연구는 대체로 3개 방면에 집중되었다. 1) 대조분석과 설과 언어전이 현상 연구 2) 표기이론과 언어전이 현상 연구 3) 오류분석이론과 언어전이 현상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이 세 분야를 간단명료하게 살피고 언어전이 연구의 발전과정을 총괄하려 한다.

언어전이의 결과에서 보면, 언어전이는 적극적 전이와 소극적 전이로 표현된다.

적극적인 전이는 학습자가 제2언어를 학습할 때, 기존의 모국어가 제2언어의 학습에 대해 촉진작용을 할 수 있다. 모국어의 적극적 전이는 제2언어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데, 모국어와 제2언어의 구조형식이 유사하거나 상통할 때 모국어의 적극적 전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모국어와 제2언어 어휘 사이의 유사성은 제2언어 학습자에게 더욱 빠르게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구어음 계통의 유사성은 학습자가 더욱 쉽게 서로 다른 구어음을 변별할 수 있게 한다. 통사구조의 유사성은 더욱 충분히 학습자를 촉진시켜 문법지식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 중 상당히 많은 ‘한자어’가 있는데, 이 한국어의 ‘한자어’와 현대 중국어의 어휘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한국학생들이 어휘를 암송하고 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된다. ‘学’字를 중심으로 확장시켜 보면, ‘학교(学校)’, ‘학생(学生)’, ‘학년(学年)’, ‘학기(学期)’, ‘학과(学科)’, ‘학회(学会)’, ‘학습(学习)’, ‘학계(学界)’, ‘학자(学者)’, ‘학술(学术)’, ‘학업(学业)’ 등 일련의 한자어가 된다.

소극적 전이는 또한 모국어 간섭이라 불리는데, 모국어 패턴이나 규칙을 모방하여 응용해서 오류를 생성하거나 부적당한 목표어 규칙형식을 생성시켜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唐承贤(1997)은 소극적 전이는 주로 모국어와 목표어의 어떤

1) 俞理明, 『语言迁移与二语习得』,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4, 10쪽.

对二语习得中语言迁移现象的研究, 经历了从20世纪年代和60年代前期的兴盛到60年代后期、70年代的衰落、再到80年代中后期的再次崛起这样一个曲折反复的过程。

형식과 규칙체계가 일치하지 않지만, 학습자가 서로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 지적한다.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는 언어구조의 각각 다른 구어음 측면, 어휘 측면, 통사구조 측면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어음의 소극적 전이는 본 논문의 토론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 논문의 연구주제가 모국어 전이로 인한 중국어 작문 오류이기 때문이다.

어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관심’(关心)은 한국어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는 명사인데, 동사의 어미 ‘-하다’를 첨가하면 동사가 된다. 그래서 만일 한국어 ‘관심’을 명사로서 사용하면 학생이 그것을 명사로서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한국어의 ‘관심’은 동사로 사용하는 일이 적고 명사로 사용하는 일이 많으며, 명사로 사용할 때는 보통 ‘있다’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항상 ‘*나는 중국어에 대해 관심이 있다’(我对汉语有关心)라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중국어의 ‘관심’은 동사이다. 이외에, 한국어의 ‘관심’은 중국어에 대응되는 다수의 상황에서 ‘…에 대해…흥미를 느낀다(对……感兴趣)’나 ‘관심을 가진다’(关注)는 말이다.

통사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어의 시간 프레임에서 동작의 지속되는 시간은 대부분 보어로서 표현된다. 예를 들면,

他在中国生活了十年。

그는 중국에서 10년을 살았다.

중국어의 시점 사용은 동작의 시작이나 끝을 나타내고, 통사론에서 흔히 상황어(状语)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九点上课, 他九点一刻才到。

9시에 수업인데 그는 9시 15분에야 겨우 도착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되다’와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이 보어인데, 이렇게 보어가 거의 없어서 시점이나 시간 프레임 모두 상황어로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학생들이 중국어 수업을 할 때 쉽게 생성하는 소극적 전이이다. 또 상황어와 보어가 뒤바뀌어 나타난다. 예를 들면, ‘*一个小时休息以后他按时去看病了’와 같은 문장이다. 전통적

인 언어전이 연구는 주로 학습과정 중 생성되는 오류를 강조하였고, 오류의 생성은 다만 모국어(mother tongue)²⁾가 목표어(目的語 target language)³⁾에 대해 전이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현재의 연구 결과는 목표어의 영향에 대해 모국어의 다양한 표현 형식으로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 전이(正迁移 positive transfer), 소극적 전이(負迁移 negative transfer)⁴⁾ 등이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언어전이의 요소 영향 및 언어전이 표현형식을 주로 소개하려 한다. 본 논문은 대조분석 방법을 채용하여,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작문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한중 두 언어에 대한 대조분석 진행을 통하여, 어휘, 문법 등 언어전이 발생의 다른 측면으로부터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작문 과정 중 모국어전이의 영향을 전면적으로 탐구하고, 오류생성의 원인 및 한국학생들에 대한 중국어 수업을 분석하려 한다.

오류는 모국어의 구조가 목표어가 행하는 모든 해석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해석이 모국어 사용자의 해석과는 차이가 크다.

‘언어지식/사용의 영역’ 차원에서, 언어전이는 주로 철자오류, 어휘오류, 문법오류, 담화오류(discursive transfer), 화용오류 및 사회언어 전이로 구분할 수 있다.

철자에서의 오류는 모국어 문자 체계와 제2언어 문자 체계의 유사성은 학습자의 제2언어 학습 시간과 난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모국어와 기타 언어의 유사성, 철자 습관이 동일한 것도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어휘에서의 오류를 살펴보면, 모국어와 제2언어는 어형과 어의 방면의 유사 정도와 차이 정도에서, 정도가 클 때, 학습자가 제2언어를 학습하는 속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今天雨下得很大’라는 문장을 ‘*今天下雨很多了’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사론에서의 전이는 어순을 들 수 있다.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SOV이다. 이것이 중국어와 가장 큰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의 분명한 차이는 학습자가 시작하자마자

2) ‘mother tongue’은 ‘모어’ 또는 ‘모국어’로 번역되며, 학자에 따라 어떤 이는 ‘모어’로 쓰고, 어떤 이는 ‘모국어’로 쓰고 있다. ‘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자라면서 배운, 바탕이 되는 말’이며, 모국어는 ‘자기 나라의 말, 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고국의 말을 이룰 때 사용’하는 것이다. 언어학에서는 주로 ‘모국어’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 쓰는 논문이기에 ‘모어’를 쓸 수도 있겠으나 언어학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본 논문에서도 ‘모국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언어학에서는 L1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3) ‘target language 또는 目的語’는 ‘목표어’ 또는 ‘목표언어’로 번역된다. 본 논문에서는 ‘목표어’로 지칭하기로 한다. 언어학에서는 L2로 표시한다.

4) positive transfer는 ‘정전이’ 또는 ‘긍정적인 전이’로, negative transfer는 ‘부전이’ 또는 ‘부정적인 전이’로 지칭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로 서술한다.

자 주의하고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 중, 한국학생들의 작문에서 어순오류가 여전히 많다. 예를 들어서 연동문(连动句) 중 한국학생들은 항상 동사의 순서에 틀리고, 아래와 같은 오류들이 나타난다.

*他找老师去办公室。

他去办公室找老师。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가? 왜냐하면 연동문 중에서 특히 하나의 동작이 다른 동작의 목적이 될 때,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서 목적동사를 일반적으로 전면에 놓기 때문이다. 한국어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는 선생님을 뵈려고 사무실에 간다.

중국어의 어순은 사건 발생의 선후 순서에 따라 배열이 된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도상성(象似性 iconicity)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어도 도상성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동작의 시간을 순서로 하지 않는 것이다.

담화오류는 글쓰기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생성하는 것으로 특히 글쓰기에 대해 연관된 영향이 뚜렷하다. 한국어의 생략은 중국어에 비해 훨씬 많아, 담화 중 항상 제로형식(零形式)으로 호응하는데, 모국어의 간섭을 받아서 한국학생 중국어 작문 중 항상 나타나는 결함현상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毕业高中以后，我想去中国大学校想学习中国和韩国的国际关系，在外交上最重要的部分是在那个国家真正了解那个国家的文化和历史然后想当外交官。【 】毕业中国大学以后关于全世界的好多外交关系研究然后想和其他国家外交官讨论这个问题。为了实现这样的梦想，【 】会努力学习中文，英语和其他的外国语。中国有一句有名的话叫"不怕慢，只怕站"。我的人生肯定有失败和苦难。那时候铭记这句话我会克服的。5)

5) 【 】부분에 주어 '나'가 누락되어 있다.

위의 문장은 각종 문법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최대의 문제는 주어 생략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화용전은 제2언어 학습자의 모국어와 문화 등과 관련 있는 화용 지식과 제2언어 중 화용 정보의 이해 때문에 생성되거나 습득되어 생성되는 모든 영향이다.⁶⁾ 한국문화는 항렬·등급관념을 매우 중시하는데, 특히 대화 상대방의 연령차이가 그렇다. 이런 관념은 언어로 직접 구현되는데 한국어는 일반 용어와 존칭어가 있다. 만약 상대방의 연령이 자신보다 많으면, 반드시 적당한 존칭어를 사용하여 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본다. 한국학생들은 마땅히 어떠한 중국어의 사죄 및 응답 패턴을 선택해야할지 모를 때, ‘对不起’ 표현 방식을 가장 빈도 높게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어에도 ‘对不起’ 외에 많은 사죄표현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抱歉’, ‘不好意思’, ‘打扰你了’, ‘真不好意思’ 등이다.

金贞林(2011)은 사죄 언어행위의 수단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제시하였다.

표1. 사죄 언어행위의 수단

称呼语	例：老师、小陈
强调语	例：真、很、非常
感叹词	例：哎呀
重复	例：对不起，对不起

중국어는 사죄를 표현할 때에 대화 상대방의 사회지위, 문화배경 차이 또는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적당한 사죄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언어학습 과정 중, 전이 내용의 출처는 어간전이와 어내전으로 나뉜다. 어간전이는 주로 두 언어의 어휘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성에서 생겨난다. 외국어 초기 학습단계에서 학습자는 목표어의 문법규칙에 익숙지 않아 모국어에 의존하게 되며, 이런 전이가 어떤 때는 목표어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이것은 어간 정향전이(语间正向迁移 혹은 순방향전이)에 속한다. 어간전이 오류가 생길 때, 이것은 곧 모국어의 간섭으로 나타나거나 어간의 소극적전어로 만들어진다. 언어전이를 언급하며 사람들은 모국어 간섭만 주의하며 모국어 간섭의 오류를 교정한다. 실제로는 어간 정향전이라도 중요한데, 그것은 전이가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알려준다.

6) 周毅敏, 「浅析语用迁移的表现」, 『广西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30卷, 2008, 143쪽.

전이는 또한 언어 내부에서도 발생한다. 이런 목표어 내부의 전이현상의 생성을 어내전이라고 한다. 학습자에게 목표어의 규칙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떤 규칙은 심지어 원어민에게도 어려우며, 특히 초기 학습 단계의 학습자는 목표어의 규칙을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 규칙의 구체적인 활용 범주와 조건을 모르고, 쉽게 학습한 목표어의 규칙을 모든 유사한 상황에 모방 적용한다. 이렇게 생성된 오류의 대부분은 지나친 확대현상이 된다. 한국학생들이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유한한 중국어 지식을 새로운 언어현상에 모방 적용함으로써, 유추적 오류를 생성시킨다. 예를 들어 한국학생들은 ‘나 그 남자와 결혼해요.’(*我结婚他/我跟他结婚 또는 我和他结婚), ‘나 그 사람 만나요.’(*我见面他/我和他见面 또는 我跟他见面)라고 한다. 이런 오류는 한국학생들이 중국어의 SVO에 대해 이 문법규칙을 지나치게 확대시킨 결과이며, 어휘의 문법기능을 소홀히 한 것이다.

위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어간전이와 어내전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과 같지 않지만, 하나의 심리적인 과정으로, 이전의 모든 학습지식이 새로 배우는 지식의 축진과 간섭이 된다. 일부 실증적인 연구에서 알아낸 것은 초학자들이 모국어 간섭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으며, 중등정도의 학습자는 개괄적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설명하는 바는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과정 중 줄곧 적극성과 창조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외국어 실력의 향상에 따라서, 그들은 모국어에 의존하지 않고, 주동적으로 이미 배운 외국어 지식을 다음 단계의 학습 중에 전이시킨다. 다시 말하면, 외국어 학습은 학습자가 자기의 지식을 이용하여 신지식의 과정을 만들고 세우는 것이다.

언어전이의 유형에 대해 미시적 각도에서도 보아야 하고 거시적인 각도에서도 보아야 한다. 결과도 보아야하고 과정도 보아야 한다. 어간에서도 보아야 하고 어내에서도 보아야 한다. 이 외에도, 교체전이와 학습전이 등의 표현형식도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언어전이 형식은 주로 적극적 전이(正迁移)와 소극적 전이(负迁移), 어간전이(语际迁移)와 어내전이이다. 따라서 다른 표현형식은 여기에서 분석하지 않을 것이다.

언어전이의 주요 요소의 영향을 분석하려 한다. 이 주요 요소를 보통 언어요소와 비언어요소로 양분하는데, 비언어요소는 다시 언어의식 요소, 사회언어 요소, 표기 요소, 언어거리와 심리유형학 요소 등이 있다.

언어전이 연구 중, 전이 정도의 영향에 대해 각종 요소를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두 언어 사이에 각자 구어음, 어휘, 통사론과 화용 방법의 형식 차이 정도에서 언어전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러 방면에서 구어음 방법의 언어전이는 비교적 분명하며, 제2언어 학습자의 ‘외국어 억양’(accent)이 가장 좋은 설명이 된다. ‘외국어 억양’의 주요 원인은 모국어와 목표어가 구어음 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또는 두 언어를 다른 발음의 특징으로 표현함으로써 모국어와 목표어에 대해 구어음 방법의 전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 없는 [tɕ], [tɕʰ], [ɕ]는 모국어에 근접한 설측전음 ㅈ[tɕ], ㅊ[tɕʰ], ㅅ[ɕ]으로 대체하고 중국어의 [ts], [tsʰ], [s]의 발음과 가깝다. 따라서 쉽게 [ts]와 [tɕ], [tsʰ]와 [tɕʰ], 및 [ɕ]와 [s]를 뒤섞기가 쉽다.

어휘로 말하면, 모국어와 목표어의 친분관계로, 특히 同源詞가 다량으로 있으면 제2언어 어휘 습득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와 한국어는 모두 ‘한자문화권’에 속하며, 한국어 중에는 다량의 한자어가 있다. 또 다른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은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을 받고 부합되는 모국어 어휘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목표어 중에서 받아들인 어휘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쓰기에서 한국학생은 항상 일부 한국어를 중국어에 전이시켜 결합한다. 예를 들어 ‘大’와 ‘高’ 그리고 ‘大’와 ‘多’이다. 중국어에서는 ‘压力大’라고 말할 수 있지만 ‘压力多’라고 말하지 않는다. ‘最高纪录’이라 말할 수 있지만, ‘最大纪录’이라 말할 수 없다. 한국어에서는 양자 모두 가능하다. 한국어에서 ‘먹다’는 ‘물을 먹다’와 ‘국을 먹다’와 결합되지만, 중국어에서 액체를 음용하는 것은 ‘喝’를 사용하여 정확한 표현은 마땅히 ‘喝汤’과 ‘喝水’가 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전이는 언어의 각 방면에서 모두 드러난다. 그러나 일부 언어전이의 연구는 문법 방면이 기타 방면보다 많고, 이러한 차이는 주로 학습자의 언어의식에 대한 차이로 귀결된다. 제2언어 습득 과정 중, 다수의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의식을 배양할 때, 일반적으로 문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구어음과 어휘 그리고 담화 등의 방면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문법에 비교적 강한 의식을 가지며, 언어의 실제 응용 중 문법의 정오(正誤)를 더욱 중시하게 되고, 그런 까닭에 문법 방면에서 모국어 전이의 작용은 억제된다. 주의할 점은 다만 모국어의 언어의식이 제2언어의 언어의식보다 강할 때에 모국어전이가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의식은 학습자의 대뇌에서 시비나 한계가 결코 분명하지 않고, 아마도 함께 뒤엉키어 교차언어(跨语言)의 차이 의식 등의 요소와 상호작용하고 모국어 전이에 공통으로 영향을 준다.

학습자의 제2언어 학습, 사용 목표어의 환경 그리고 사교 상황 및 대화 중 발화자와 수화자 사이의 관계 등 모든 것이 학습자의 모국어 전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교 과정에서 대인관계를 예로 들면, ‘비초점 상황’(非焦点场合)⁷⁾은 부정적 전이가 대인관계의 ‘초점 상황’(焦点场合)에서 더 발생하는 것과 비교된다. ‘초점 상황’은 비교적 공식적인 환경을 가리키며, 대인관계 참여자가 ‘초점 집단’(焦点群体)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목표어의 표준성을 더욱 중시하여 지킨다. ‘비초점 상황’은 비공식적이거나 자연스런 환경을 가리키며, 이 대인관계 참여자는 ‘비초점 집단’이 된다. 이에 따라 그들은 목표어의 표준성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국어를 차용하여 교류와 이해를 촉진시킨다. 모국어 전이와 말은 초점 상황에서 모국어 전이의 가능성이 비초점 상황보다 적어진다. 필자가 평소의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한국 고교생의 공식적 중국어 교실 수업에서의 부정적 전이가 교실 밖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의 상황처럼 한국학생이 ‘초점 집단’을 형성하여 중국어의 정확성을 더욱 중시하고, 가능한 한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 오류를 피하기 때문이다. 설령 오류가 나타나도 제때에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교실 밖의 이런 비초점 상황에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대화할 때, 학생들은 비교적 모국어의 도움을 더 구하여 많은 모국어 간접 오류 문장을 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래의 문장과 같다.

老师，明天我又来办公室。
我最高兴的事是入学济州外国语汉语班。

이런 현상이 설명하는 것은 발화자가 자신을 이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모국어의 특징을 보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제2언어 학습자 학습과 사용 목표어의 환경 그리고 사교 상황 및 학습자는 대화 중 발화자와 청자 사이의

7) 焦点场合(Focused contexts)与非焦点场合(Unfocused contexts)这一对概念是由Le Page Tabouret-Keller于1985首先提出的。

관계 등 사회언어 요소 등 모두가 학습자의 모국어전이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대조분석 프레임 안에서 한중 두 언어에 대해 각각의 차이를 대조분석하고, 한국학생이 중국어 습득 과정 중 어떤 언어차이가 소극적 전이(负迁移)를 가능케 하며, 어떤 언어의 공통점이 적극적 전이(正迁移)를 가능케 하는가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필자는 외국어 수업 중 제2언어 습득과정에 대해 그 촉진작용 요소를 충분히 이용하고, 가능한 한 한국학생이 중국어 작문 중 중국적 사유를 가지고 중국어 작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려 했다. 총괄하면 중국어 작문의 표현 및 특성에서, 한국학생들의 모국어전이 오류를 찾아내고, 문제해결의 수업과정을 탐구하여 한국학생들에게 중국어 작문 실력 배양의 수업패턴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필자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중국어 작문과목을 담당하고 있다.⁸⁾ 3학년은 현재 26명의 학생이 있고, 개설된 중국어 과정은 중국어 작문과 중국문화이며, 한 주 각각 4시간 총 8시간의 수업이 있다. 3학년 작문과목은 교재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 번 수업을 할 때 주로 필자가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먼저 학생들에게 표준문장 숙지와 관련된 표현을 학습시키고, 주제와 관련된 작문을 쓰게 한 후 필자가 교정과 강평을 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썼던 9개 주제의 작문을 근거로 한 것이며, 각각의 주제는 「自我介绍」, 「济州岛的四季」, 「我的爱好」, 「高考以后的打算」, 「我与中国」, 「给父母或朋友的一封信」, 「介绍一个韩国的传统节日」 등이다. 위의 주제 아래 제시된 어휘로 HSK 5급 작문 수준의 300자 내지 400자 사이의 문장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총 수집한 자료가 260편에 이르며, 누계 약 7만 자 정도인데, 이것들이 본 논문의 주요 자료가 되었다.

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은 조사를 통하여 26명의 학생 중 한어수평고사(HSK 汉语水平考试) 6급 통과한 학생이 1명, 5급 통과가 13명, 4급 통과가 2명이었다. HSK 자격증이 없는 10명의 학생들도 평소 학생들의 작문과목 수행평가 성적 및 중국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에 의거하여 그들의 중국어 수준이 중급 정도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연구과정에서 주로 사례와 오류분석, 대조분석과 표기 이론을 활용하고,

8)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현재 3학년으로 편성되고, 매 학년은 중국어반, 일본어반, 영어반, 서반아반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그중 1학년 중국어반은 27명의 학생이 있고, 중국어 기초와 회화1 과정이 개설되어 한 주 8시간 수업이 있다. 2학년 중국어반은 현재 26명의 학생이 있으며, 개설된 중국어 과정은 회화2와 중국어 독해이며 한 주 8시간 수업이 있다.

언어자료 중 대표적 모국어 전이 예문이 있음을 찾아내어 생성 원인을 분석하였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질적 특징을 심층적으로 대조 분석해 두 언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한국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려 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1) 언어전이 현상에 관한 연구

전이 연구의 중요성은 중국의 언어학자 赵世开가 이미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모국어의 전이는 제2언어 습득 연구 중 근본적인 문제이다.”⁹⁾ 제2언어 습득의 이론연구와 수업에서의 ‘중국학생 영어 습득 영향에 대한 중국어’에 관한 중국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 발표가 있었다.¹⁰⁾ 그들은 보편적으로 대조분석이론, 오류분석이론과 중간언어이론을 채용하여 중국학생들 영어 학습 중에 나타난 모국어전이 현상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葛丽莲(2003)은 대조분석과 오류분석이론에서 출발하여, 대학교 1, 2학년생 영어작문 중 자주 드러나는 어순 오류, 문장구성 오류 및 ‘there be’ 문형 연구를 진행하였고, 중국어와 영어의 사유방식의 차이가 중국학생들의 영어 글쓰기에서 낱말을 고르고 문장을 구성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냈다. 俞理明(2004)은 언어전이 현상에 대한 서양의 제2언어 습득영역 연구를 꼼꼼히 살피며 뒤돌아보고, 꼼꼼히 언어전이 현상 연구의 성과와 제2언어 습득영역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비교적 폭넓게 모국어 전이에 관한 자신의 실험을 소개하였는데, 그는 구어음, 어휘, 문법, 언어사용 및 문장 측면에서 모국어 전이는 중국학생들의 언어습득 오류의 원인이 되며, 영어와 중국어의 유사성이 전이를 일으킬 요인이 됨을 증명했다.

9) 赵世开序, 高远著, 『对比分析与错误分析』, 北京航空航天大学出版社, 2002, 5쪽.

10) 朱静芬, 「语言迁移对二外学习者英语写作的影响」, 『外语教学』, 第1期, 2000, 51-55쪽.

扬中华, 「母语迁移对英语写作的影响」, 『教学与管理』, 第3期, 2009, 84-85쪽.

李勤, 「语言迁移视角下大学生英语写作中的介词研究」, 『天津外国语大学学报』, 第4期, 2013, 56-61쪽.

张会平, 「基于语料库的中国学习者英语概念迁移研究」, 东北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2013.

赵健, 「试论母语对中国大学生英语写作中句法结构的影响」, 陕西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4.

唐仁芳, 「大学生英语写作中的母语负迁移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8.

刘菊玲, 「英语写作中的迁移错误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2005.

중국에서 모국어 전이에 대한 초기연구는 보통 이론적 연구 위주였고, 실증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설령 실증연구가 있어도 단기적인 샘플링 조사나 테스트 위주였다. 모국어 전이 자체가 반복과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서 후대 학자들은 점점 이런 특징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증연구 방법의 논문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논문은 주로 중국 학생들 영어습득 중의 모국어 전이 현상연구로 진행되었다. 赵政(2007)은 「语言迁移对中国学生英语写作的影响——一项来自中学的调查报告」에서 중국학생들의 영어 글쓰기 중에서 구문론과 담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대량의 중국어와 영문 번역 대조분석을 통하여 중국학생들의 관용적 중국어 사유를 이끌어내고, 직역된 글쓰기는 부적당한 어휘사용과 중국식 영어의 중요 원인을 조성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학생들의 영어 사유능력과 교차문화 의식의 배양을 증강시키면 모국어 간섭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¹¹⁾

2)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습득 상관연구와 언어전이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습득과 상관된 연구는 주로 오류연구인데,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모국어 전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극적 전이현상에 집중되었으며, 비교적 중요한 연구 성과로는 查明章(1990)이 있다. 그는 중국어와 조선어 구어음 대조 및 중국어와 조선어 한자 독음의 대조를 통하여, 조선어 배경의 중국어 학습자 오류유형을 분석했다. 全香兰(2004)은 대학교 3학년 한국 유학생의 한중 번역문을 주요 자료로 삼아 한중 同形词에 대해 조성된 오류 진행을 분석하였다. 수업에 대해 의견과 대책을 제안하였고, 동시에 문법상 성질(词性), 배합(搭配), 어의(词义), 동음간섭(同音干扰), 지나친 교정(矫枉过正) 등의 부적정한 면에서 한중 동형단어로 인해 야기되는 오류가 생기는 것을 지적하였다. 赵仙华(2006)는 한중 어휘 분류의 토대 위에서 한국의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모국어의 각 어휘에 대한 습득 정황을 고찰하였다. 赵杨(2011)은 한중 동형동의(同形同义), 동형이의(同形异义), 이형동의(异形同义) 근형동의(近形同义) 등 종류 별 중국어 어휘의 습득정황에 대한 한국학생 탐구를 통하여, 한중 어휘 사이의 유사성 및 변별도(区分度)가 습득된 주요 요소의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肖奚强(2000)은 중국어 학습 과정 중 나타나는 모든 전형적 문법오류를 분석하였다. 周小兵(2007)은 외국어로서 중국어 수업과 습득된 실제상황을 결합하고, 서로 다

11) 赵政, 「语言迁移对中国学生英语写作的影响」, 西安电子科技大学 硕士学位论文, 2007.

른 오류의 성질과 특성 그리고 생성 원인 및 처리방법을 분석하였다. 黄玉花(2007)는 한국 유학생 중·고급 중국어 작문 중 나타난 방향보어 용례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방향보어 습득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 오류 유형 및 오류 근원의 발생을 분석하였다. 丁崇明(2009)은 한국대학 대학원생의 과제에서 수집한 중·고급 중국어 학습자의 문법오류 분석을 통해, 항상 나타내 보이는 8가지 문법오류를 토대로 하여 이러한 오류의 원인 발생을 탐구하고, 세 가지의 수업 방법을 제안하였다. 崔立斌(2006)은 한국학생의 중국어 개사 오류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 기초 위에 중국어와 한국어의 다른 특성 및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 용법의 차이점을 대조 분석하고, 한국어에 대한 중국어 개사 수업의 제안을 하였다. 曹秀玲(2000)은 유학생의 중국어 담화 중의 호칭 유형(指称类型), 호칭 방법, 호칭 오류의 고찰을 통하여, 유학생의 중국어 담화의 호칭 현상 및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은 중국어 학습자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어음, 어휘, 문법, 문장 등 부문의 언어전이현상을 깊이 연구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 한중 중국어 수업을 위해서 이론지도를 제공하였다. 모국어 전이가 언제 발생했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가 전체 오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국어 전이에 어떤 특징이 결핍되어 있는지 향후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한국학생 중국어 작문 연구현황

통계에 의하면, 中国知网(CNKI)이 1999년부터 2018년 1월까지 발표한 각 종류의 정기간행물과 학위논문 중, 한국의 중국어 수업과 연구에 관한 논문은 약 1,457편이 있는데, 그중 한국학생의 중국어 글쓰기 방법과 관련이 있는 논문은 겨우 13편이었고¹²⁾, 한국학생의 중국어 작문방법과 관련된 것은 단지 7편뿐이었다¹³⁾.

12) 李晶, 「简论韩国留学生的汉语写作偏误及其教学」, 陕西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
 张娟, 「渤海大学韩国分院汉语初级写作偏误情况分析」, 渤海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
 姜俊峰, 「对韩中级汉语写作教学现状与对策」, 东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5.
 徐嘉婧, 「中高级阶段韩国学生汉语写作语篇衔接偏误分析」, 黑龙江大学 硕士学位论文, 2015.
 张娟, 「韩国学生初级写作中的偏误及教学建议-以韩国分院为例」, 『商业故事』, 2015.
 朴珍珠, 「韩国学生词汇知识与汉语写作的相关性研究」, 北京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陈奕帆, 「韩国学生汉语写作语序偏误研究」, 湖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林妍芝, 「韩国大学中文系中级汉语写作课教学设计」, 山东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何婉, 「对韩国学生汉语写作教材编写及教学的探讨」, 『教育与教学研究』, 2012.

조사를 통하여, 한국학생의 작문 혹은 글쓰기와 관련된 논문이 결코 많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李金红(2006)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로 외국어 수업은 글쓰기에 대해 크게 중시하지 않았고, 둘째로 글쓰기 수업방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¹⁴⁾ 더구나 위의 논문은 주로 작문 중의 오류분석 또는 글쓰기 수업에 집중되었는데, 오류분석에 대한 연구는 李晶(2016), 张娟(2016), 陈奕帆(2013), 王-宁(2016), 商悦(2013), 何丽香(2012) 등의 연구가 있다.

李晶(2016)은 북경어언대학의 ‘HSK动态作文语料库’ 중에서 한국 유학생의 작문 246편을 선택하고 유학생의 작문 중 자주 나타나는 구두점, 한자, 어휘, 문장, 어편(语篇) 등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张娟(2016)은 渤海大学 한국분원 학생들의 작문 오류 상황의 분석을 통해 초급단계 중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드러나는 오류를 주로 구두점 부호오류, 한자오류 그리고 어휘오류로 나타냈다. 陈奕帆(2013)은 북경어언대학 ‘动态作文语料库’ 중에서 9급 증서를 얻은 한국유학생 작문 가운데 ‘오류문’(错序句)을 어휘 자료로 선택하였고, 어순 오류율이 높은 데서 낮은 순서로 상황어, 술어, 주어, 목적어, 한정어(定语), 허사, 보어의 어순오류를 분석하였다. 王-宁(2016)은 북경어언대학 HSK ‘动态作文语料库’ 중에서 한국유학생의 작문 어휘자료를 기초로 하여 자료 중 나타난 ‘了’의 오류를 연구 주제로 ‘了’의 오류를 분류하고, 오류원인을 분석하여 ‘了’가 오류율이 가장 많은 오류 유형이며 모든 오류의 절반이 됨을 지적하였다. 何婉(2012)은 교실 수업과 학생들의 피드백 정황분석을 통하여 한국 작문교재와 한국어 작문 수업에 제안을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작문 오류

康焯, 「韩国学生汉语书信写作用案例分析」, 湖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王文楠, 「叙述和议论语篇中的省略研究及韩国学生的偏误分析」,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2011.
 禹恩映, 「基于任务型教学法的韩国汉语写作课设计」, 山东大学 硕士学位论文, 2011.
 崔贤美, 「针对韩国留学生的汉语写作教学研究」, 北京语言大学 硕士学位论文, 2009.
 13) 尚清, 「韩国学生汉语叙述体语篇“零形指称”现象研究」, 华侨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
 王-宁, 「基于HSK动态作文语料库的韩国留学生“了”的习得偏误分析」, 渤海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
 张信强, 「基于HSK动态作文语料库的“韩国学生”汉字书写的偏误研究」, 鲁东大学 硕士学位论文, 2015.
 商悦, 「韩国学生作文中典型偏误分析」, 『旅游纵览』(下半年), 2013.
 何丽香, 「基于高等HSK作文语料库的韩国学生“在+处所”偏误分析」, 南京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贾晓露, 「基于HSK动态作文语料库的韩国学生“被”字句习得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孟桂兰, 「从中韩学生的作文看中韩文化的互补与融合」, 『青岛大学师范学院学报』, 1995.
 14) 李金红, 「国外主流写作理论对我国外语写作教学的启示」, 『国外外语教学』, 第2期, 2006, 41-46쪽.

분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논문은 대학생들의 작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중국어 어휘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적으며, 어휘에서나 문법 방면에서 모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작문을 할 때 모국어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모국어로 사고를 한 후 중국어로 전환하여 본인이 작성한 작문 가운데 한국어의 흔적과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를 남겼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등학생 작문자료를 수집하고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와 관련 있는 오류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오류의 생성 원인을 알아내는데 주력한다.

연구 방법에서 보면, 상술한 한국학생들의 작문 연구에 관해 수많은 语料库가 사용되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이 채용한 연구는 시도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비교적 복잡한 문제에는 语料库의 방법을 채용하여 이전의 연구 부족에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

연구 내용으로 보면, 한국학생 중국어 작문연구의 초점은 중국어 수업 중의 중점과 난점에 집중되고 있다. 王一宁(2016)의 중국어 작문 중의 ‘了’ 연구, 贾晓露(2012)의 중국어 작문 중 ‘被’의 연구 및 기타 항목은 빈약해서 아직 중시되지 않고 있다. 실사 연구 및 허사 중의 개사와 부사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논문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은 논문들이 있었다.

박덕준(1993)은 주로 한국 대학생의 작문 중 범하는 오류에 대하여, 그들의 틀린 문장을 분석하고, 한국대학 중문과 작문교수 모델에 적용하여 자신의 구상을 제안하였다.¹⁵⁾

제해성·황일권(2003)은 중국어 작문에 나타난 오류 실례 및 원인 분석을 어휘오류, 어순오류 및 표현오류와 관련시켜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대학에 들어와 중국어를 1년 정도 학습한 2학년 학생 40명을 측정대상으로 하여 60항의 측정 문항 중 오류가 비교적 많이 나타난 30문항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의를 담당한 교사들에게 유용한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¹⁶⁾

이미영(2005)은 한국에서 중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글쓰기 중 항상 나타나는 오류분석을 하고, 그 결과 가장 잘 나타나는 오류는 ‘간결성 부족’, 다음으로 ‘대체’, ‘생

15) 박덕준, 「중국어 작문의 오류 분석 및 교수 모델의 구상」, 『중국어문학』, 제22권, 1993, 181~206쪽.

16) 제해성·황일권, 「초급 단계의 중국어 작문에 나타난 문법적 오류 실례 및 원인 분석」, 『중어중문학』, 33권, 2003, 185-209쪽.

략' 그리고 '부자연스런 어순'이라 했다. 저자는 원인의 시기를 분석했는데, 초급단계는 소극적 모국어전어로 인해 오류가 생기지만 중·고급단계 이후는 소극적 전어가 점점 줄고, 중국어 문법구조의 복잡성이 학생들의 오류를 생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근거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예문을 많이 주어 학생들이 다른 작문 작성 중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중국어와 한국어 사이의 일대일 비교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¹⁷⁾

정윤철(2005)은 모대학 중문과 2학년 중국어 작문 과목을 수강하는 67명의 학생들에게 단문으로 된 29문항을 제시한 후 중국어로 옳긴 작문 답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대조분석의 일환으로 시간표현과 공간표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는 한국어의 격조사의 간섭을 크게 받으며, 조사가 없는 중국어에서는 어순이나 전치사 등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격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중국어에 대응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⁸⁾ 박덕준(2006)은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작문 교수전략에 대해 논하였다. 중국어작문 교수전략의 핵심은 '통제-자유 작문 교수'의 원칙이며, 이 원칙 아래에 '모범문장의 모사', '쓰기를 통한 교제', '문장오류의 분석',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교류' 등의 전략을 두었다. 학생들은 '통제-자유 작문 교수'의 원칙 아래 단문 짓기-문단 짓기-글짓기라는 3단계 쓰기과정을 거쳤다.¹⁹⁾

손정애(2010)는 HSK 동태 작문 언어 'Data Base'에서 한국인의 어순오류를 분석 대상으로 한 모든 검색에서 문장의 성분분류에 따라 통계성 분석을 하고 어순오류의 유형과 형성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탐색하였다.²⁰⁾

이정숙(2011)은 한국인 학습자의 어순 오류를 통하여 부사 '也'의 중간 언어 양상을 고찰하고 그 오류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인 학습자의 독특한 오류를 규명함과 동시에 동사 내에 부사 '也'의 어순에 영향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모국어 전이에 의한 오류, 언어능력의 전수에만 급급한 교학 방법 그리고 일관되지 못한 교학 유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²¹⁾

17) 이미영, 「오류분석을 통한 중국어 작문 지도방안 연구-허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8) 정윤철,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공간표현 대조분석-한→중 작문오류를 중심으로-」, 『中國研究』 제39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5, 3-22쪽.

19) 박덕준, 「對韓國學生的寫作教學策略」, 『중국어문학』, 제49집, 2006, 354~365쪽.

20) 손정애, 「HSK작문 답안을 통한 중국어 어순 오류 분석」, 『중국어문학』, 제63권, 2010, 199~224쪽.

백수진과 이철근(2012)은 한국인이 잘 틀리는 중국어 작문을 진단하는 『중국어 작문 클리닉』에서 한국인이 틀리기 쉬운 문장들을 통해 틀린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문법적인 지식과 함께 상세히 설명을 덧붙였다. 각 장의 연습문제와 종합문제를 통해 배운 문장을 복습하며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효영(2013)은 한국의 모 대학 중문과의 중국어 작문수업을 예로 들어, 학생들의 중국어 글쓰기 중의 오류를 어휘, 문법, 내용으로 분류하고, 한국 학습자의 글쓰기 중 항상 보이는 문제와 오류를 개괄하였으며, 대응조치를 제안하고 다방면으로 한국인의 중국어 글쓰기 수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²²⁾

윤유정(2018)은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속 응결장치 오류 분석」에서 좋은 텍스트가 되기 해서는 응결성이 높아 문장 결속력이 좋아야 하는데,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속에는 응결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문장의 의미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구HSK 고등 작문 시험 답안지를 수록하고 있는 BCC语料库의 HSK에서 작문 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한국인 응시생의 작문 답안지 중 응결장치 오류가 발견된 108편을 연구대상으로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텍스트 속 응결장치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하여 응결장치 오류 중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것은 접속오류이며,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 지시나 동형반복을 이용하여 피대체어를 출현시켜야 할 때 누락하는 오류가 많았으며, 지시와 관련하여 대명사의 오용오류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고 하였다.²³⁾

이상의 연구들은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난 오류에 관련된 논문들이다. 이 논문들은 중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오류의 원인 분석에서 주로 목표어의 묘사에 편중하고 있으며, 위의 연구들은 해석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다음으로 이경희·방건춘·백지영(2015)은 대학교 중국어 중급 학습자의 구어 오류 실례를 중심으로 한국인 화자의 통사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중급 중국어 전공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중 발생한 구어 오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누락, 대체, 어순오류의 빈도수가 우위를 점하고 첨가와 혼합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周小兵·朱其智·邓

21) 이정숙, 「부사 ‘也’의 통사적 위치 오류 분석-〈HSK動態作文語料庫〉를 基礎로-」, 『중국어문학』 58권, 2011, 421-442쪽.

22) 이효영, 「오류 분석을 통한 중국어 쓰기교육 개선 방안」, 『중국어언어연구』, 제45권, 2013, 281~303쪽.

23) 윤유정,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속 응결장치 오류 분석」, 『중국어언어연구』 제78집, 2018, 171-204쪽.

小宁(2007)이 오류 발생 원인으로 제시한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 목표어의 규범화, 교학상의 오도, 교류책략의 운용이라는 네 가지 유형에 의거하여 각 오류별 특징 및 오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구어오류에 반영된 통사적 특징을 논의하였으며, 구어 오류 연구를 위한 방법론 제시에 의의를 두었다. 분석 결과 오류의 원인으로 모국어 부정 전이 및 목표어 규범화로 인한 유형이 가장 많다고 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유형별 운용을 고려한 교육을 제안하였다.²⁴⁾ 이 연구는 구어오류에 나타난 통사적 오류를 논하고 있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와 관련된 몇 편의 논문도 찾아볼 수 있다. 김경천(2008)은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쓰기 오류실태」에서 중국어 화자들이 한국어 작문을 할 때 모국어 간섭현상을 중심으로 어휘상의 오류, 문법상의 오류, 표현상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목표 외국어의 학습에 모국어의 영향을 인정한 대조가설이나 중간언어이론을 받아 들여 모국어의 전이와 간섭에 의한 오류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대만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 3, 4학년 52명이 작성한 작문을 근거로 하였다. 그는 교사가 학생들이 글을 잘 쓰기 위해 어떠한 기술과 능력들이 요구되는지를 잘 알고 이러한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교수학습법의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로써 이 연구를 하였다.²⁵⁾ 그는 결론에서 오류 발생의 원인은 만족스럽게 해명되었으며, 이로써 최소한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쓰기에 있어서 모국어의 전이 혹은 간섭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²⁶⁾ 이 논문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다르지만 필자의 논문 근거를 지지해주는 측면이 많다.

신성철(2010)의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문법 오류와 교육적 시사점」에서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문법오류를 분석하여 고빈도 문법 오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는 연세대 한국어과정 여름학기 3급 과정에 등록한 중국어권 학습자가 작성한 기말 고사 문제 중 51개의 자유 작문 테스트를 조사하여 537개의 문법오류를 분석하여 형태와 빈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통적인’ 오류와 학습자 L1과 관련된 오류를

24) 이경휘, 방건춘, 백지영, 「한국인 화자의 중국어 통사 오류 유형 분석-대학교 중급 중국어 학습자의 구어 오류 실태를 중심으로-」, 『중국어학연구』(85), 2018, 113-148쪽.

25) 김경천, 「중국어화자의 한국어 쓰기 오류실태」, 『중국문화연구』(13), 2008, 53-66쪽.

26) 김경천, 「중국어화자의 한국어 쓰기 오류실태」, 『중국문화연구』(13), 2008, 65쪽.

정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숙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²⁷⁾ 김경천과 신성철의 논문 특징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오류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모국어 전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한국어권 영어학습자와 관련된 논문들이었다. 먼저 신봉수(2004)는 한국어 학습자가 영어 관용어를 이해할 때 사용하는 이해방법과 모국어의 전이유무를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살피고 있다. 이 실험을 위해 대학 3-4학년 학생들 중 TOEIC시험 평균성적을 참조하여 700점 이상의 상위 집단 16명과 600점 이하의 중하위 집단 16명을 두 집단으로 구성하고, 한국어와 의미가 동일한 것과 의미가 다른 관용어를 선정하여 사지선다형 시험을 치르고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두 집단의 이해정도를 비교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로 피험자들은 한국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모국어 전이가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관용어 이해과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둘째로 상위단계의 피험자들에게서는 관용어 유형에 따른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중하위 단계의 피험자들에게서는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가 모국어 전이에 영향이 있음을 나타낸다.²⁸⁾

이승아(2011)는 영어의 수동 구문 형성에 있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동사를 수동화하는 오류가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과수동화현상(overpassivization errors)과 관련하여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모국어전이 효과를 재고찰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떨어지다’, ‘사라지다’를 수동표현으로 파악하는 것 자체는 이론적으로 올바른 분석이지만, fall, disappear, vanish의 한국어 해석에 ‘-지’라는 수동 형태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격 동사들을 그렇지 않은 비대격 동사들보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더 많이 과수동화한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검증이 되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모국어의 형태적 특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국어 전이와는 별도로 영어 비교체·비대격 동사의 습득을 어렵게 하는 근본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하였다.²⁹⁾

27) 신성철,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문법 오류와 교육적 시사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권, 2010, 75-100쪽.

28) 신봉수, 「영어 관용어 학습에 있어서 한국 EFL 학습자의 모국어 전이와 이해책략에 관한 연구」, 『신언어영문학』 27호, 2004, 255-278쪽.

박태숙·오치성(2016)의 연구는 한국 학생들의 작문에서 because절의 문장 내 위치를 분석하여 because절 위치에 관한 모국어 전이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연구자는 모국어 전이현상이 외국어 능숙도가 낮은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므로 2015년 충남 소재 4년제 대학 교양과목 수강생 중 토익 성적이 200점 이상 600점 이하의 1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영작 중 166개의 because절이 사용되었으며, 연구 결과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은 원어민들과 달리 because절을 독립절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because가 구어체 전이라기보다 ‘-때문에’가 아닌 ‘왜냐하면’으로 인식하여 모국어 전이가 일어나는 오류를 만든 것으로 해석하였다.³⁰⁾

최정인(2016)은 영어 학습에 있어 문장의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종결 동사 습득에서도 모국어 전이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종결성(telicity)은 한 문장 내에서 사건이나 행위가 끝나는 끝점(endpoint)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동사가 사건이나 행위의 종결상황을 기술하면 [+telic]이라고 하며, 동사가 사건이나 행위의 종결상황을 기술하지 않으면 [-telic]이라고 한다. 연구결과 영어 학습자들의 동사 종결성에 대한 인식이 모국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영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일수록 종결성 습득 오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영어 종결 동사와 대응 한국어 종결 동사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종결 동사 사용에 있어 중간언어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영어 능력에 따라 영어 종결 동사의 사용이 다르다는 결과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보았다.³¹⁾

이혜진(2017)은 언어 학습에 있어서 오류 발생은 필연적이며 무수한 오류를 통해 학습자는 목표어를 습득하고 자신만의 문법 체계를 완성해 나간다고 하였다. 오류를 피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여러 언어학자는 오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한다. 연구자는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전이’에 의한 오류를 중심으로 대학 신입생의 영작문에서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오류 유형

29) 이승아,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과수동화 오류-모국어 전이 효과 재고찰-」, 『영어학』 11(4), 2011, 1031-1063쪽.

30) 박태숙·오치성,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because 사용에 관한 모국어전이 효과」, 『언어학연구』(39), 2016, 121-139쪽.

31) 최정인,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모국어 전이에 관한 연구」, 『영어학』 16(2), 2016, 285-309쪽.

에 따른 빈도 분석뿐만 아니라 언어 간 오류와 언어 내 오류에 속하는 세부 항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대학 신입생들이 영어 쓰기 과정에서 겪고 있는 주된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본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작문 지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³²⁾

백이연(2014)은 중·상급 학습자가 쓴 일본어 작문을 대상으로 모국어의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L1의 의미를 과잉 적용한 오류를 모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언어 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L1의 전이를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등 품사별로 살핀 결과, L1의 어휘의 의미를 L2에 그대로 적용한 많은 오류를 찾아내고 일부 오류는 JLPT 1급을 보유한 상급 학습자에게도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한국인 학습자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한자어 어휘이다. 한자어 어휘가 한국인 학습자의 큰 이점이지만 과적용하거나 지나치게 한자어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초급에서부터 도입되는 기본적 어휘에서 많은 오용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특히, ‘よく’ ‘たくさん’ ‘面白い’ ‘痛い’ 등, L1의 사용범위가 L2보다 넓은 어휘의 경우, 한국어의 대역어를 그대로 적용하여 많은 오류가 산출되었다고 하였다.³³⁾

앞에서 언급한 논문들은 영어 학습 및 일본어 학습과 관련된 모국어 전이에 대한 논문들로서 오류 발생이 모국어 전이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관점은 중국어 작문에 나타난 오류발생이 모국어에 의한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관점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중국어 학습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한 논문들은 많으나 본 연구자와 같이 오류 발생을 모국어와 관련시킨 중국어 학습 관련 논문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외국어고등학교 중·고급수준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작문에 나타난 오류분석과 발생을 모국어 전이와 관련시키고 그 해결점을 찾으려는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비록 한국학생들의 작문 중 오류분석을 위주로 하였지만, 분석의 대상은 모국어전이로 인한 오류이었다. 해석 상 중국어 자체의 문법과 표현을 중요시할 뿐 아니라 한국인 모국어 방면의 묘사 또한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 논문과 위의

32) 이해진, 「대학 신입생의 영작문에서 나타난 오류 분석 연구」, 『코기토(Cogito)』 83, 부산대학인문연구소, 2017, 233-268쪽.

33) 백이연, 「일본어 작문에 나타나는 모어의 영향-한국인 학습자의 의미 전이를 중심으로-」, 『日语日文学研究』, 제89집, 2014, 371-390쪽.

상술한 논문들과의 대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II. 모국어 전이 분석

1. 오류 발생 범위

본고는 한국학생의 중국어 작문 중에 나타난 모국어 전이 현상의 오류분석을 진행한 연구이다. 제2언어 학습자의 오류 출처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刘珣은 주로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负迁移), 목표어 지식 소극적 전이, 문화적 요인 소극적 전이, 학습전략과 사교전략의 영향 그리고 학습환경의 영향 등 5개 방면에서 분석하였다.³⁴⁾

1)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가 가리키는 것은 학습자가 익숙지 않은 목표어 규칙의 상황에서 다만 모국어의 지식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동일한 모국어 배경의 학습자는 종종 동류 성질의 오류를 나타낸다. 한국어에는 이합사(离合词)가 없다. 만약 익숙치 않은 중국어의 이합사 용법이 전제되면 ‘签一下名’을 ‘签名一下’로, ‘晚饭我请客’을 ‘我请客你晚饭’으로 말하기 쉽다.

2) 목표어 지식

학습자는 자신이 배운 유한하고 불충분한 목표어 지식을 목표어 새 언어 현상에 유추적 방법으로 부적당하게 사용하여 오류를 만든다. 예를 들면,

①*我和朋友穿韩服唱了韩国传统歌，很精彩了。

我和朋友穿韩服唱了韩国传统歌，我们的表演很精彩。

나와 친구는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멋있었다.

‘了’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놓을 수 있는데, 이미 동작과 변화의 완성을 표시한다.

34) 刘珣, 『对外汉语教育学引论』,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0, 194쪽.

다만 이 문장에서 ‘很精彩’는 변화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며, 여기서 ‘了’의 확대에 속한다.

②*我们学校大概有十个学生们去北京参加国际夏令营。

我们学校大概有十个学生去北京参加国际夏令营。

우리학교는 대략 열 명의 학생들이 북경에 가서 여름훈련캠프에 참가했다.

‘们’의 기본용법은 대명사나 인칭명사 후에 사용하며 복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만일 대명사나 명사 앞에 구체적인 수사 수식 제한이 있는 경우 다시 ‘们’을 쓸 수 없다. 여기서 ‘们’의 확대에 속한다.

3) 문화적 요인

문화 차이로 인해 야기된 언어 형식상의 오류 또는 언어 사용상의 오류가 문화요인의 소극적 전이이다. 예를 들면, ‘说曹操, 曹操就到’(조조 얘기를 하니 조조가 도착했다)라는 문장을 한국어로 의역하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이다. 따라서 만일 직역한 문장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면 문장에 오류가 생기고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4) 학습전략과 사교전략

刘珣(2002)에 따르면 학습자가 학습언어와 활용 언어의 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효한 학습과 원만한 교제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계획과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학습방법과 교제전략으로 구분되어 표현된다. 기 조성된 오류 학습방법은 주로 전이, 과대 확대와 간소화이다. 사교전략의 오류를 조성하는 것은 많은데 회피와 언어전이는 그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³⁵⁾

③*老师放书在桌子上。

35) 刘珣, 『汉语作为第二语言教学简论』,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2002, 26쪽.

学习者作为语言学习和语言交际的主体, 不论是在学习语言的过程中或是在运用语言的过程中, 都以积极主动参与态度为克服困难、达到有效学习和顺利交际的目的采取各种计划和措施, 这分别表现为学习策略和交际策略。造成偏误的学习策略主要有迁移、过度泛化和简化。造成偏误的交际策略很多, 回避和语言转换是其中最常见两种。

老师把书放在桌子上。

선생님은 책을 책상 위에 놓으셨다.

④*我看到一个路人扔垃圾到路上。

我看到一个路人把垃圾扔在路上。

나는 한 행인이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것을 봤다.

상술한 두 개의 틀린 문장은 마땅히 ‘把자문’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학생이 회피 전략을 취한 것이다. 한국어에는 ‘把자문’에 상응하는 문장형식이 없다. 중국어 중·고급 수준의 한국학생이 이런 ‘把자문’을 회피하는 주요한 사정은 모국어에 그와 상응하는 문장형식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구조상으로 보면 ‘把자문’의 구조는 ‘S + 把 + N + V + 기타’인데, 한국어문법 구조는 SOV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나타낸 이런 모습은 문장 구조상 기본적으로는 정확하지만, ‘把자문’에 취약한 이런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

5) 학습환경

이것은 주로 교사의 치밀한 해석과 지도가 부족한 것과 심지어 부정확한 시범을 뜻하는 것이다. 지적해야 할 것은 부분적으로 문화차이로 생겨난 오류 중에서, 심층적인 원인은 문화차이로 인해 생겨났으나 언어 상 모국어에 대한 대응 언어 번역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오류를 역시 모국어 간섭의 요소로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학생이 작문 중 다음과 같이 썼다. ‘先辈和和晚辈之间没有对话, 那这个代沟问题绝对不能解决的.’ 한국학생들은 ‘선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연령이 자기보다 많은 학우나 자기보다 일찍 근무하게 된 동료 등을 부르는 것이다. 汉典에 의하면 중국어의 ‘先辈’는 ‘비록 연령이나 항렬이 비교적 많은 사람을 존칭하여 총괄적으로 부르지만³⁶⁾ 사람들이 탄복하는 배울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죽은 사람도 가리킨다. 위의 오류문장은 분명 한국 호칭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회피와 간소화는 사교전략의 표현이며, 중간언어에서 때로는 목표어의 소극적 전이로 표현되고, 때로는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로 표현된다. 필자는 후자를 ‘모국어 전이 생성 오류’ 내에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한다.

36) 先辈: 引自汉典 <http://www.zdic.net/c/8/6c/105906.htm>

어떤 오류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으며 목표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필자는 이런 오류에 대해 ‘모국어 전이 생성 오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한국학생이 작문을 “您们的女儿一定要为您们成功”으로 작성하였다. 한국어에는 경어와 비경어의 구분이 있어서 자기 부모에 대해 당연히 경어를 쓴다. 그래서 학생들은 중국어의 제2인칭의 경어 형식 ‘您’를 사용한다. 그밖에 중국어의 ‘们’은 접사로서 단수 형식의 인칭대명사 뒤에 첨가되어 복수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我们’은 제1인칭 ‘我’의 복수형식이며, ‘他们’은 제3인칭 ‘他’의 복수형식이고, ‘你们’은 제2인칭 ‘你’의 복수형식이다. 학생들은 이런 이치로 당연히 ‘您们’도 제2인칭 경어의 복수형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모국어의 영향뿐만 아니라 목표어의 영향을 받아 야기된 오류도 있다. 필자는 그것도 ‘모국어 전이 생성의 오류’에 포함시켜 분석하려한다.

비록 현재 각양각색의 오류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어떤 오류에 대해 모국어전이가 생성되는 지에 관한 정확한 표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모국어 전이 발생의 오류’에 대해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본 논문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필자는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작문 중 오류를 분석할 때, 어떤 오류가 모국어의 간섭에서 오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이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유명한 언어교육학자 Krashen도 언급하였다. 연구자가 어떤 오류를 모국어간섭에 따라 생기는 것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때, 보통 학습자가 생성한 단어 또는 문장의 문법형식을 자기민족어로 번역하여 유사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모국어 요소의 오류를 모국어 간섭의 하나라고 보았다. 俞理明은 “자기 민족어가 오류의 표현 부분에서 단지 보충요소나 2차 요소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학습자의 목표어 단어나 문장의 인지구조 형성 중에 생겨난 필연적 작용으로 볼 수 있다.”³⁷⁾라고 하였다.

이런 범주 확정 방법을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 *‘我决定了高考以后打工’에서 필자는 먼저 이 말이 ‘了’의 오용으로 야기된 오류로 판단했다. 정확한 표현은 ‘我決定高考以后打工’ 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목표어 형식 ‘我決定高考以后打工’은 학생의 모국어 ‘나는 대학입시 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37) 俞理明, 『语言迁移与二语习得』,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4, 110쪽.

即使本族语在错误的表现方面只是作为补充因素或次要因素, 它仍能被看作是在学习者目标语中的单词和句子的认知结构的形成中起了一定的作用。

결정했다'가 본래 학생이 쓰려던 것이다. 그 후에 학생이 '決定' 뒤에 '了'를 첨가한 것은 한국어 시제변화의 영향임을 알게 되었다. 한국어 어미 '~하다'에 '였'을 첨가하여 '하였다'로 바뀌 과거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중국어에서 과거와 완성된 시제 조사 '了'와 대응시킨 결과로 표시된다. 그래서 필자는 '*我决定了高考以后打工'은 '모국어전이로 생성된 오류'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이미 소개한 오류 생성의 주요 발생 범위는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 목표어 지식 소극적 전이, 문화요소 소극적 전이, 학습방법과 사교전략의 영향 그리고 학습환경 등 5가지 방면이다. 오류발생의 범위에 이어 다음으로 오류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오류 원인

1) 모국어의 영향

한국인 학습자가 중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간섭을 받아 쉽게 오류를 만든다. 鲁健骥가 말하였다. “중국어를 배우는 어떤 외국인 학습자가 새로운 한 어휘항목을 접할 때,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모국어를 연상하여 이 어휘와 어떤 어휘를 서로 대응시킨다. 나아가 양자를 완전히 동일시하여 사용상 오류를 만든다.”³⁸⁾ 두 언어 학습자 대부분이 성인이며, 그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자기도 모르게 모국어와 목표어를 연결시켜서 대응 사용한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 학습자는 종종 자신의 모국어 지식에 도움을 청하고, 모국어의 단어와 목표어의 단어를 간단하게 대응해 오류를 범한다. 필자가 학생들의 작문에서 어휘상의 오류를 조사한 결과, 한국 중·고급 중국어 학습자에게 어휘의 오류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모국어 전이 영향을 받은 것이며, 그 중 한자어가 한국 학습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자어와 중국어의 독음이 비슷하고, 의미가 같거나 비슷하다. 그래서 중국어 어휘 이해와 활용 측면에서 한국인은 뚜렷하게 우세하다. 그러나 '한자어'는 한국 학습자가 중국어를 배울 때 또한 불리한 면도 있다. 한국어의 한자어가 비록 최초에 중국어에서

38) 鲁健骥, 「外国人学习汉语的词语偏误分析」, 『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1987, 123쪽.

当一个学汉语的外国人接触到一个新的词语项目时, 他会很自然地联想到自己母语中与这个词语相对应的某个词语, 进而把二者完全等同起来, 造成使用上的偏误。

유래했지만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그들의 어의, 조합 등에서 서로 다른 변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그중 어떤 한자어와 중국어의 어떤 단어가 동형이지만 의미와 용법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런 차이가 종종 한국 학습자의 언어 교재에서 이해와 표현에 장애가 된다. ‘한자어’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고 한국어 지식을 부적합하게 적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단어들이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갖는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강조하여야 한다. 한국어 한자어는 한중 동형어, 한중 이형어로 나뉜다. 그중에 많은 동형어가 형식과 의미에서 매우 비슷하며, 또 한중 동형동의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한국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적극적 전이를 일으킨다. 그러나 어떤 것은 비록 형식상 비슷하지만 의미가 아주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동형이의어는 한국 학습자가 중국어를 배울 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소극적 전이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 중 나타나는 어휘오류 중에도 한중 동형어가 많고, 그중 동형이의어가 가장 많으며, 동형동의어 또한 적지 않다. 동형이의어의 어의에 복잡한 관계가 교차한다. 중국어 어의항목은 한국어보다 많고 한국어 어의항목은 한국 한자어보다 많으며, 또한 한중 어의가 서로 다르거나 성향이 다른 경우도 있다. 한국 학습자에게 이러한 단어의 미세한 차이를 가려내 정확한 사용법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학습자가 한중 어의 사이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한국 한자어를 그대로 답습하여, 오류를 만들어내기 쉽다. 평소 수업지도 중, 필자는 만일 중국어 유의동사 중 한국 한자어 형식이 같다면 학습자가 쉽게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한자어의 의미와 용법에 따라 중국어 유의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항상 헛갈린다. 그래서 유의동사를 가르치는 과정 중에 교사는 한중 어휘의 차이성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모국어와 목표어의 교차

孟祥英(1997)은 “서로 다른 언어의 어의체계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중국어에 어떤 유의어가 또 다른 언어에서 동의어”³⁹⁾라고 지적한다. 중국어 어휘는 매우 풍부하며, 어떤 유의동사는 한국어에서 상응하는 어휘를 찾을 수 없다. 한 조의 유의동사가

39) 孟祥英, 「谈对外汉语教学中的近义词辨析」, 『天津师大学报』, 第3期, 1997, 72쪽.

不同语言的语义系统是不完全一致的, 在汉语里有的近义词在另一种语言中是同义词。

한국어에서 모두 같은 어휘로 표시될 수도 있는데, 즉 두 언어 사이에 대응어의 공백이 있다. 모국어 중 어떤 단어는 대응하는 목표어에 몇 개의 단어가 있고, 학습자는 쉽게 그것들을 혼동하게 되어 소극적 전이를 야기한다.

3) 사전류 해석

사전류도 학생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주요 출처이다. 번역 중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만나면 사전 등을 찾는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중국어 사전은 보통 어의의 해석이 모두 개괄적이며, 비교적 간결한 대부분의 한중 동형어는 사전의 의미가 비슷해서 학생들이 잘 분별하지 못한다. 더구나 학생들이 휴대하는 한중, 중한 이중언어사전은 휴대용 포켓사전이 많다. 이런 사전은 편폭(篇幅)이 작고, 어휘수가 작아 해석이 상세하지 않고 대부분 대응하는 단어만을 열거한 것이다. 현재 한국 학습자가 가장 상용하는 대표적인『现代中韩词典』(고려대학민족문화연구소)에서도 대응어의 풀이가 안 될 때, 학습자가 오류생성을 야기한다. 『现代中韩词典』의 많은 중국어 유의동사가 동일한 한국어 단어 대역으로 쓰인다. 예를 들면, ‘认为’와 ‘以为’ 모두 ‘여기다’로, ‘消失’과 ‘消灭’은 모두 ‘없어지다’로 번역된다. 사전류의 해석은 상세하지도 않고 용법 설명도 없으며, 다만 해설한 후 한 두 개의 예를 열거한다. 글쓰기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韩中词典』의 도움을 받으며 쓴다. 그러나 종종 하나의 한국어 단어를 찾으려면 몇 개의 중국어 어휘가 나온다. ‘알다’라는 한 단어를 찾으려면 ‘了解,’ ‘理解,’ ‘知道,’ ‘懂’ 등 몇 개의 중국어 단어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심화된 분석은 없다.

이제 필자는 계속해서 중국어 품사오류에서 생성되는 소극적 전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가르친 한국학생 작문 중 실사(实词)와 허사(虚词) 및 어의오류(词义误谬) 세 방면의 모국어전어로 인해 생성된 오류들이다.

3. 품사오류

1) 실사오류

어휘는 언어의 중요 단위를 구성하는데 글쓰기의 필수재료이다. 한국학생들에게 풍부한 중국어 어휘는 중국어 학습의 고충이 되며, 동시에 한중 단어의 어의, 문법상 성

질 및 결합 습관이 결코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어 글쓰기를 할 때 종종 여러 어휘 선택 중 오류를 나타낸다. 한국학생의 학습 상황을 보면, 어휘오류(词语偏误)가 대단히 많고, 더구나 학습을 시작하자마자 발생한다. 어휘수의 증가에 따라, 어휘오류 발생도 점점 더 많아진다. 어휘오류의 생성 원인은 아주 많다. 특히 한국어 중 대량의 한자어가 있고, 한자어의 영향은 한국학생 어휘오류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국가의 하나로서 한자는 그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다.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며, 한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학생들은 중국어 학습에 뛰어나다. 한국은 역사상 장기간 한자를 사용했는데, 한국의 문자 창제 이후에도 한자는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어휘 체계는 세 종류로 나눈다. 즉, 고유어, 한자어 및 외래어이다. 고유어는 한국민족이 스스로가 만든 어휘이며, 한국어 어휘의 주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열’의 숫자를 표시한다. 외래어는 대부분 근대 서양문화 개념의 어휘를 나타내며, 서양에서 유입한 것으로 예를 들어 ‘computer-컴퓨터’와 같은 것이다.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 중 매우 중요한 구성을 이루며, 그것은 한자문화의 전래로 생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佛敎-불교’이다. 중국어 작문수업 과정 중 필자가 알게 된 것은 한국학생들이 한자 단어를 사용할 때, 한국어 한자어가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두 언어의 사용법이 달라서 어떤 한자어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중국어 중 직접 흡수된 한자어 외에, 한국에서 대량의 한자가 한국어의 기록으로 사용되고, 축적되고 활용되어 한국 특유의 한자어를 만들어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런 어휘들이 천천히 고정된 형식과 의미를 형성하고, 한국어의 고유한 어휘로 변했다. 과거의 학자들이 한중 두 언어에 대해 진행한 대조분석 또는 오류분석은 거의 모두 한자어의 범주에 국한되었다. 寄化龙(2000)의 「中韩同形词正负迁移初探」, 刘枫(2007)의 「从HSK同素逆序词看对外汉语词汇教学」, 秦思(2012)의 「对韩汉语词汇教学中韩国汉字词的迁移作用及教学策略」과 같이 이런 연구 경향은 단어의 형식에만 접근하여 연구 범위의 결과가 한정되었다. 한국어의 한자어가 수량으로는 고유어보다 많지만 실제 생활 중 사용 빈도수로 보면, 고유어의 사용 빈도수가 더욱 높다. 그래서 오류 생성의 출처가 한자어에만 있지 않으며, 고유어에서도 또한 많은 오류가 생겨난다. 우리는 당

연히 이전 한국어 한자어와 한자 어휘 사이의 관계 범위에서 벗어나 한국학생 어휘상의 오류를 전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본 장은 주로 한국 고등학생들의 중국어 작문 수업 중 작성한 중국어 작문을 주요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품사 중 실사의 범위에서 분류하였다.

(1) 명사

언어유형으로 보면,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하여 그 자체가 복잡한 형태변화가 있으며, 어미변화로 문법상 성질과 시제를 구분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한자 명사에 어미 ‘-되다’, ‘-시키다’, ‘-하다’를 덧붙이면 동사가 된다. 이것은 형용사에도 활용된다. 어떤 명사에 어미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예를 들어 ‘안전’은 명사인데, 어미 ‘-하다’를 붙인 후에는 형용사가 된다. 어떤 형용사에 부사 어미 ‘-이’, ‘-히’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⁴⁰⁾

중국어는 고립어에 속하여 자체의 형태변화가 없다. 그래서 중국어의 문법상 성질 표기와 시제표시가 아주 불분명하다. 이런 차이로 인해 한국 유학생이 막 중국어를 접했을 때, 어휘 형태 변화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직접 어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어휘 문법상의 성질을 몰라 사용 중 오류를 만든다. 학생들이 한국어의 문법만을 고려하여 중국어에 대응시키는 현상은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문법상의 전이를 야기한다.

명사의 동사 오용

①*还有我们从来没经历过战争的痛苦，从来没担心没有吃的，穿的。

还有我们从来没经历过战争的痛苦，从来没担心没有吃的，穿的。

그리고 우리는 이제껏 전쟁의 고통을 겪은 적이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걱정해 본 적이 없다.

②*每个人都经历过以声调为出了很多难忘的事情。

每个人都经历过因声调而发生的很多难忘的事情吧。

40) 姜泰希, 「韩汉两种语言中汉字词的比较」, 北京语言文化大学, 2000, 15쪽.

韩语中, 汉字名词加上词尾‘-되다’、‘-시키다’、‘-하다’之后, 就可以成为动词。这也适用于形容词, 有些名词加上词尾之后也可成为形容词, 如‘安全(안전)’是名词, 加上词尾‘-하다’之后便成了形容词。有的形容词加副词词尾‘-이’、‘-히’又成了副词。

사람마다 모두 성조 때문에 생기는 잊지 못할 많은 일을 경험했다.

③*我以前经验过一次小挫折。

我以前经历过一次小挫折。

나는 이전에 작은 좌절을 겪은 적이 있다.

중국어에서 ‘经验’은 명사이고 서술어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위의 ①, ②, ③ 문장 중 ‘经验’을 ‘经历’로 바꿔 써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험’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사용한다.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에 의하면 명사 용법에는 ‘실전 경험이 많은 노병사’, ‘경험을 얻다’, ‘풍부한 경험을 쌓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여 일하는 게 서툴다’⁴¹⁾ 등의 표현들이 사용된다.

동사 용법은 ‘좌절을 경험하다’, ‘많은 변화를 경험하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으며,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타인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⁴²⁾ 등이다. ‘经验’은 한국어에서 명사지만, 동사 접사를 붙이면 동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학생이 자주 ‘经验’을 오용하게 된다.

④*妈妈同伴我去中国学习。

妈妈陪伴我去中国学习。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중국에 가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한국어에서 한자어 ‘同伴’과 동사의 어미 ‘-하다’가 결합하여 동사로 사용된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중국에 가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처럼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중국어에서 ‘同伴’은 명사다. 비록 『中韩辞典』⁴³⁾에서 ‘同伴’이 동사의 용법으로 사용되지만, 북경어언대학의 BCC语料库, 북경대학 중국언어학 연구센터의 CCL语料库 및 国家语委现代汉语平衡语料库에서 검색하면, 현대중국어语料库에서 균일하게 ‘同伴’이 동사가 되는 용법은 찾을 수 없다. 사전적 해석과 중국인

41) 경험: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42) 경험: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43) 同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2002)中'同伴'의用法有两个, 一个是动词'同伴走(함께 가다)', 另一个是名词'길동무, 동행자, 동반자, 동료, 짝.'

실제생활에서의 적용이 불일치하고 있다.

⑤*但是我会同感他们。

但是我跟他们有同感。

그러나 나는 그들과 공감한다.

⑥*成千上万的人都同感一首歌。

成千上万的人对同一首歌有同感。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노래에 공감한다.

⑦*我听他的话很同感。

我听了他的话以后很有同感。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아주 공감했다.

‘同感’은 중국어에서 명사이며, 동일한 감각, 감성 혹은 감상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我也有同感(나도 동감이다)’라는 문장이다. 한국어에서는 동사이며 찬동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친구의 말에 동감하다,’ ‘내 제안에 동감하는 사람만 손을 들어 주시오’ 등이다.

⑧*因为我不跟你们一起住, 要责任自己的行为。

因为我不跟你们一起住, 要对自己的行为负责。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责任은 중국어에서 명사이며, ‘担负责任(책임을 지다),’ ‘责任重大(책임이 무겁다),’ ‘追求责任(책임을 추궁하다)’⁴⁴⁾와 같다. 한국어에서 ‘책임’은 명사로 쓰이는 외에 동사 어미 ‘-지다’를 붙여 동사로 쓴다. 그래서 한국학생이 항상 ‘责任’을 동사로 오용하여, ‘负责(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표현한다. 여기에서는 ‘责任’을 ‘负责’ 고쳐 써야 한다.

(2) 동사

44) 责任: 『전면 개정 한중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2542쪽.

A) 동사의 명사 사용

①*我父母亲谈恋爱时，我外公反对我父母亲的结婚

我父母亲谈恋爱时，我外公反对我父母亲的婚事。

부모님이 연애할 때, 할아버지가 부모님의 결혼을 반대했다.

②*我应该祝贺她的结婚吧。

我应该祝贺她结婚吧。

나는 그녀의 결혼을 축하해야 한다.

‘결혼(结婚)’은 한국어에서 일반 명사이며, 수식하는 구문의 중심어가 되고,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다른 동사와 연결되어야 한다. 중국어의 ‘结婚’은 동사이다.

B) 동사의 형용사 오용

①*这个电影又有意思又伤心。

这个电影又有意思又让人伤心。

이 영화는 재미도 있고 슬프기도 하다.

②*很多歌曲还很好听而且有些歌曲非常感动。

很多歌曲还很好听而且有些歌曲让人非常感动。

많은 노래가 듣기 좋을 뿐 아니라 어떤 노래는 아주 감동적이다.

③*狗叫的声音非常害怕。

狗叫的声音让人非常害怕。

개 짖는 소리가 아주 무섭다.

‘伤心’, ‘感动’, ‘害怕’는 한국어에서 어미를 덧붙여 동사로 만들 수 있지만, 위의 한국어 문장에서 모두가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학생들이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伤心’, ‘感动’, ‘害怕’를 형용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이 세 단어는 모두 심리활동의 동사로 표시되며, 이 세 단어 동작의 발화자는 당연히 ‘사람’이다. 구체적 사물이 될 수 없어서 위 세 문장은 마땅히 ‘伤心’, ‘感动’, ‘害怕’ 앞에 ‘使’, ‘令’, ‘叫’, ‘让’을 더해 겹어문 형식으로 바뀐다.

C) 자동사의 타동사 오용

타동사는 지배하고 관계하는 대상의 성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자동사는 지배하고 관계하는 대상의 성분을 나타낼 수 없는 동사이다.

①*毕业初中后, 我跟朋友们去了老挝旅行。

初中毕业后, 我跟朋友们去了老挝旅行。

중학교 졸업 후, 나는 친구들과 라오스로 여행을 갔다.

중국어의 ‘毕业’는 자동사이며,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는데, 한국어는 가능하다. ‘중학교를 졸업하다’, ‘그는 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내가 바라건대 너희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읽을 책에 관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도록 해라’⁴⁵⁾ 등의 문장들이다.

②*我在中国遇到了各种各样的人, 跟朋友一起旅行了北京, 吃了许多中国菜。

我在中国遇到了各种各样的人, 跟朋友一起去了北京旅行, 吃了许多中国菜。

나는 중국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친구와 함께 북경여행을 가서 많은 중국 요리를 먹었다.

‘旅行’은 자동사이며 목적어 ‘北京’을 취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연동문으로 ‘去北京旅行’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오류는 한국학생의 작문 가운데 많이 존재하며, 주로 중국어와 한국어 사이의 차이로 만들어진다. 한국어에서 ‘旅行’은 타동사와 자동사로 사용되며, 뒤에 직접 여행 목적지를 붙일 수 있다. 나는(我) 친구와(跟朋友) 함께(一起) 북경을(北京) 여행했다(旅行了). 이것은 분명 한국어 모국어 전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③*我入学大学以后, 我可以接触很多业余活动。

我进入大学以后可以接触很多业余活动。

45) 毕业: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나는 대학에 진학한 후 많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④*原来我对汉语没有感兴趣,但是入学济州外高以后,第一次学汉语,我可以找到学汉语的乐趣。

本来我对汉语不感兴趣,但是进入济州外高以后,第一次学汉语让我找到了学汉语的乐趣。

본래 나는 중국어에 흥미가 없었지만, 제주의외고에 입학한 후 처음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중국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갖게 됐다.

⑤*我最高兴的事是入学济州外国语高中汉语班。

我最高兴的事是进入济州外国语高中汉语班。

나의 가장 기쁜 일은 제주의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⑥*我特别想学习汉语,所以我决定入学济州外国语高中。

我特别想学习汉语,所以我决定进入济州外国语高中。

나는 중국어를 매우 배우고 싶어서 제주의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결정했다.

③-⑥문장은 모두 ‘入学’의 문법상 성질 오용이며, 학생이 자기소개 쓰기에서 틀리고 있다. 한국어에서 ‘入学’은 동사의 어미를 붙인 후에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제주대학에 입학하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다’ 등의 문장들이다.

중국어에서 ‘入学’의 의미는 한국과 같고, 모두 모 학교에 진입하는 것이다. 다만 이 단어 자체가 动宾형식이어서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다. 중국어의 표현 습관에 따라

③-⑥번 문장의 ‘入学’은 ‘进’ 또는 ‘进入’로 고쳐야 한다.

‘입학(入学)’과 마찬가지로 HSK 학생 작문에서 ‘请客’의 출제 빈도수가 높다.

⑦*今天我很高兴,所以我请客你们。

今天我很高兴,所以我请你们客。

오늘 내가 아주 기분이 좋으니까 너희들에게 한턱낸다.

⑧*我请客今天生日的朋友。

我请今天过生日的朋友客。

내가 오늘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한턱낸다.

⑨*如果你做生意的话, 你可能要请客很多人。

如果你做生意的话, 你可能要请很多人的客。

만일 네가 사업을 하려면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한턱내야 한다.

중국어에서 ‘请客’은 이합사(离合词)이고 이합사는 뒤에 직접 목적어가 올 수 없다. 목적어가 필요할 때는 보통 ‘V+ 대명사+(的)+O’ 형식을 쓴다. 그래서 자료⑧ 문장은 ‘今天我很高兴, 所以我请你们的客’로 고쳐야 한다. 오류문장 ⑧와 ⑨도 마찬가지로이다.

⑩*在外高见面的老师和学生是世界上最好的人们。

在外高见到的老师们和学生们的世界上最好的人。

외고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다.

⑩은 ‘见面’ 단어 오류이다. 중국어 문법규칙에서 ‘见面’은 자동사이며,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다. 한국어 모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어에서 ‘见面’은 타동사로 표시된다.

⑪*为了取得厨师资格证, 我需要合格笔试和技术考试。

为了取得厨师资格证, 我需要通过笔试和技术考试。

요리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나는 필기시험과 기술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⑫*去年时不合格导游考试, 让我大失所望。

去年没有通过导游考试, 让我大失所望。

작년에 가이드 시험에 떨어져서 나는 크게 실망했다.

⑬*如果我合格我希望的大学的话, 我有很多想做的。

如果我考上我希望的大学的话, 我有很多想做的。

만일에 나는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하고 싶은 일이 많다.

⑪-⑬번 문장 모두 ‘合格’을 타동사로 잘못 판단한 오류이며, 문장 중 ‘合格……考试’, ‘合格……大学’는 모두 모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어로는 ‘대학에 합격하다,’ ‘그는 세 번 만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였다’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문장은 각

각 ‘在笔试和技术考试中合格,’ ‘在导游考试中没合格,’ ‘在大学入学考试中合格的话’로 수정해야 한다.

위의 각 문장은 모두 타동사를 자동사로 바꾼 오류이다. 중국어에서 위의 동사와 목적어로 구성된 ‘毕业,’ ‘旅行,’ ‘入学,’ ‘请客,’ ‘见面’은 离合词라고 불린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항상 틀리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 즉, ‘留学,’ ‘上课,’ ‘旅游,’ ‘握手,’ ‘生气,’ ‘结婚,’ ‘帮忙,’ ‘吵架,’ ‘散步.’ 학생들의 작문에서 이 이합사의 오류가 많으며, 쉽게 틀린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한국어에 이합사가 없고, 动宾 구조의 동사가 적으며, 대부분의 동사는 직접 목적어를 취하고, 하나의 동사는 나뉘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학생들은 짧은 문장 성질의 이합사를 단순하게 타동사로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외 任雪梅(1999)는 “초급단계 학습 중 학생들은 종종 두 언어가 표면적으로 같고 어의 개념이 같거나 비슷한 것에 준하여 그것들을 가볍게 대등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 문법의 특별한 차이를 경시하여 오류를 생성시킨다”⁴⁶⁾라고 하였다. 사실 초급단계에서만 아니다. 필자는 중국유학 10년이 넘는 한국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언어학습의 경험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초급자가 아니지만, 이런 오류가 여전히 많았다. 모국어 전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肖奚强(2000)는 “사실 이합사가 시제·조사·추향(趋向)·시량·동량보어를 가져올 때, 문법 기능은 기본적으로 일반 动宾短语 기능과 일치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쌍방이 만일 이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다면 오류는 분명 감소할 것이다.”⁴⁷⁾라고 하였다.

(4) 기타

한국학생들이 흔히 모국어의 조합관계를 목표어의 대응어에 그대로 적용하여 단어의 조합을 부적당하게 만든다. 아래의 예문 중 오류조합은 곧 학생들이 한국어의 조합관계의 영향을 받아 나타낸 오류이다.

46) 任雪梅, 「外国留学生汉语离合词偏误分析」, 『汉外语言对比与偏误分析论文集』, 北京大学出版社, 1999, 120쪽.

在初级阶段的学习中, ……学生们往往只凭两种语言表面的相同及语意概念上的相同或相近, 就把它们简单地对等起来, 而忽视了它们语法特点的差异, 导致了偏误的产生。

47) 肖奚强, 「韩国学生汉语语法偏误分析」, 『世界汉语教学』, 第2期, 2000, 95쪽.

其实离合词在带时态助词趋向时量动量补语时句法功能基本上与一般的动宾短语功能一致, 教与学双方对这一点如果有充分的认识, 偏误一定会减少。

①*爸爸说陆战队的纪律太严格、要求太大，像我们这年代的年轻人不能适应。

爸爸说陆战队的纪律太严格、要求太多，像我们这年代的年轻人不能适应。

아버지께서 해병대의 규율이 너무 엄격하고, 요구가 커서 우리 같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적응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한국어에서는 ‘요구가 크다(大)’고 말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多’를 써야한다.

②*妈妈的伤心太大，我该怎么办就好了？

妈妈太伤心了，我该怎么办才好？

어머니의 슬픔이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한국어에서 ‘슬픔이 너무 크다(伤心太大)’고 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안 된다.

③*走着走着，前面的灯光突然消灭了。

走着走着，前面的灯光突然消失了。

계속 걸어가는데 앞의 등불이 갑자기 사라졌다.

④*这些是用钱也不能买的，就要消灭的，所以我们一定要保护。

这些是用钱也不能买的就要消失的，所以我们一定要保护。

이것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없어질 것이서 우리가 꼭 보호해야 한다.

중국어의 ‘消失’은 ‘점점 멀리 떠나가거나 감소하는 곧바로 없어지는 것’의 의미이다. 그 중에는 외부의 영향이 없고 뒤에 목적어를 동반할 수 없다. ‘消灭’은 외부의 힘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죽게 하는 것이며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 한국어에도 ‘消失(소실하다)’와 ‘消灭(소멸하다)’의 한자어가 있지만, 한국어의 ‘消灭(소멸하다)’와 중국어의 ‘消灭’의 조합 대상은 다르다. 중국어의 ‘消灭’의 대상은 좋지 않은 것이나 해가 있는 것이지만, 한국어의 ‘消灭(소멸하다)’의 대상은 좋지 않은 것과 해가 있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민족유산 등과 같은 것이다. 한자어 조합대상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한국의 중·고급 중국어 학습자가 ‘消灭’을 사용할 때, 쉽게 헛갈린다.

⑤*当他有了同伴人，更应该勤快，多干些过去自己因无力干不了的活儿。

当他有了陪伴的人，更应该勤快，多干些过去自己因无力干不了的活儿。

그가 동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부지런해야 하고, 과거에 자신이 무력해서 할 수 없었던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위의 ‘同伴’은 중국어에서 명사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他是我的同伴’ 라는 문장이 다. 그리고 한국어에 ‘인생의 동반자’, ‘여행의 동반자’와 같은 ‘동반자(同伴者)’ 표현이 있다. 학생들이 이런 영향을 받아 ‘同伴人’이란 표현을 썼다. 중국어에는 ‘同伴人’이란 표현이 없고, 이것은 词位의 공백으로 인한 오류에 속한다.

⑥*随着经济与社会的发展，我们的生活水平同步提高，对食生活、身体健康方面关心的人也是越来越增加。

随着经济与社会的发展，我们的生活水平同步提高，对饮食生活、身体健康方面关心的人也越来越多。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생활수준도 함께 향상되었고, 식생활과 신체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한국어에는 ‘식생활’이란 표현을 사용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없는데 학생들이 일일이 대응 번역을 하여 오류를 나타냈다. 이것도 词位의 공백으로 인한 오류에 속한다.

⑦*我遇到很困难的时候，常常想起母亲，就有克服困难的自信感。

我遇到困难的时候，常常想起母亲，心里就有了克服困难的自信心。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⑧*对此我真的充满自信感。

对此我真的充满自信心。

이것에 대해 나는 정말 자신만만하다.

위의 오류는 모두 ‘自信感’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오류이다. 한국어에서 ‘자신감이 넘치다,’ ‘자신감이 없다,’ ‘자신감을 되찾다,’ ‘자신감을 잃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 语料库에서 검색하면, ‘自信感’에 관련된 어휘자료는 하나도 찾을 수 없고, 고대 중국어 语料库에서도 ‘自信感’의 표현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自信心’을 검색 조건으로 하여 필자는 50개의 적합한 예문을 찾았다. 이 예문을 관찰하여 ‘自信心’의 용법에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아래와 같다 (괄호안의 숫자는 나타난 횟수를 표시한다).

인칭대명사+ ‘的’+ 自信心(5)

提高自信心(4)

树立自信心(4)

失去自信心 (4)

有自信心(4)

培养自信心(3)

自信心强(2)

加强自信心(2)

抱着自信心(2)

充满自信心(2)

激发自信心(1)

建立自信心(1)

한국어 ‘자신감’과 중국어 ‘自信心’의 비교를 통하여, 필자는 한국어의 ‘자신감(自信感)’은 중국어의 ‘自信心’에 대응됨을 알아냈다. 한국학생들이 이런 점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한국어의 ‘자신감’의 용법을 사용함으로 위의 오류들을 만들었다.

⑨*妈妈周中一直帮助我弟弟, 周末帮助爸爸。

妈妈平时一直帮助我弟弟, 周末帮助爸爸。

어머니는 평소 줄곧 동생을 돕고 주말에는 아버지를 도우신다.

한국어에 ‘周末(주말)’이란 단어 외에 ‘周中(주중)’이 또한 상응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시간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오히려 ‘周末’이라는 말만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꼭 짚어 표시하는 단어가 없다. 만일 주중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平时’를 적용한다. 이것은 단어 위치가 비대칭으로 야기된 전이에 속한다.

2) 허사오류

이곳의 분류 및 오류분석은 필자의 새로운 시도이다. 또한 필자는 본 논문에서 허사의 오류 중에 개사, 부사, 조사만 다루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학생들의 작문 오류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1) 개사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는 문법상의 차이가 크다. 중국어는 孤立語에 속하며, 문장 성분을 전문적으로 나타내는 부가성분이 없고, 주로 虛詞와 語序으로 문법관계를 표현하며, 중국어 허사는 매우 복잡하여, 한국 학생들은 허사의 활용에 서툴고 모국어 전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국어 개사는 허사의 일종이며, 주요 기능은 동사의 동작행위를 끌어내거나 형용사의 성질과 상태와 관련된 대상, 동작 주체(施事), 동작의 대상(受事), 시간, 장소, 방식, 원인, 목적, 근거, 범위 등을 가리킨다.⁴⁸⁾ 예를 들어, ‘我在上午从学校给你打了一个电话’의 문장에서 개사 ‘在,’ ‘从,’ ‘给’은 동작의 시간, 장소 및 관계대상을 분별하도록 이끈다.

중국어 개사를 의미에 따라 나누면 동작 주체, 동작 대상, 시공, 대상, 목적, 원인, 방식, 근거 배제 등이다. 그 중 시공유형, 대상유형 개사는 개사 중에 가장 상용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어휘자료 수집에서 보면, 한국학생들은 이 두 종류 개사 사용의 오류가 그 외의 다른 개사의 종류보다 많다. 요컨대 원인은 주로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사용 빈도수가 높고 오류를 만들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둘째는 이 두 개사의 의미와 용법이 복잡하고, 특히 개사 한 단어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으

48) 傅雨贤·周小兵等, 『现代汉语介词研究』, 中山大学出版社, 1997, 6쪽.

汉语介词是虚词的一种, 主要功能是引出跟动词所指动作行为或形容词所指性质状态有关的对象、施事、受事、时间、处所、方式、原因、目的、根据、范围等。

며, 셋째는 이 두 개사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의 대응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로 오류 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이 두 개사를 고찰 대상으로 하며, 논의되는 개사는 주로 ‘在, 从, 向’과 ‘对, 给’이다. 논문을 쓰는 과정 중 논의되는 모든 중국어 개사는 주로 시공유형과 대상유형 개사를 가리킨다.

A) ‘在’

중·고급단계의 학생들은 개사 ‘在’를 사용할 때 종종 혼란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在’를 사용해야 할 때와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어서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래는 한국학생들 작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사용법의 오류이다.

①*现在想起来我去年中国留学的时候, 常常给你们打电话。

现在想起来我去年在中国留学的时候, 常常给你们打电话。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작년에 중국에서 유학할 때 자주 너희에게 전화했었다.

②*我很健康, 很用功而且过得比韩国还愉快得多。

我很健康, 很用功而且过得比在韩国还愉快得多。

나는 매우 건강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에서보다 더 즐겁게 지낸다.

위의 예문 ①-②은 모두 ‘在’가 누락된 오류에 속한다. 문장 중 밑줄 친 단어는 ‘中国’, ‘韩国’ 등 장소를 표시하는 명사이다. 앞에 당연히 개사 ‘在’를 두어 개사구를 만들어 동작의 발생 혹은 진행의 장소를 나타내야 한다. 만약 개사 ‘在’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문장 중의 장소를 표시할 방법이 없고 오류 문장이 된다. 이 몇 개의 문장은 ‘在中国留学的时候’, ‘过得比在韩国还愉快得多’로 고쳐야 한다.

이상의 문장에서 나타난 개사 ‘在’의 누락오류 주요 원인은 모국어 전이로 인한 것인데, 즉 중국어 개사의 위치와 한국어 부사격 조사의 위치가 달라서 만들어진 오류이다. 개사 ‘在’는 명사 또는 명사구 등 체언과 결합하여 개사구를 만들 때, 개사는 앞에 두고 체언은 뒤에 두는 ‘개사+ 체언’의 격식을 갖는다. 한국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체언과 결합 할 때, 체언 뒤에 ‘체언+ 부사격조사’의 격식으로 붙는다. 그래서 한국학생들이 한국어를 중국어로 전환시킬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실제 의미 있는 체언을 갖춘 후 장소를 표시하는 개사를 쓸 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

다. 두 언어 간의 차이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한국어의 어미나 조사는 중국어로 전환할 때 어떤 허사도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어순 또는 기타 문법 수단에 의거해서 상응하는 문법의 의미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한국어 부사격조사는 중국어로 전환할 때 상응하는 개사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어떤 개사는 아무런 대응 없이 중국어 문장의 통사론 구조와 어의 요구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储泽祥은 “중국어의 표현은 꼭 반드시 개사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 방위 장소는 개사의 의존도가 비교적 약하고, 꼭 개사를 사용해야 하는 곳은 종종 통사론 구조의 필요에서이며 방위 장소 자신의 필요에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⁴⁹⁾ 따라서 한국학생들의 사유방식에 따라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을 선택한 후 상응하는 개사 사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위 문장의 누락 오류가 바로 학생들이 선택을 한 후 습관적으로 부사격조사에 대응하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개사를 생략하여 오류를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문장에서 개사 ‘在’의 누락오류는 주로 중국어의 개사가 한국어 부사격 조사의 위치와 달라서 생성된 것이다. 둘째로 학생들이 개사 ‘在’에 대해 장소를 나타내야 할 때, 필수 사용해야 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야기된 것이다.

③*现在父母都希望自己的孩子社会上有所成就。

现在父母都希望自己的孩子在社会上有所成就。

지금은 부모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이 사회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

④*父母和子女之间很不同的环境里成长的。

父母和子女是在很不同的环境里成长的。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다.

⑤*我以前报纸上看过。

我以前在报纸上看过。

내가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

49) 储泽祥, 『现代汉语方所系统研究』, 华中师范大学出版社, 1997, 365쪽.

汉语的方所表达, 不一定完全依赖介词, 换句话说, 汉语方所对介词的依赖程度是比较弱的, 必须用介词的地方, 往往是句法结构的需要, 而不是方所本身的需要。

마찬가지로 예문 ③-⑤의 문장은 개사가 빠진 것이다. 각각 ‘在社会上’, ‘在环境里’, ‘在报纸上’로 고쳐야 한다. 문장 중 밑줄 친 어휘 ‘社会上’, ‘环境里’, ‘报纸上’은 방위사(方位词)와 결합하여 방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이며, 앞에는 개사 ‘在’가 필요한데, 이렇게 할 때에야 장소를 바로 나타낼 수 있다. 공식으로 표시하면 ‘在+NP+方位词’이다. 한국어에서는 ‘NP+부사격조사’로 장소를 나타낼 수 있고 중간에 방위사가 필요치 않다. 한국학생들은 보통명사가 반드시 방위사와 결합되어야 장소를 나타내는 이 문법규칙을 알고 있다. 그 때문에 명사 뒤에 방위사 ‘上’과 ‘里’를 붙인다. 하지만 오히려 앞에 마땅히 있어야 할 개사 ‘在’를 소홀히 한다. 더구나 위치상으로 보면 방위사 ‘上’과 ‘里’가 명사 뒤에 위치하며, 바로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의 위치와 서로 같아서 서로 비교하여 논하자면, 학생들은 뒤의 방위사를 좀처럼 생략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전면의 개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⑥*所以在商店里去看, 大多数农产品写是‘绿色食品’。

所以到商店里去看, 大多数农产品写着‘绿色食品’。

그래서 상점에 가서 보니 대부분의 농산품이 ‘녹색식품’이라 쓰여 있다.

⑦*她回答说: “在釜山来的。”

她回答说: “从釜山来的。”

그녀가 대답했다. “부산에서 왔어요.”

⑧*在大学毕业以后, 我想在出版社翻译办公室工作。

从大学毕业以后, 我想在出版社翻译办公室工作。

대학을 졸업 후 나는 출판사 번역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예문 ⑥-⑧의 문장에서 개사 ‘在’는 마땅히 각각 ‘到’와 ‘从’으로 고쳐야 한다. 예문 ⑥-⑧문장에서 개사 ‘在’는 각각 ‘到’와 ‘从’으로 고쳐야 한다. 두 문장은 ‘到商店里去看’, ‘从釜山来的’로 고쳐야 한다. 예문 ⑥의 동사 ‘去’는 방향의 뜻이 있고, ‘商店’은 동작 ‘去’의 종점이어서 동사 ‘去’는 동작의 종점을 나타내는 개사 ‘到’가 语义와 결합된다. 개사 ‘在’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로 구성되어 동사 뒤에 위치하고 보어로 사용될 때, ‘把垃圾扔在地上’처럼 동작의 종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개사구가 술어동사 앞에 위치하면 문장에서 상황어가 되어 보통 사람 혹은 사물이 있는 장소 또

는 동작이 진행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동작의 종점을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의상 동사 ‘去’는 조합 사용할 방법이 없다. 이 문장도 ‘去商店里看’과 ‘在商店里能看到’로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이 동사 ‘去’를 써야 하고 개사를 써야 한다면 개사 ‘到’는 쓸 수 있지만, ‘在’는 쓸 수 없다.

예문 ⑦ 중 동사 ‘来’는 방향의 뜻이 있으며, 동작의 기점을 표시하는 개사 ‘从’과 조합될 수 있다. 왜냐하면 ‘在’는 동작의 기점을 표시하는 문법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위의 두 문장에 나타난 개사 오류는 어느 정도 모국어 소극적 전이와 관련이 있는데, 즉 중국어 개사 ‘在’, ‘到’, ‘从’과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 사이에 교차대응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개사를 선택하는데 오류를 보일 수 있다. 이 3개의 개사와 한국어 부사격 조사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중국어 개사‘在’, ‘到’, ‘从’과 한국어조사 ‘에’, ‘에서’의 비교

문법의의	중국어 개사			한국어 부사격 조사	
	在	到	从	에	에서
사람 혹은 사물존재의 장소	+			+	
동작진행의 장소	+				+
동작의 종점	+	+		+	
동작의 출발점			+		+

‘에’와 ‘在’, ‘到’ 상호 대응, ‘에서’와 ‘在’, ‘从’ 상호 대응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서술어 동사의 어의가 요구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개사를 쉽게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어 문장 중의 부사격조사 ‘에’는 개사 ‘在’와 대응되고 ‘到’도 대응될 수 있지만, 중국어 문장 중 선택이 필요한 ‘到’가 필요시에 학생들은 오히려 개사 ‘在’를 잘못 선택하고 있다.

⑨*在教室里有很多书。

教室里有很多书。

교실에 많은 책이 있다.

이 문장은 존현문(存现句)에 속하는데 ‘在’의 오용이다. 중국어의 존현문에서 장소나

시간을 표시하는 단어는 문장의 앞에 위치한다. 이때 개사 ‘在’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의 용법은 이것과 달라 장소의 단어가 문장의 앞에 오게 될 때, ‘에’를 사용하여 사물 혹은 사람이 차지하는 장소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山上有很多树。

산에 나무가 많다.

游泳池里人很多。

수영장에 사람이 많다.

昨天我们家来了一个客人。

어제 우리 집에 손님 한 명이 왔다.

학생들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문장 중의 개사 ‘在’를 첨가하는 오류를 범했다. 예문 ⑨는 ‘在’가 없어야 한다.

⑩*这样的情况下我真受不了，于是对父母发脾气。

在这样的情况下我真受不了，于是对父母发脾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부모님께 화를 냈다.

⑪*这样，很多人一起生活的情况下……

这样，在很多人一起生活的情况下……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상황에서……

⑫*我的各种努力中，我要介绍一下我生活的一部分。

在我的各种努力中，我要介绍一下我生活的一部分。

나의 여러 가지 노력 중에 나의 생활 일부분을 소개하려 한다.

⑬*这过程中，最重要的是互相努力。

在这个过程中，最重要的是互相努力。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노력하는 것이다.

⑭*我的记忆中，妈妈总是鼓励我。

在我的记忆中，妈妈总是鼓励我。

나의 기억에는 어머니가 항상 나를 격려하셨다.

⑮*他们是肯定比我经历得多各个方面。

他们肯定在各个方面比我经历得多。

그들은 분명히 여러 방면에서 나보다 겪은 것이 많다.

위의 모든 문장은 ‘在’를 빠뜨리고 있는데, 각각 ‘在这样的情况下’, ‘在很多人一起生活的情况下’, ‘在我的各种努力中’, ‘在这个过程中’, ‘在我的记忆中’, ‘在各个方面比我经历得多’로 고쳐야 한다.

개사 ‘在’가 범위나 조건 등의 뜻을 표시할 때, 항상 어떤 방위사(方位词) 명사 등과 고정격식으로 결합한다. ‘在……上’, ‘在……中’, ‘在……下’, ‘在……方面’ 등과 같다. 이런 개사구 격식에서 개사 ‘在’는 보통 생략할 수 없다.

위의 예문 ⑩-⑮ 문장의 고정격식을 한중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3 중국어 개사 구조와 한국어의 대조

중국어	한국어
在+NP+情况下	NP+경우에
在+NP+过程中	NP+과정에
在+NP+中	NP+에

위의 표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두 언어 중 개사구 격식이 다르고, NP의 위치도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부사격조사 ‘에’는 ‘명사+에’와 결합하는 고정격식으로 ‘경우에’와 ‘과정에’가 되어도 모두 NP 뒤에 위치한다. 반면에 중국어에서 NP는 개사 ‘在’와 방위사 또는 방위를 나타내는 구 중간에 위치한다. 위치상의 차이로 개사 ‘在’는 고정격식의 의미가 ‘허(虛)’로 비교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비교적 쉽게 개사 ‘在’를 빠뜨린다.

예문 ⑮은 마찬가지로 개사 ‘在’가 빠졌다. 중국에서 명사 ‘方面’은 보통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작용하지 않고 개사 ‘在’는 고정격식 ‘在……方面’으로 결성하여 문장에서 상황어가 된다.

B) ‘从’

刘月华(2004)에 따르면 중국어 개사 ‘从’은 공간상에서 동작행위의 기점을 표시한

다. ‘外婆从农村搬到城里来了’와 같다. 시간상 동작 개시의 시간을 표시하는데 ‘我们从昨天开始放暑假了’⁵⁰⁾의 예와 같다.

학생들의 ‘자기소개’ 중에 아래와 같이 ‘从’과 관련된 많은 오류가 있었다.

①*从我小的时候，我就喜欢跟爸爸看电影。

从小的时候起 / 开始，我就喜欢跟爸爸看电影。

어려서부터 나는 아버지와 영화보기를 좋아했다.

②*从小时候我对运动有了很大的关心。

从小时候起 / 开始，我就对运动很感兴趣。

어려서부터 나는 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③*从我小时候，我喜欢很多歌手。

从小时候起 / 开始，我就喜欢很多歌手。

어려서부터 나는 많은 가수를 좋아했다.

④*从小时我非常喜欢看电视剧或电影。

从小时起我非常喜欢看电视剧或电影。

어려서부터 나는 드라마와 영화보기를 아주 좋아했다.

⑤*我从中学生非常关心社会问题。

我从中学起 / 开始就非常关心社会问题。

내가 중학교 때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⑥*我从小孩子的时候学了英语。

我从小的时候就开始学英语。

나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공부했다.

위의 문장들은 모두 틀린 문장이다. 학생들이 본래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어려서부터….’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문장을 한국어로 바꿀 때, ‘从……起/开始’는 다만 ‘…부터’로 번역되어 ‘开始

50)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2004, 264쪽.

汉语介词‘从’在空间上可以表示动作行为的起点, 如‘外婆从农村搬到城里来了’……在时间上可以表示动作开始的时间, 例如‘我们从昨天开始放暑假了’.

(시작하다)’는 생략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어의 문법규칙과 부합한다 할지라도 중국어의 문법규칙과는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 刘月华(2004)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从’이 시간의 기점을 표시할 때,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我们从5月1号开始该用夏季作息时间。

우리는 5월 1일부터 휴식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她从昨天下午开始就有点不舒服。

그녀는 어제 오후부터 좀 불편해했다.

从30年代起他写了很多重要的论文。51)

30년대부터 그는 아주 중요한 논문을 써왔다.

위의 문장을 관찰하면서 시간의 기점을 표현할 때, 개사 ‘从’은 항상 ‘开始 / 起’와 함께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위의 예문 ①-④문장, 예문 ⑥의 문장은 ‘我从小的时候起 / 开始’로 고쳐야 한다. 그 외 예문 ⑤의 ‘中学生’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므로 ‘从中学起 / 开始’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예문 ⑤의 표현은 한국어의 ‘중학생 때부터’의 표현이므로 이것 역시 모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⑦*这个问题应该先从国家起解决。

这个问题应该先从国家开始解决。

이 문제는 먼저 국가에서부터 해결하기 시작해야 한다.

刘月华(2004)는 ‘从……起’의 중간에는 동빈 단어나 주술 단어가 가능하고, 술어동사는 항상 ‘说’, ‘找’, ‘学’, ‘算’ 등 단음절 동사이며, ‘起’의 앞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였다. 예문 ⑦을 통하여 ‘从……起’ 이 격식 중의 술어동사 ‘解决’이 ‘起’의 뒤에 위치했다. 그리고 ‘解决’ 역시 단음절 동사가 아니어서 ‘从……开始’ 형식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부터’는 동시에 ‘从……起’ 그리고 ‘从……开始’와 대응한다. 이렇게 일대다 대응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쉽게 선택의 오류를 범한다.

51)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2004, 272쪽. 表示时间的起点, 后面要跟表示时间的词语。

표4 순서기점에 대한 중국어 개사 ‘从’과 한국어의 대응

중국어	순서기점	
	从……起	从……开始
한국어	부터	부터
	중국어로 번역 할 때 술어동사는 ‘起’의 전면에 위치 예: ‘学习汉语, 一般从发音学起。’	중국어로 번역 할 때 술어동사는 ‘开始’의 뒤에 위치

⑧*我从在英语音乐剧社团以后, 产生了对音乐剧很感兴趣。

我从参加英语音乐剧社团以后, 对音乐剧产生了兴趣。

내가 영어 뮤지컬 동아리에 참가 후 뮤지컬에 흥미가 생겼다.

중국어는 전형적인 孤立语이며 한국어는 粘着语이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유형이 다르며, 두 서로 다른 유형의 언어는 서로 다른 문법을 사용하여 같은 문법 의미를 표시한다. 한국어에서는 ‘에서 부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조사를 이어 쓰는 현상도 가능하지만, 중국어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개사를 이어 쓰는 현상이 없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자연스럽게 ‘(에서+ 부터)+NL’의 형식이 있지만, 중국어에는 ‘(在+从)+NL’의 형식은 없다. 金昌吉(1996)은 “개사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개사 뒤에 절대로 또 다른 개사구가 올 수 없으니, 두 개 이상의 개사를 이어 쓸 수 없다.”⁵²⁾라고 하였다.

⑨*我从她学习了自己的独立性。

我从她那里学会了自己的独立性。

나는 그녀에게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배웠다.

중국어에서 ‘从’은 내원(来源)을 표시할 수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표현하여 도입할 때, 개사 도입의 대상 뒤에 ‘那里’, ‘那儿’ 등을 첨가해야 중국어 문법규칙에 부합할 때가 많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我从她那里学会了自己的独立性’으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도입 대상 출처나 기점을 표시할 때, ‘N+(으)로부터’ 중의 ‘N’은

52) 金昌吉, 『汉语介词和介词短语』, 南开大学出版社, 1996, 19쪽.

介词的核心功能中的一点就是介词后面绝对不能出现另一个介词短语, 就是说两个以上的介词不能连用。

장소명사를 사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도서관으로부터/에서 책 한권을 빌렸다(我从图书馆借了一本书)’라는 문장에서도 직접 대상을 도입시킬 수도 있다. ‘나는 친구로부터/에게서 이 책을 빌렸다(我从朋友那儿借了这本书)’와 같다. 한국어에서 색인(标引)의 내원은 ‘생명’이 있을 경우, 조사 ‘에게’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학생들은 장소 표시현상을 소홀히 하는데, 비록 중국어의 문법규칙에 부합하지 않지만, 한국어 문법에는 맞다. 중국어에서 ‘这儿 / 那儿’은 처소 표시로 사용하지만, 한국어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모국어의 규칙을 응용한 것이다.

⑩*从这篇文章学了很多事情。

从这篇文章里学到了很多事情。

이 문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⑪*随着现代文明的发展，我们从各种媒体很容易获得多样的信息。

随着现代文明的发展，我们从各种媒体中很容易获得多样的信息。

현대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는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예문 ⑩과 ⑪의 ‘文章’과 ‘媒体’는 장소 명사가 아니며, 장소를 독립적으로 표시할 수 없고, 각각 명사 뒤에 방위사 ‘中’과 ‘上’ 구조 방위를 써야 비로소 장소를 나타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명사+에서’가 ‘내원’ 또는 ‘출처’를 표시할 수 있다. 비록 중국어 ‘中’의 방위사에 대응하는 ‘중’이 있고, ‘上’의 방위사 ‘상’이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문장 중에서 방위사가 생략될 수 있다. ‘从金教授的课中得到了很多知识(김 교수의 강의에서 많은 지식을 얻었다)’, ‘从他的话里知道了这个真相(그의 말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와 같은 문장들이다.

학생들의 작문 관찰을 통해서, 필자는 한국학생들이 ‘从’을 시간 기점으로 표시하여 사용할 때, 자주 ‘开始 / 起’를 빠뜨리고 이외에 상용하는 개사 프레임 구조 ‘从+NP+上/中/下/里’ 중에도 자주 ‘从’을 누락시키며, 동시에 ‘从……起’와 ‘从……开始’의 용법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았다.

C) ‘处’

①*我觉得当军队的厨艺师会对我带来很大的帮助。

我觉得当军队的厨艺师会给我带来很大的帮助。

나는 군대의 요리사가 되는 것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②*其中对我留下了最深刻的印象的地方就是桂林。

其中给我留下了最深刻的印象的地方就是桂林。

그 중 나에게 깊은 인상을 갖게 한 곳은 계림이다.

③*但, 平平凡凡的他, 对我留下了不同寻常的印象。

但, 平平凡凡的他, 给我留下了不同寻常的印象。

그러나 이후 평범했던 그가 나에게 색다른 인상을 주었다.

④*香港对我的印象是……。

香港给我的印象是……。

홍콩이 나에게 준 인상은….

예문 ①-④ 문장에는 ‘给’을 써야 하고, ‘对’를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의 문장들은 각각 ‘给我带来很大的帮助’, ‘其中给我留下了最深刻的印象的地方’, ‘给我留下了不同寻常的印象’ 그리고 ‘香港给我的印象是……’로 고쳐야 한다. 여기서 ①과 ④의 고친 문장에서 나타낸 ‘给’는 동사로 사용된 것이다. ②과 ③의 예문에 나타난 ‘给’는 개사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에게 동사 ‘给’와 개사 ‘对’의 용법에 혼란을 일으킨다. .

중국어에서 ‘帮助’는 동사와 명사 두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给’와 조합하여 사용되며, 개사 ‘对’와 조합하여 사용될 수도 있지만, 조합의 형식이 다르다. 예를 들면, 예문 ①은 ‘会给我带来很大的帮助’로 고칠 수 있고, ‘对我帮助很大’로 고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문 ④는 ‘香港给我的印象是……’로 고칠 수도 있고, ‘我对香港的印象是……’로 고칠 수도 있다. 만약 ‘留下印象’ 이 동작을 기억의 과정으로 삼을 경우, 기억의 주체는 A로 그리고 기억의 대상을 B로 표시하면, 이 두 문장 구조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对’ 문장구조 : A+ 对+ B+ (的)印象

‘给’문장구조 : B+ 给+ A+ (留下)的印象

두 문장 구조의 주체와 대상은 아주 상반됨을 볼 수 있다. 그밖에 만일 ‘留下’ 동사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给’ 문장구조를 사용해야 하고 ‘对’ 문장구조는 쓸 수 없다. 즉, ‘给我留下的印象’이 정확하고, ‘对我留下印象’은 틀린 것이다.

‘对’와 ‘给’의 구별을 위해, 필자는 아래에 白水振과 李鐵根의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작문 클리닉』을 참고하였다.

‘对’는 ‘给’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에게’로 번역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작문에서 ‘对’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서도 ‘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동작의 대상을 표시할 경우에는 ‘对’만 사용할 수 있고 ‘给’은 사용할 수 없다. 아래 문장에 사용된 ‘对’는 모두 ‘给’으로 바꿀 수 없다.

他对我笑了。

그는 나를 보고 웃었다.

决不对困难低头。

어려움 앞에 고개를 숙일 수는 없다.

他都对你说了些什么?

그는 너에게 뭘 말했었니?

他为什么对你大声喊叫?

그는 왜 너한테 소리지르니?

일반적으로 ‘对’를 사용하여 끌어들이는 대상이 동작의 수혜자인 문장의 일부분만이 ‘给’로 바꿀 수 있다.

学生们都给老师行礼了。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다.

他正在给小朋友讲故事。

그는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金哲又给我使了个眼色。

김철은 또 나에게 눈짓을 했다.

‘老师’, ‘小朋友’, ‘我’는 각각 ‘行礼’, ‘讲故事’, ‘使眼色’ 동작 행위의 수혜자다. 만약에 ‘对’를 사용 하여 끌어들이는 동작 대상이 동작의 수혜자인지를 알 수 없다면

‘给’로 대체할 수 없다.

①他对你说了些什么?

他给你说了些什么? (X)

그는 너에게 뭘 말했었니?

②他又对我说了一遍。

他又给我说了一遍。(O)

그는 한 번 더 나에게 말했다.

위 ①의 동작행위 ‘说什么’가 ‘你’에게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문장에서 ‘对’는 단순히 동작의 대상만 나타내기 때문에 ‘给’으로 대신할 수 없다. 위 ②에서 ‘또 한 번 나에게 말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하므로 ‘我’는 수혜자가 된다. 그래서 ‘对’는 ‘给’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⑤*那时候应该给你们写信但我没写信对你们对不起。

那时候应该给你们写信但我没写信对不起你们。

그때 당신들에게 편지를 써야 했는데 쓰지 못해 미안했다.

⑥*对这样的情况我对父母真对不起。

在这样的情况下我真对不起父母。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부모님께 죄송했다.

⑦*我总觉得对爸爸很对不起。

我总觉得对不起爸爸。

나는 늘 아버지에게 죄송하다.

⑧*我也对他们很感谢。

我也很感谢他们。

나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⑨*所以对父母非常感谢。

所以非常感谢父母。

그래서 부모님께 아주 감사드린다.

예문 ⑤-⑦은 모두 ‘对不起’가 포함된 문장인데 개사 ‘对’가 잘못 첨가되었다. 각각

‘对不起你们’, ‘真对不起父母’, ‘很对不起爸爸’로 고쳐져야 한다. 예문 ⑧과 ⑨도 개사 ‘对’가 잘못 덧붙여졌다. 각각 ‘很感谢他们’, ‘非常感谢父母’로 고쳐져야 한다.

이상의 각 문장에서 개사 ‘对’를 잘못 덧붙이는 오류는 주로 소극적 모국어 전이로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어에서 ‘对不起’, ‘感谢’는 모두 직접 명사 혹은 명사구와 결합하여 문법 기능상 타동사에 적당하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미안하다’(对不起), ‘감사하다’(感谢)가 문법 기능상 자동사에 적당하며, 직접 표시하는 사람의 명사와 결합할 수 없고, 부사격조사 ‘께’ 또는 ‘에게’로 대상을 이끌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我真对不起我的父母。

나는 부모님께 정말 미안하다.

我非常感谢老师。

나는 선생님께 매우 감사하다.

D) ‘给’

개사 ‘给’은 중국어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허사이며, 의미항(义项)이 풍부하고 기능이 다양하다. 필자가 알게 된 것은 한국학생들이 개사를 습득할 때, ‘给’의 오류 빈도수가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 개사를 써야할 곳에 오히려 ‘给’을 사용한 것으로, 본인의 연구를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 객관적으로 ‘给’의 오류라고 총괄하려 한다. 필자는 동시에 북경어언대학 HSK 동태작문어료고(北京语言大学HSK动态作文语料库)의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동태작문어료고(动态作文语料库)’는 모국어가 중국어가 아닌 외국인 참가 고등한어수평고시(高等汉语水平考试) 작문시험 답안 语料库로, 1992-2005년 외국 수험생 작문답안을 수집했는데, 총 10,740편, 약 400만자이다. 이들 语料库 중, 한국학생들이 사용한 개사 ‘给’의 어료는 모두 2,430쪽이며, 그 중 개사 ‘给’의 오류 어료는 407쪽으로 나타났다. 407쪽 오류 어료 중에서 개사 ‘给’와 기타 개사 오용의 예문은 모두 236개로, 총 오류 중 58%이었다. ‘给’을 잘못 붙인 것이 91개로 22%이며, 누락 시킨 것이 48개로 12%를 차지하였다. ‘给’의 위치 오류로 32개이며 8%를 차지했다. 특히 중시하여 볼 것은 ‘给’과 관련된 개사의 오용 유형에 60%의 오류가 집중되었다. 이것이 설명하는 바는 한국인 학습자가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줄곧 개

사 ‘给’ 및 이와 비슷한 상관계사의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이다.

(a) ‘给’와 기타 개사 오류의 상황

‘对’를 ‘给’로 오용

①*因为绿色食品给人们的身体有好处。

因为绿色食品对人们的身体有好处。

왜냐하면 녹색식품이 사람들의 신체에 도움이 있기 때문이다.

②*虽然人们知道吸烟给身体有害，但不断地吸烟。

虽然人们知道吸烟对身体有害，但不断地吸烟。

설사 사람들은 흡연이 신체에 유해한 줄 알지만 금연하지 않는다.

‘让’ 또는 ‘使’를 ‘给’로 오용

③*我不会给你们失望的。

我不会让你们失望的。

나는 너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④*我认为流行歌曲不但给人们高兴而且是一个很好的休闲爱好。

我认为流行歌曲不但让人们高兴而且是一个很好的休闲爱好。

나는 유행곡이 사람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취미활동이라고 생각한다.

⑤*虽然社会的发展给人类的生活方便了很多……

虽然社会的发展让人类的生活方便了很多……

비록 사회의 발전이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했지만…

‘向’을 ‘给’로 오용

⑥*为了解决这种问题，最主要方法就是先进的国家要主动地给贫穷国家伸出援助之手。

为了解决这种问题，最主要方法就是先进的国家要主动地向贫穷国家伸出援助之手。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주요한 방법은 곧 선진국이 자발적으로

빈곤국가를 향해 원조의 손을 펴는 것이다.

‘跟’을 ‘给’로 오용

⑦*已经找到工作的朋友们常给我说社会生活太难，其中人际关系最难。

已经找到工作的朋友们常跟我说社会生活太难，其中人际关系最难。

이미 직장을 찾은 친구들은 나에게 항상 사회생활이 어렵고 그 중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⑧*如果父母工作回来以后，给子女多说一点话，关心子女的作业等等……

如果父母工作回来以后，跟子女多说一点话，关心子女的作业等等……

만일 부모님이 일하고 돌아온 후, 자녀들과 많이 대화하고 자녀들의 숙제에 관심을 두는 등등…

(b) 개사 ‘给’를 잘못 덧붙임

①*我给老师问了问题。

我问了老师问题。

나는 선생님에게 질문했다.

②*朋友给我告诉了那件事。

朋友告诉了我那件事。

친구가 나에게 그 사건을 알려줬다.

③*老师给我们教汉语。

老师教我们汉语。

선생님이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치신다.

위의 세 문장은 ‘给’을 잘못 붙인 것으로, ‘给’을 떼어 버리고 각각 ‘我问了老师问题’, ‘朋友告诉了我那件事’, ‘老师教我们汉语’로 고쳐야 한다. 문장 중 ‘问’, ‘告诉’, ‘教’는 뒤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직접 결합해야 한다. 吕叔湘과 朱德熙 등 중국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동사가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두 목적어 중 하나는 사람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사물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중국어에서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通知’, ‘告

诉’, ‘答应’, ‘回答’, ‘提醒’, ‘吩咐’, ‘嘱咐’가 있다. “담화동사 등의 담화대상은 중국어에서 간접목적어의 형식으로 동사 뒤 그리고 직접목적어 앞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给’을 사용하여 담화대상을 동사 앞으로 끌어내 부사어로 삼을 수는 없다.”⁵³⁾

상술한 어휘는 한국어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부사격조사 ‘에게’를 부가한다. 예문 ①과 ②를 한국어로 각각 번역하면 ‘나는 선생님에게 질문했어요.’ ‘친구가 나에게 그 사건을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치세요.’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장을 만들 때, 개사 ‘给’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잘못 부가하는 오류를 범했다.

(c) 개사 ‘给’의 위치오류

상황어로서의 ‘给’자구(字短语)를 술어 뒤에 잘못 놓은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문장이다.

①*现在我介绍给大家我的城市。

现在我给大家介绍我的城市。

지금 나는 모두에게 우리 도시를 소개한다.

②*我说说我的想法给你。

我给你说说我的想法。

나는 너에게 나의 생각을 말한다.

보어로서의 ‘给’자구를 동사술어 앞에 잘못 놓은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문장이다.

③*今天上午我找到了老师给她交作业。

今天上午我找到了老师交给她作业。

오늘 오전에 선생님을 찾아뵙고 숙제를 제출했다.

(d) 개사 ‘给’의 누락

53) 白水振·李鐵根,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작문 클리닉』, 서울동양북스, 2012, 129쪽.

①*经济发展和科学发展, []社会带来了很多问题。

经济发展和科学发展, 给社会带来了很多问题。

경제발전과 과학의 발전은 사회에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②*但我更感谢的不是你们把我要的东西都提供[]我。

但我更感谢的不是你们把我要的东西都提供给我。

그러나 내가 더욱 고마운 것은 너희가 내가 요구한 물건을 모두 나에게 제공했기 때문은 아니다.

③*为了[]挨饿的人们提供食物, 要有很多食物, 所以要用农药和化肥。

为了给挨饿的人们提供食物, 要有很多食物, 所以要用农药和化肥。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야 했다.

어휘를 잘못 사용한 오류 상황은 주로 ‘对’, ‘让’, ‘使’, ‘向’, ‘跟’ 등 몇 개의 개사를 ‘给’로 표현하는데 집중되었다. 그중에 ‘对’를 ‘给’로 오용한 비율이 가장 높다. 수많은 개사 중에서 한국학생들은 ‘给’에 대한 ‘对’, ‘让’ 그리고 ‘使’의 구분을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똑바로 중국어 학습의 전 과정을 관통하여 이것은 중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중점이다.

한국학생들이 사용하는 중국어 개사 ‘给’의 오류 원인을 분석하려면, 중국어 개사가 한국어 조사와 구조와 의미 방면이 다르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는 친구에게 줄 선물을 샀다.

直译: 我(主格助词) 朋友(与格助词) 礼物(宾格助词) 买(完成时态词尾)

意译: 我给朋友买了礼物。

그는 중국문화에 아주 흥미를 가진다.

直译: 他(主格助词) 中国文化(与格助词) 很 兴趣(宾格助词) 拥有

意译: 他对中国文化很感兴趣。

나는 학교에서 일한다.

直译: 我(主格助词) 学校(位格助词) 工作

意译: 我在学校工作。

위에 대역한 경우를 보면, 문장 중의 한국어 격조사의 위치는 체언(体词) 뒤에 위치하고, 중국어 개사와 완전히 다르다. 즉, 한국어의 개사 구조는 'NP+ 格助词'이며, 중국어는 '介词+NP'이다. 그밖에 韩容洙(1998)는 항상 술어 앞에 놓이는 개사 구조를 언급했는데, 만약 일정한 조건이 되면 '从……', '对……'처럼 주어 앞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학생들에게는 이 일련의 개사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형태의 언어이며, 중국어와 비교하여 상황어의 위치가 아주 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 문장을 실례 보자.

金先生从中国来。→*从中国金先生来。→*从中国金先生来汉城。

김 선생은 중국에서 온다. 중국에서 김 선생이 온다. 중국에서 김 선생이 서울에 온다.

小王对她笑了笑。→*对她小王笑了笑。

왕 군은 그녀를 보고 웃었다. 그녀를 보고 왕 군은 웃었다.⁵⁴⁾

그래서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는 한국학생들의 개사 '給'의 위치오류로 야기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덧붙임 현상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문법의 특징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어는 교착어이고, 조사와 어미가 풍부하며, 문장 중 단어의 관계는 다양한 어미로 표시된다. 모국어 사유의 영향을 받아 한국학생들은 시간, 지점, 대상 등 의미의 어휘를 사용할 때, 종종 하나의 개사를 더 붙인다. 앞에 열거한 예문은 비록 중국어 문법규칙으로는 부합되지 않지만, 오히려 한국어 문법규칙에는 부합된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給'를 잘못 덧붙인 예문이다.

누락시키는 현상에 대해서 한국학생들은 중국어 개사의 문장 중의 위치가 한국어 격조사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모국어 사유의 영향으로 떨쳐버리지를 못하여 사용시에 종종 모국어의 영향을 받고 먼저 체언 성질의 요소를 말한 후에 중국어 개사가 한국어 조사처럼 체언성질의 요소 뒤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개사를 사용하지

54) 韩容洙, 「对外汉语教学中的介词教学」, 『汉语学习』, 第12期, 1998, 51쪽.

韩容洙提到经常放在谓语前的介词结构, 若具有一定的条件也可以放在主语前, 如'从……', '对……'等等. 要掌握这一组介词的用法对韩国学生来说是相当困难的, 因为韩语是有形态的语言, 跟汉语比状语的位置要灵活得多.

않으므로 누락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끝으로 개사 ‘給’과 ‘對’, ‘向’, ‘跟’가 오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나는 그에게 말한다. 我跟他说。

나는 그에게 친절하다. 我对他很热情。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한다. 我给他打电话。

나는 그에게 사과를 한다. 我向他道歉。

이상의 예문에서 중국어 밑줄 친 부분과 한국어 밑줄 친 부분은 서로 상응된다. 중국어의 ‘跟’, ‘對’, ‘向’, ‘給’이 한국어의 ‘에게’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 ‘에게’와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사와의 비교

한국학생들이 사용하는 중국어 개사 ‘給’과 ‘跟’, ‘對’, ‘向’의 오용 원인을 분석하려면, 한국어의 조사 ‘에게’가 어떻게 위에 상술한 중국어 개사와 대응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에게’

韦旭升·许振东(1995)에 따르면 ‘에게’는 한국어에서 여격조사이며, 행동을 끌어들이는 대상에 작용하는 기능이 있다. 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객체를 표시하거나 동작이나 상태의 대상을 표시한다. ‘에게’는 비활동체 명사 뒤에 ‘에’로 쓰이며, 활동체 명사 뒤에는 ‘에게’를 쓴다. 경어 중에는 ‘께’를 쓰고, 대화중에는 항상 ‘한테’, ‘더러’ 등의 형식으로 사용한다.⁵⁵⁾

비록 한국어의 여격조사 ‘에게’가 중국어 개사 ‘給’과 마찬가지로 모두 동작의 대상에게 쓰일 수 있지만, ‘에게’의 어의와 용법을 ‘給’보다 한층 폭넓게 비교하려면, 구체적인 맥락(语境)에서 서로 다른 중국어 개사와 상응시켜야 한다.

55) 韦旭升·许振东, 『韩国语实用语法』,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1995, 256-261쪽.

韦旭升·许振东(1995)指出 ‘에게’ 在韩语中是与格助词, 有引进行动作用的对象的功能, 即表示行动涉及的间接客体或表示动作、状态的对象。‘에게’在非活动体名词后面写做‘에’, 在活动体名词后面写做‘에게’, 用在敬语中写做‘께’, 口语中也常用‘한테’、‘더러’等形式。

(a) ‘对’에 해당되는 ‘에게’

한국어에서 ‘에게’는 대우하는 대상을 표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장 중 항상 ‘친절하다’나 ‘따뜻하다’ 등의 어휘와 동반하여 대우하는 태도를 설명한다. 이로 보건 대 이때의 ‘에게’는 중국어 개사의 ‘对’에 해당한다.

父母对客人们很热情。

부모님은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한다.

(b) ‘向1’에 해당하는 ‘에게’

‘에게’가 ‘대면하는’ 대상의 동작을 이끈다. 중국어와 유사하여 이러한 용법의 한국어 동사는 ‘가다, 달리다, 날다’ 등 동작대상이 사람이나 사물 등 구체적인 사물이며 또는 ‘미소 짓다’, ‘고개를 끄떡이다’, ‘빌리다’, ‘감사를 표시하다’, ‘유감을 나타내다’, ‘경례하다’ 등 동작을 ‘대면하는’ 대상의 동작을 이끈다. 이러한 때 ‘에게’는 ‘向1’에 해당한다.

他向我走来。

그 사람은 나에게 걸어온다.

我们向老师表示衷心的感谢。

우리는 선생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표한다.

(c) ‘跟’, ‘向2’에 해당하는 ‘에게’

何薇(2006)에 따르면 ‘에게’가 어떤 때는 동작이 언급하는 사물의 내원(来源)을 이끌 수 있는데, 즉 ‘从……那里得到’와 같은 것이다.⁵⁶⁾ 중국어 개사 ‘跟’과 ‘向’도 같은 뜻이 있어 양자가 서로 상호 대응된다. 예를 들면,

我每天跟 / 向韩国朋友学韩语。

나는 매일 한국친구에게 한국어를 배운다.

56) 何薇, 「对象类介词向的分析与教学」, 『湖北社会科学』, 第12期, 2006, 133쪽.

(d) ‘让’, ‘使’, ‘叫’에 해당하는 ‘에게’

누가 너에게 가라고 했니?(谁让你去的?)

위의 예로 보면, ‘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어의 ‘让’(또는 다른 사역동사)에 대응된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한국어 여격조사 ‘에게’ 등과 중국어 개사의 대응관계는 일대 다(多)의 관계이며, 아래의 도표와 같다.

표5 ‘에게’의 어의 기능

	어의 기능
에게	1.동작 또는 동작이 언급하는 물체의 접수 대상을 이끈다.
	2.동작주(施事)를 이끈다.
	3.대우(给予) 대상을 이끈다.
	4.동작 지향의 대상을 이끈다.
	5.동작이 언급하는 사물의 내원을 이끈다.
	6.동작을 지시하는 대상을 이끈다.

위의 표에 의하면, 중국어 개사 ‘给’ 및 기타 개사 ‘对’, ‘跟’, 사역동사 ‘让’, ‘使’ 등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모두 격조사 ‘에게’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이것은 목표어 문법과 모국어의 다대일(多对一) 현상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모국어의 사유 중 이런 개사가 진행되는 명확한 구분 개념이 없고, 개사 ‘给’의 어의 특징이 ‘에게’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국학생들이 ‘给’과 ‘에게’를 완전히 대응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사를 사용할 때에 ‘给’와 ‘跟’, ‘对’, ‘向’ 사역동사 ‘让’, ‘使’ 등을 구별해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시공유형의 개사와 대상유형의 개사 누락오류는 주로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로 만들어진다. 즉 중국어 개사와 한국어 부사격 조사는 위치상 차이가 있고,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이 생략해서는 안 되는 개사를 생략해 버린다. 그밖에 한중 두 언어의 어떤 동사의 성질이 다른데, 개사가 결합되는 고정격식에서 개사는 보통 생략할 수 없고, 학생들이 중국어의 이런 문법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여 목표어 규칙 이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개사 누락오류의 중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 개사와 한국어 부사격조사 사이의 ‘다대일(多对一)’의 대응관계는 오류를 조성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외에 한중 두 언어의 어떤 동사는 성격이 다른데, 즉 중국어에서 타동사가 한국어에

서 자동사이며 덧붙이는 오류의 주요 원인이다.

①*我们应该有责任意识关于保护环境。

关于保护环境，我们应该有责任意识。

환경보호에 대해 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②*现在我平时也用汉语说为了提高我的会话实力。

为了提高我的会话实力，现在我平时也用汉语说。

나의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나는 평소에도 중국어로 말한다.

이상의 예문은 모두 일반적인 서술이며, 강조의 의미가 없고, 특수한 수사상의 필요도 없다. 예문 ① 개사 ‘关于’ 구성의 개사구가 화제(话题)에 속하여서 다만 문장 첫머리에 수식어로 놓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가운데에 놓일 수 있어서 예문 ①은 한국어 ‘...에 관하여’의 영향을 받아 문장의 중간에 놓여 소극적인 전이를 생기게 하였다. 예문 ② 개사구 ‘为了……’는 목적을 나타내는데, 문장 중간에 상황어로 놓일 수 있고, 문장 첫머리에 수식어로 놓일 수 있으나 보통 문미에 놓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역시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소극적 전이를 생성했다. 예문 ‘저’는 동작 대상의 도입이다.

(2) 부사⁵⁷⁾

비록 현대 중국어 부사의 수량이 결코 많지 않지만, 부사의 기능과 용법은 오히려 아주 많다. 상용하는 부사는 사용 빈도수가 높지 않지만 용법이 풍부하다. 张谊生(2000)이 지적하는 것처럼 부사 내부의 각 요소가 조합 방식, 문법 의미, 어의 지향, 화용(语用) 특징, 편장(篇章) 특징 등 각 방면에서 모두 현저한 차이가 있다.⁵⁸⁾ 그래서 부사의 연구는 곧바로 대외 중국어 수업의 중점과 난점이다. 학생들의 작문오류와 필

57) 关于副词是实词还是虚词目前在学术界还是一个有争议的问题，笔者倾向于把副词划分到虚词类，因为虚词意义不像名词、动词、形容词那样实在，意义比较虚化，虽然能作句子成分，但从来不作基本成分，多数只能作状语，个别可以作补语。

58) 张谊生，《现代汉语副词研究》，学林出版社，2000，3쪽.

张谊生(2000)指出副词内部各成员在组配方式、语法意义、语义指向、语用特点、篇章特征等各个方面都存在着显著的差异。

자의 평소 수업 관찰에 근거하면, 중국어 중·고급 수준에 이른 한국학생들이 부사의 사용과 학습과정에 시간부사와 빈도부사 방면에 오류생성이 비교적 많다. 이 절에서 필자는 주로 오류율이 비교적 높은 ‘也’, ‘还’, ‘再’의 부사를 분석하려 한다.

A) ‘也’

①*我们家每星期天去教会。上个星期天也我们去了教会。

我们家每个星期天都去教会。上个星期天我们也去了教会。

우리 집은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간다. 지난 일요일에도 우리는 교회에 갔다.

②*现在也我喜欢跳舞。

现在我也喜欢跳舞。

현재 나 역시 춤추기를 좋아한다.

③*因为我喜欢音乐，所以我假日的时候，跟朋友们一起去歌厅唱歌，也最近我参加了唱中国歌比赛。

因为我喜欢音乐，所以我假日的时候，跟朋友们一起去歌厅唱歌，最近我也参加了唱中国歌比赛。

나는 음악을 좋아하여 휴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한다. 최근 나도 중국노래대회에 참가했다.

중국어에서 일부 어기를 나타내는 부사는 주어 앞에 두어 어투를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他难道不知道那件事吗? →难道他不知道那件事吗?

그가 설마 그 일을 모를까? 설마 그가 그 일을 모를까?

她也许忘了。 →也许她忘了。

그녀는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녀는 잊어버렸을 것이다.

他的的确结婚了。 →的确他结婚了。

그는 분명 결혼했다. 분명 그는 결혼했다.

그렇지만 ‘也’, ‘再’, ‘又’, ‘都’ 등의 부사는 보통 주어 앞에 놓지 않고, 주어와 술어

사이에 둔다. 한국어에서 중국어의 ‘也’의 의미가 같은 조사는 ‘-도’가 있다. 그것의 문법 위치는 비교적 융통성이 있어서 주어 뒤에 놓을 수도 있고, 부사 뒤에 두어 동종의 의미를 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金老师也去了北京。

김 선생도 북경에 갔다.

妈妈也学汉语。

어머니가 중국어도 배운다.

孩子们也在院子里玩儿。

아이가 마당에서도 논다.

학습자들이 한국어 조사 ‘-도’의 문법 분포 영향을 받아서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다. 예문 ①의 ‘上个星期天也我们去了教会’의 문장은 한국어 어순에 따라 배열된 문장이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전번 일요일도 우리는 교회에 갔었다’이다. ‘也’를 부사어 ‘전번 일요일’ 뒤의 주어 ‘우리’ 앞에 두었다. 중국어에서 ‘也’의 위치는 주어와 술어 사이이며, 만일 문장 뒤에 놓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오류문장은 ‘上个星期天我们也去了教会’, ‘现在我也喜欢跳舞’, ‘最近我也参加了唱中国歌比赛’로 고쳐야 한다.

B) ‘还’

①*在韩国还家庭主妇很多。

在韩国家庭主妇还很多。

한국에는 가정주부가 여전히 많다.

이런 종류의 오류는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와 관련이 있다. 이 예문과 서로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은 ‘한국에는 아직도 가정주부들이 많다’이다. 학생들은 문장을 만들 때, 한국어 문장구조를 답습한다. 또 하나의 원인은 ‘还’의 앞에 그 외 체언성질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주어가 종종 명사나 대명사 등 체언 성질의 요소로 충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체언 요소의 어휘를 보고 주어라고 생각하여

습관적으로 ‘还’을 제1체언 요소의 어휘 뒤에 놓는다. 이 예문 중 ‘韩国’은 문두 상황이 ‘在韩国’의 결합요소인데, 학생들은 첫째 명사는 항상 주어라고 생각하여 ‘还’을 그것 뒤에 놓은 것이다.

②*我比你还多了解那件事。

那件事我了解得比你还多。 / 那件事我比你了解得还多。

그 일은 내가 너보다 더 잘 이해한다.

이 예문의 오류는 ‘还+X’ 요소가 문장 중의 위치가 틀린 것으로, ‘还+X’는 보어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이미 기본 문형을 파악했다. ‘我比你还了解那件事’ 이 예문과 서로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은 다음과 같다.

내가 너 보다 그 일 을 더 잘 알아.

我(主格词尾) 你 比 那 事(宾格词尾) 还 多了解。

그러므로 학생들은 한국어의 순서에 따라서 ‘还’의 뒤에 ‘多’를 쉽게 덧붙였다. 더구나 한국어 중 보어가 잘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학생들이 중국어를 공부할 때 모국어의 어간 간섭으로 인해 소극적 전이를 더 쉽게 생성시켜 보어를 상황어 위치에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

C) ‘再’와 ‘又’

①*我再等了很长时间，可是她还是没来。

我又等了很长时间，可是她还是没来。

나는 다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녀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②*再过了一段时间。

又过了一段时间。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③*他们的关系再好了。

他们的关系又好了。

그들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

④*以后在我们的帮助下他再开始上学了。

以后在我们的帮助下他又开始上学了。

이후 우리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학교에 다녔다.

⑤*最后一次, 又相信我吧。

再相信我最后一次吧。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를 믿어 봐요.

한국어에서 ‘또’, ‘다시’, ‘더’ 등은 동작의 반복 또는 지속을 나타내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동작 실현여부에 관계없다.

他今天又来了。

그는 오늘 또 왔다.

明天再 / 还来。

내일 또 올게.

그러나 중국어에서 ‘再’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동작의 반복 또는 지속을 표시하고 이미 발생한 동작이나 지속은 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又’는 이미 발생하거나 실현된 동작의 반복 또는 지속을 나타내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동작의 반복이나 지속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문 ①-④중에서는 ‘又’만 쓸 수 있고, 예문 ⑤에서는 ‘再’로 고쳐야 하고, ‘再相信我最后一次吧’로 고쳐야 한다. 위의 오류는 모국어의 영향도 받고 목표어 지식이 부족한 영향도 받은 것이다.

D) ‘都’

부사 ‘都’의 연구는 줄곧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都’의 의향에 관하여 毛向櫻(2013)은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1) 범위부사(范围副词): 총괄적으로 표시 2) 어투부사(语气副词): ‘甚至’에 해당 3) 시간부사(时间副词): ‘已经’에 해당된다.⁵⁹⁾ 이 세

59) 毛向櫻, 「对外汉语教学中副词‘都’的用法」, 『淮北师范大学学报』, 第12期, 2013, 159쪽.

가지 용법 중에서 ‘都’는 가장 주요한 용법으로 범위를 표시하고, 그것의 앞에 언급하는 인물이나 사물을 총괄하는데 사용한다. 학생들의 작문자료를 수집하여 보면, 오류가 첫째의 용법에 집중되고 있는데, 주로 범위부사로의 총괄적인 용법과 관련된 것이다. 그중에 ‘都’의 누락오류는 가장 많이 나타나며, 주로 ‘都’가 있어야 할 자리에 ‘都’를 쓰지 않고 있다.

①*每次想到这一点, 我[]希望快点儿毕业。

每次想到这一点, 我都希望快点儿毕业。

매번 이 점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빨리 졸업하기를 소망한다.

②*我们家每星期天[]去教会。上个星期天也我们去了教会。

我们家每星期天都去教会。上个星期天也我们去了教会。

우리 집은 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지난 일요일에도 우리는 교회에 갔다.

③*希望你们每天看我时[]开心。

希望你们每天看到我时都开心。

너희들이 매일 나를 볼 때, 모두 즐겁기를 바란다.

④*环境污染是目前世界每个国家[]非常关注的重要问题。

环境污染是目前世界每个国家都非常关注的重要问题。

환경오염은 현재 세계 각국이 매우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⑤*最近天气很好, 到处[]开满花了。

最近天气很好, 到处都开满花了。

최근 날씨가 좋아서 도처에 꽃이 만개했다.

⑥*最近各个地方[]不让吸烟。

最近各个地方都不让吸烟。

최근에는 모든 지역이 다 금연지역이다.

⑦*爸爸经常说:“无论什么情况[]不要流泪。”

爸爸经常说:“无论什么情况都不要流泪。”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毛向樱提出‘都’的义项可分三类: a. 范围副词, 表总括; b. 语气副词, 相当于‘甚至’; c. 时间副词, 相当于‘已经’.

⑧*我对什么事[]很有自信。

我对什么事都很有自信。

나는 어떤 일에도 자신이 있다.

⑨*相信自己什么事情也自己[]能做。

相信自己什么事情都能做到。

자신을 믿으면 어떤 일이든지 모두 해낼 수 있다.

이제 중국어에서 언제 ‘都’를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아래 ‘都’의 용법은 주로 刘月华(2004)의 『实用现代汉语语法』를 참고하였다.

a. 문장에 ‘每’, ‘各’, ‘各个’, ‘处处’, ‘个个’ 등의 단어가 나오면, 술어는 보통 ‘都’와 호응한다.

b. 문장 중 의문대명사 ‘谁’, ‘什么’, ‘哪儿’, ‘哪里’, ‘怎么’ 등이 나오면, 술어는 ‘都’ 나 ‘也’로 호응해야 한다. 이때 ‘都’는 없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의문대명사의 어떤 지시 용법은 보편적인 의미이지 단수가 아님을 표시한다.

c. 문장 중 ‘无论’, ‘不论’, ‘不管’ 등의 접속사가 사용된 종속절이 있을 경우, 흔한 격식은 ‘无论(不论、不管)……都 / 也’이다.”⁶⁰⁾

총괄적 의미가 있는 한국어 조사 ‘-마다’와 중국어의 ‘每 / 各 / 处处……都’는 의미를 나타낸다.

每天都看书。

날마다 책을 읽는다.

每个人性格都不一样。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다.

家家都喜笑颜开。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었다.

今年各村都是丰年。

60)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2004, 215쪽.

올해는 고을마다 풍년이다.

황옥화(2008)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어 조사 ‘-나’, ‘-든지’도 총괄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중국어의 ‘谁 / 什么 / 哪儿 / 哪里 / 怎么……都’ 및 ‘无论 / 任凭 / 哪怕……都’와 비슷한 이는 의미이다

谁都能做。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什么都吃。
무엇이나 다 먹는다.
哪儿都去过。
어느 곳이나 다 가보았다.”⁶¹⁾

황옥화(2008)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조사를 사용하여 총괄적 의미를 표시할 수 있어서 보통 ‘마다……다/나……다/든지……다’를 이러한 부사구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⁶²⁾ 그래서 한국학생들이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자주 ‘都’를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위 부사 ‘都’의 누락오류 중, 예문 ①-④는 ‘每(次, 星期天, 天, 个)……都’의 문장 격식 중에 나타난 오류이다. 그래서 예문 ①-④ 모두 부사 ‘都’를 첨가시켜야 한다. 예문 ⑤ ‘到处’ 뒤에 ‘都’를 써야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부합되는 중국인의 대화습관이다. 예문 ⑥은 ‘各个……都’ 문장 격식 중 나타난 오류이며, 역시 부사 ‘都’를 첨가해야 한다. 예문 ⑦의 접속사 ‘无论’의 뒤에 ‘都’를 사용하여 총괄적인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 예문 ⑧-⑨는 어떤 지시를 나타내는 의문대명사 ‘什么’ 뒤에 ‘都’를 사용하여 총괄적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

E) 기타

학생들의 작문을 관찰하며 필자는 ‘特別’가 오류 빈도수가 높은 단어임을 알게 되었다. 작문 자료 중 찾아내게 된 오류는 다음과 같다.

61) 황옥화,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오류분석』, 한국학술정보(주), 2008, 67쪽.

62) 황옥화,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오류분석』, 한국학술정보(주), 2008, 68쪽.

①*特别我住在的济州有很多中国游客, 所以我可以经历中国人对我的汉语能力很有帮助。

特别是我生活的济州有很多中国游客, 所以我可以接触中国人, 这对我的汉语能力很有帮助。

특히 내가 사는 제주에는 많은 중국 여행객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있고, 이것은 나의 중국어 능력에 도움이 된다.

②*特别我做的意大利面和大酱汤很好吃。

特别是我做的意大利面和大酱汤很好吃。

특히 내가 만든 스파게티와 된장찌개는 아주 맛있다.

③*我听不懂上海话, 而且上海的物价比较贵, 但上海的风景很美丽, 特别上海的夜景非常好看。

我听不懂上海话, 而且上海的物价比较贵, 但上海的风景很美丽, 特别是上海的夜景非常好看。

나는 상해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게다가 상해의 물가는 좀 비싸기는 하지만, 상해의 풍경은 아름답고, 특히 상해의 야경은 아주 아름답다.

위에 나타난 ‘特别’의 오류는 모두 부사를 상황어로 충당한 것이다. 현대 중국어의 ‘特别’는 형용사와 부사 등으로 쓰이며, ‘那件衣服很特别’, ‘那天妈妈特别高兴’처럼 사용한다. 비록 ‘特别’가 문장 중 어떤 요소로 충당되든지 그것의 형식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의 ‘특별’은 형용사로 사용할 경우, 그것의 뒤에 어미 ‘~하다’를 붙여야 하며, ‘그는 남보다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의 ‘특별’이 부사로 사용될 경우 부사형 어미 ‘~히’를 붙여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특별히 주문한 것이다.’처럼 쓸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부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의 앞에서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 앞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가 있다.⁶³⁾ 위 ①번과 ②번 문장은 학생이 중국어 작문을 하면서 한국의 문장부사를 생각하며 만든 오류로 판단된다. 중국어의 ‘特别’가 상황어로 충당될 때에 술어의 앞에서 수식작용을 하여 ‘韩国人特别不喜欢香菜’처럼 쓸 수 있다.

63)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5, 458쪽.

④*先我介绍的爱好是看电影。

我先要介绍的爱好是看电影。

먼저 내가 소개할 취미는 영화를 보는 것이다.

이것은 부사 ‘先’의 위치오류에 속한다. 중국어에서 ‘先’은 주어 ‘我’의 뒤에 놓아야 하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주어 앞에 놓았다. 한국어의 문법규칙에는 맞지만 이것은 모국어의 어순 영향을 받은 오류이다.

(3) 조사

중국어의 조사 ‘了’의 습득은 모든 비중국어 모국어 학습자에게 어렵다. 한국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며,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학생들이 ‘了’를 습득할 때 오류는 주로 모국어의 간섭에서 비롯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어 ‘了’의 일부 의미와 용법이 한국어 어미 ‘-었’과 많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학생들은 자주 한국어의 시제관념을 가지고 중국어의 ‘了’를 다루며, ‘了’를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안 써야할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了’의 오류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것에 대해 분석을 했다. 韩在均(2003)은 한중번역 수업 중 나타난 오류문장을 근거로 하여 오류 유형 분석을 하고, 한국어 ‘-었’과 중국어 ‘了’는 과거의 시간을 표시할 때 비슷한 점이 있지만 기능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중국어의 ‘了’는 주로 동작 또는 사건의 실현여부를 표시하는데, 이 때문에 ‘了’를 ‘体’의 의미로 표시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었’은 주로 동작과 말하는 시간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며, 이 때문에 ‘-었’은 ‘时’의 의미를 구현한다.

王光全(2006)에 따르면 중국어의 ‘了’에 관한 연구는 통상 ‘了1’과 ‘了2’로 나누고, ‘了1’은 목적어 보어 앞에 쓰이며 보통 문장 중에 위치하여 동작의 완성 실현을 표시한다. ‘了2’는 보통 목적어 혹은 보어의 뒤 문장 끝에 위치하며,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표시하며,⁶⁴⁾ 동작의 완성과 실현을 표시한다. ‘了1’은 한국어 과거 조사 ‘-었’과 비

64) 王光全·柳英绿, 「同命题“了”字句」, 『汉语学习』, 第3期, 2006, 25쪽.

王光全·柳英绿(2006)指出汉语中的‘了’学界通常分为‘了1’和‘了2’, ‘了1’可用于宾语或补语之前, 一般位于句中。表示动作的完成与实现。‘了2’一般用于宾语或补语之后的句末位置, 表示新情况的出现。

슷한 점이 있는데, 한국유학생들은 ‘了’와 ‘-었’ 단어의 문법기능이 같다고 오인하여 대화나 작문을 할 때, 한국어의 ‘-었’이 있으면 중국어에서 ‘了’를 사용하여 오류를 만든다.

A) 한국어 반복 습관체 ‘-었’에 대응하는 ‘了’의 전이

①*没有什么可做的时候,我常常自己弹了钢琴。

没有什么可做的时候,我常常自己弹钢琴。

무슨 할 일이 없을 때, 나는 항상 스스로 피아노를 쳤다.

②*当我朋友们去玩电脑游戏的时候我每天去踢了足球。

当我朋友们去玩电脑游戏的时候我每天去踢足球。

내 친구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나는 매일 축구를 했다.

③*因为妈妈是老师,所以我每天在教室里等了她的下班。

因为妈妈是老师,所以我每天在教室里等她下班。

어머니가 교사라서 나는 매일 교실에서 어머니가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④*为了我的身体我每天打篮球了。

为了我的身体我每天打篮球。

나의 건강을 위해 매일 농구를 했다.

중국어의 조사 ‘了’가 표시하는 문법적 의미는 어떤 한 순간의 동작행위의 ‘완성’, ‘실현’ 혹은 새로운 상황의 출현이다. 그래서 일상성(经常性)과 반복성을 나타내는 부사와 시간사와 동시에 쓸 수 없다. 그러나 한국어의 ‘-었’은 습관성과 반복성을 나타내는 부사와 시간사와 동시에 표현하여 반복적인 문법적 의미를 표시한다.

예문 ①—③은 한국어 반복 습관체(习惯体) ‘-었’에 대응하는 ‘了1’의 소극적 전이다. 한국어에서 반복 습관체는 반복성과 습관성의 부사로 ‘-었’과 함께 표현한다. 학생들은 이 영향을 받아 예문 ①에서 반복을 나타내는 ‘常常’과 ‘了1’을 함께 표현했고, 예문 ②-③이 나타내는 것은 보편성의 ‘每天’과 ‘了1’을 함께 표현했으며, 예문 ④가 나타내는 것은 보편의 ‘每天’과 ‘了2’를 함께 나타내어 항상 나타나는 상황을 표현했다. 중국어에서 ‘了2’는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표시하며, 경상성(倾向性)과 반복성의 어휘가 표시하는 것과 어긋난다. 한국어의 반복 습관체는 중국어의 ‘了1’에 전이되었

을 뿐만 아니라 ‘了2’에도 전이되었다. 따라서 상술한 4개의 문장에서 ‘了’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B) 한국어 과거 상태체 ‘-었’에 대응하는 ‘了’의 전이

①*我从十四岁的时候开始了打篮球。

我从十四岁的时候开始打篮球。

나는 열네 살 때부터 농구를 했다.

②*为了让两国关系能更上一层楼，我开始思想了关于外交官这个职业。

为了让两国关系能更上一层楼，我开始思考关于外交官这个职业。

양국 관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나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③*如果我的运动水平很差了的话，我相信我没有像现在一样这么幸福了。

如果我的运动水平很差的话，我相信我不会像现在一样这么幸福。

만일 나의 운동 수준이 형편없었다면 나는 현재처럼 이렇게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예문 ①-③은 한국어 과거 상태의 문장에 대응하는 ‘了1’의 소극적 전이다. 학생들은 예문 ①과 예문 ②에서 과거 상태를 표현하였는데, 모국어의 문장에서 과거 상태를 표시하는 ‘-었’의 유도로 예문 ①과 ②의 문장에서 동사 ‘开始’ 뒤에 ‘了1’을 첨가했다. 중국어의 ‘了1’은 동작의 완성과 실현을 표시하는데, 예문 ①과 ②의 두 문장이 표현하려는 것은 과거 상태의 서술에 대한 것이며, ‘了1’의 문법 의미와 관련이 없고, 예문 ②의 첫 번째의 ‘了’의 오용 역시 그러하다.

④*我五岁的时候第一次去过这里。

我五岁的时候第一次去了这里。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나는 이곳에 한 번 왔었다.

중국어에서 경험을 나타내는 ‘过’와 한국어의 ‘-았었’의 과거 경험에 대한 문법의 기본은 일치한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은 ‘-았었’과 ‘过’의 용법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있었’을 쓸 수 있는 곳에 ‘过’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예문 ④의 오류가 생겼다. 한국어 ‘-있었’은 ‘시간’을 나타낼 때 과거를 표시한다. ‘-있었’은 ‘체(体)’를 나타낼 때, 과거 완성, 과거 경험과 과거 상태를 표시한다. ‘-있었’은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고, ‘体’ 문법의미 시에는 문장의 어떠한 요소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아래의 표11은 ‘-있었’이 주로 ‘시간’과 ‘체’ 문법의미를 표시한다.

표6 ‘-있었’의 시간/체 의의

-있었	时	体	예문
	과거	과거경험	중국에 갔었다.(去过中国。)
	과거완성	기차가 떠났었다.(火车已经开走了。)	
	과거상태	그는 성적이 매우 좋았다.(他的成绩很好。)	

위의 표를 통하여, 한국어의 ‘-있었’이 ‘体’의미 상 현실체 ‘了’의 의미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경험체 ‘过’의 의미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있었’이 [-상태]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 과거 완성을 나타낼 수 있고, ‘-있었’이 [+상태]의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 과거 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있었’이 현실성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了’는 겨우 현실성의 뚜렷한 표기이다. 그래서 위의 예문 ④의 ‘过’는 ‘了’로 고쳐야 한다.

⑤*刚开始我很胖了, 我妈妈看我身体以后决定了让我去篮球补习班。

刚开始我很胖, 我妈妈注意到以后决定让我去篮球补习班。

막 시작했을 때 나는 뚱뚱했었는데, 어머니가 신경을 쓰신 후에는 나를 농구학원에 가도록 결정하셨다.

⑥*但是发现我说话时中国人也能听懂的时候我非常高兴了。

但是发现当我说话时中国人也能听懂的时候我非常高兴。

그러나 내가 말을 했을 때, 중국인이 알아듣는 것을 보고 나는 아주 기뻐다.

예문 ⑤-⑥은 ‘程度副词+形容词+었다(了)’ 구조의 오류다. 한국어의 형용사는 ‘时/体’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정도부사가 수식하는 형용사와 과거의 ‘时/体’의 표지인 ‘었다’를 함께 표현하여 과거 상태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중국어 ‘了2’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하여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나타낼 수 있으나 정도부사가 형용사 앞에 출현할 때는 ‘了2’와 함께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도부사와 형용사가 함께 사용될 때, 상태를 표시하기 때문이며, ‘了2’와 표시하는 변화는 위배되기 때문이다.

⑦*小时候我不喜欢了妈妈, 因为她每天让我做运动。

小时候我不喜欢妈妈, 因为她每天让我做运动。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매일 내게 운동을 시켰기 때문이다.

⑧*但是我开始上补习班, 然后我不喜欢了弹钢琴。

但是我开始上补习班, 然后我不喜欢弹钢琴。

그러나 내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후에 나는 피아노치기가 싫었다.

徐建宏은 “중국어에서 사람의 심리 그리고 이념 활동의 동사 ‘爱, 喜欢, 担心, 感动, 伤心, 希望, 打算, 决定, 认为, 觉得’ 등 뒤에 보통 ‘了’를 붙일 수 없다. 왜냐하면 심리 활동의 동사는 행위동사가 아니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동작을 표시하지 않고 그 자체가 지속적인 뜻이 있고 완성의 뜻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어는 과거의 시간은 모두 ‘-었’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예문 ⑦과 ⑧처럼 오류를 나타냈다.”⁶⁵⁾라고 하였다.

C) 한국어 과거 완성체 ‘-었’에 대응하는 ‘了’의 전이

①*我跟许多外国朋友们常常用英语一起聊天儿。可是,一天我发现了几个中国朋友不能参加我们的对话。

我跟许多外国朋友们常常用英语一起聊天儿。可是,一天我发现几个中国朋友不能参加我们的对话。

65) 徐建宏, 「汉语助词‘了’与韩国语词尾‘-었’的对比」, 『辽宁大学学报』, 2004, 134쪽.

汉语中表示人的心理、意念活动的动词‘爱、喜欢、担心、感动、伤心、希望、打算、决定、认为、觉得’等后面一般不能加‘了’, 因为表示心理活动的动词不是行为动词, 不表示具体的动作, 其本身有持续的意思, 没有完成的意义。而韩语只要出现表示过去的时间词都用“-었”。

나는 많은 외국친구들과 항상 함께 영어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몇 명의 중국친구가 우리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②*我妈妈决定了让我去篮球补习班。

我妈妈决定让我去篮球补习班。

나의 어머니는 나를 농구학원에 가도록 결정했다.

戴耀晶(1997)은 “상황이라는 것은 언어 중 동사가 표시하는 상태와 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상황은 동사에 속할 뿐만 아니라 문장에도 속한다.”고 지적했다.⁶⁶⁾ 한국어 문장의 상태와 방식은 문장의 정확이 비록 문장의 기타 성분에 따라 표현될 수 있지만 주로 동사 뒤의 ‘时/体’표지에 따라 표현된다. 중국어 문장의 정확은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문장 중의 기타성분 어휘로 뜻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다만 체(体) 표지가 문장의 정확을 표현하는 것은 문장 내부 기타 성분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문장 중에는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나타낼 수 있고, 동작 또는 행위가 이미 발생 또는 상태가 표현될 때는 보통 동사 뒤에 동태조사 ‘了’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술어 뒤에 절이 올 때, 조사 ‘了’은 술어 뒤에 ‘了’를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 ‘发现’ 뒤의 목적어가 체언 성질의 단위일 때, ‘了’은 ‘我发现了一个小偷’처럼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술어 뒤의 목적어자리에 절이 올 경우 술어 뒤에 ‘了’을 쓸 수 없다.

이로써 예문 ①과 ②문장의 ‘完成体’ 의미는 동태조사 ‘了’로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술어동사와 문장의 기타성분의 어휘 의미로서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 ‘과거 완성체’의 의미는 주로 ‘-었’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유학생들은 모국어 영향을 받아 예문 ①-② 뒤의 술어동사 뒤에 모두 ‘了’을 붙인 것이다.

D) 미래 완성체 ‘-었’에 대응하는 ‘了’의 전이

①*虽然我实现了梦想很重要, 但是我也想成为给周边人带来积极影响的人。

66) 戴耀晶, 『现代汉语时体系统研究』, 浙江教育出版社, 1997, 9쪽.

情状指的是语言中动词表示的状态和方式。但情状不仅属于动词也属于句子。

虽然实现梦想很重要，但是我也想成为给周边人带来积极影响的人。

설사 꿈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는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문 ①은 표면상 ‘정도부사(程度副词)+ 形容词+ 었다(了)’ 구조의 잘못이지만, 만약 작문 원문을 보면 학생이 표현하려고 한 것은 미래에 자기 꿈을 실현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 깊은 살펴보면 학생은 한국어 ‘-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었’은 ‘时’의 의미에서 ‘未来’를 나타낼 수 있고, ‘体’의 의미에서 ‘完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E) 한국어 과거 부정문에 대응하는 중국어 ‘了’의 전이

①*那天一到教室老师就批评了我。我说“老师!我保证这不是我的错误”，可是老师一直不相信了我。

那天一到教室老师就批评了我。我说“老师!我保证这不是我的错误”，可是老师一直不相信我。

그날 내가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나를 꾸짖으셨다. “선생님,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나는 말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줄곧 나를 믿지 않으셨다.

한국에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안’과 ‘못’이 동사 앞에 위치하고, ‘-지 않다’가 동사 뒤에 위치하여 문장의 부정을 표시한다. 한국어의 ‘안 / 못’은 과거를 나타내는 ‘时’의 문장일 때, 이미 그렇게 되었거나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거나 어미 ‘-었’과 함께 표현된다. 그러나 중국어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没 / 不’가 이미 그렇게 된 의미를 나타내는 ‘了’와 함께 표현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종종 ‘不……了’의 오류문장을 만든다.

한편 徐丽华·谢仙丹(2009)은 언어의 보편성 요소, 표기(标记)와 자연도(自然度) 세 방향의 요소로부터 한국 학생들이 ‘了’를 습득할 때 생성하는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언어 표기 이론이 생각하는 것은 만일 X특징이 있는 언어가 Y의 특징도 지니고 있고, Y의 특징의 언어는 X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Y의 표기는 X의 표기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표기 이론의 각도에서 보면, 한국어의 과거의 조사 ‘-었’이 과거 동작의 완성과 실현을 나타내고, 중국어의 ‘了’는 동작의 완성과 실현을 나타낼 수 있다. ‘-었’과 ‘了’가 동작의 완성과 실현의 이 특징을 나타내는 데에서 두 언어 모두 특징 Y를 갖추고 있다. 한국어에서 다만 과거의 시간사가 필요하고 과거시제 조사 ‘-었’ 즉, 특징 X를 사용한다. 중국어의 규칙은 각종 제한이 있다. 중국어의 ‘了’가 동작의 완성과 실현을 나타낼 때에 과거에서 발생할 수 있고, 미래도 가능한데 ‘了’ 자체는 과거의 함의(含义)를 결코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시간의 단어가 있을 때나 과거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 모두 ‘了’를 쓰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중국어 특징 X를 지녔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특징 Y의 표기가 특징 X보다 약하다.⁶⁷⁾

한국 학생들은 중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와 목표어 표기의 강약 차이를 직면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한 그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문 ①의 한국어 번역은 과거 시간 조사 ‘-었’이 있어서 과거 동작의 완성과 실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대일 대응관계를 나타내며, 이것은 한국어 문법에서 핵심 문법규칙이며 무표기적이며, 비교적 습득 및 인지 규범과 부합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了’를 배울 때, 무표기적인 문법규칙을 제2언어 습득에 전이시키게 된다.

한국어의 ‘-었’은 时/体 표기의 ‘时’가 의미상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고, ‘体’가 의미상 완성, 진행, 반복습관 또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⁶⁸⁾ 이로써 한국어의 时/体표기 ‘-었’은 중국어의 ‘了’에 비해 더 많은 문법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了’와 ‘-었’은 또한 부분적으로 서로 같은 문법의미도 있다. 이런 같은 부분은 무표기적인 것, 쉬운 습

67) 徐丽华·谢仙丹, 「韩国留学生习得的‘了’的偏误分析及教学对策」, 『浙江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2期, 2009, 90쪽.

语言标记理论认为如果具有特征X的语言也具有特征Y, 而具有特征Y的语言不具有特征X的话, 那么Y的标记性就比X的标记性弱。从标记理论的角度来看, 韩语里有过去时助词‘았’来表示过去动作的完成与实现, 汉语里‘了’可以表示动作的完成与实现, ‘았’和‘了’在表示动作的完成与实现这个特征上, 两种语言都具备, 即为特征Y。在韩语里, 只要有过去时间词, 就使用过去时助词‘았’, 即为特征X。而在汉语里则有各种限制, 汉语的‘了’在表示动作的完成与实现时可以发生在过去, 也可以是将来, 即‘了’本身并不具有过去时的含义。因此, 并不是在有过去时间词时或表过去的事件或情况时都要用‘了’, 所以可以说汉语不具备特征X。也就是说, 特征Y的标记性比特征X弱。

68) 서정수,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사, 1996, 189쪽.

득, 쉽지 않은 오류이지만, 서로 다른 부분은 중국어 표기성이 강해서 비교적 배우기 어려운 것이다.

위의 분석을 근거로 중국어 조사 ‘了’의 오류는 주로 학생들의 모국어 时/体 표기를 가져오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언어의 표기에서 한국어의 조사는 무표기항에 속하며, 중국어 규칙은 유표기항에 속한다.⁶⁹⁾ 한국학생들은 중국어 학습 과정 중 한국어의 무표기항을 중국어의 유표기항에 대응하여 소극적 전이를 생성시킨다. 언어의 심리거리상 한국어에는 时/体 표기가 있고, 시간 개념은 时/体 표기와 시간 어휘로서 표현할 수 있다. 중국어에는 体표기는 오히려 무시(无时) 표기이고 시간 개념은 주로 어휘와 문장 중의 기타 성분을 사용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학생들은 중국어의 体표기도 한국어의 时/体표기와 똑같이 시간의 문법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한국학생들은 한국어의 时/体표기와 중국어의 体표기와 시간개념의 단어 차이를 항상 줄인다. 산출된 언어에서 모국어의 时/体용법을 중국어의 사용 중에 전이시켜 오류문장을 종종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了’를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주로 학생들이 작문 중에 회피전략을 채택하여 실수를 줄이려고 고의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4. 어의 오류

어의 전이는 한중 언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휘의 의미항(义项)이 점차 전이되는 것을 가리킨다. 비록 어렴풋이 이전의 관계를 볼 수 있지만, 사용과 발전에 있어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달라졌다. 한국 학생들은 이러한 단어에서도 오류를 자주 생성시키는데, 한국 학생들이 주로 한국어의 뜻에 따라 중국어의 의미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1) 한중 어의 불일치 오용

중국어와 한국어의 동형 유의 동사 사이에 복잡한 어의 관계가 교차된다(错综). 두 언어 중에는 단어의 의미가 같은 것이 있고, 교차하는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다. 이 때문에 중·고급단계 한국의 중국어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기 쉽다. 다음은 작문에서 나타난 오류율이 비교적 높은 단어이다.

①*最近天气变化太大。应该多多小心健康。

最近天气变化太大。应该多多注意健康。

요즘 날씨변화가 아주 심하다. 건강에 많이 주의해야 한다.

②*妈，现在是换季节的时候了，你应该小心对你的身体，过了几天以后，我再给您写信。

妈，现在是换季时期，你应该注意你的身体，过几天以后，我再给您写信。

엄마, 지금 환절기니까 몸 조심하셔야 해요. 며칠 후 다시 편지 쓸게요.

③*这儿的天气变化很大，这几天刮了大风，所以我现在不舒服，感冒了。您们也要小心感冒吧。

这儿的天气变化很大，这几天刮了大风，所以我现在不舒服，感冒了。你们也要注意别感冒了。

이곳의 날씨변화가 아주 심하고 이 며칠 동안 대풍이 불어서 나는 지금 몸이 불편하고 감기에 걸렸어. 너희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④*你应该好好想一想，如果你的妻子或者孩子被损害的话，你感觉如何?社会是人们都一起生活的空间，所以我认为在公共场所，你必须得小心。

你应该好好想一想，如果你的妻子或者孩子受到伤害的话，你感觉如何?社会是人们都一起生活的空间，所以我认为在公共场所，你必须得注意。

당신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만일 당신의 아내나 아이가 다쳤다면, 당신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사회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나는 공공 장소에서 당신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중 동형어인 ‘小心’은 한중어휘체계에서 관련된 단어의 의미가 전이되는 한중동형어에 속한다. 이 ‘小心’이라는 단어가 한중 어휘에서 대표되는 뜻을 아래의 표를 통해 한번 살펴보자.

표7 한중어휘 ‘小心’의 비교

小心	
한국어	중국어
소심小心	小心
胆子小	谨慎, 注意

표를 통해 우리는 한중 동형어 ‘小心’의 한중 어휘 체계에서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어 ‘소심(小心)’이 가리키는 것은 ‘대답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심한 성격,’ ‘소심하게 굴다,’ ‘재는 덩치는 큰데 의외로 소심해.’ 그리고 중국어의 ‘小心’이 가리키는 것은 ‘谨慎(근신)’과 ‘注意(주의)’이다.

한국어에 새로운 한자어 생성이 중국어에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사이에 일대다(一對多)의 현상이 형성되었다. 한국어 한자어 ‘关心’에 대응하는 중국어 어휘는 ‘关心,’ ‘关注,’ ‘兴趣’이며, 한국어 한자어 ‘代替’에 대응하는 한자어에는 ‘代替,’ ‘替代’와 ‘取代’가 있으며, 한국어 한자어 ‘旅行’에 대하여 대응되는 ‘旅行’과 ‘旅游’가 있다. 유의어(近义词)의 생성은 필연적으로 어의(词义) 배분에 영향을 주고, 일부 의미가 비슷한 단어는 다른 뜻으로 나뉘고, 한중 동형어 사이에 어의(词义)가 복잡한 관계로 교차한다.⁷⁰⁾ 한국어와 중국어 일부분의 어휘는 일부분 의미가 같고, 일부분 의미가 다른 것이 있다.

⑤*我喜欢的文章是‘明天又是新的一天’。我伤心的时候，这篇文章给我力量。

我喜欢的一句话是‘明天又是新的一天’。我伤心的时候，这句话给我力量。

내가 좋아하는 한 마디 말은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라는 것이다. 내가 슬플 때, 이 말이 내게 힘을 준다.

⑥*还有类似的文章‘千里之行，始于足下；谋事在人，成事在天’。

还有类似的句子‘千里之行，始于足下；谋事在人，成事在天’。

또 유사한 문장은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와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성사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는 것이다.

위 두 문장의 오류는 한국 고등학생이 자기소개를 쓸 때 나타낸 오류이다. 이런 오류는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만약 앞뒤의 문장이나 구체적 맥락이

70) 全香兰, 「汉韩同形词偏误分析」, 『汉语学习』, 第4期, 2004, 59쪽.

由于韩语中新汉字词的产生没有汉语活跃, 所以有些韩语汉字词和汉语词汇之间形成了一对多的现象, 如跟韩语汉字词‘关心’对应的汉字词汇有‘关心’、‘关注’、‘兴趣’, 跟韩语汉字词‘代替’对应的汉字词有‘代替’、‘替代’和‘取代’, 跟韩语汉字词‘旅行’对应的有‘旅行’、‘旅游’. 近义词的出现必然给词义分配带来影响, 部分意义相近的词在意义上有了不同的分工, 造成汉韩同形词之间词义上错综复杂的关系.

없다면 이 문장은 부합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이런 오류가 여전히 많다. 요컨대 그 원인은 중국어의 ‘文章’과 한국어의 ‘문장’의 의미항 대응이 일치하지 않아 조성된 것이다.

사전적 해석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어 ‘文章’의 의미항이 한국어 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한자어 ‘文章은 중국어의 ‘文章’이 지닌 뜻으로 쓰이지 않고 하나의 ‘주·술 문을 가리 킨 것으로만 사용된다. 이것은 한중 의항 대응이 불일치하여 조성된 모국어 전이이다.

⑦*因此在两代之间所存在的代沟问题也越来越深刻。

因此在两代之间所存在的代沟问题也越来越严重。

이것 때문에 2대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 차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⑧*比如说, 在非洲饥饿问题非常严重深刻。

比如说, 在非洲饥饿问题非常严重严重。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기아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深刻’은 중국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a. 사건이나 문제의 본질에 도달하다. ‘이 글의 내용이 핵심을 찌른다.’ b. 마음 속 깊이 느끼다. ‘인상이 깊다’와 같은 것이다. 한국어 사전에서 ‘深刻(심각하다)’의 설명은 ‘상태나 정도가 매우 깊고 중대하다’ 또는 ‘절박함이 있다’이다⁷¹⁾. 예를 들어 ‘심각한 고민’, ‘심각한 논의’, ‘심각한 문제’, ‘심각한 위기’, ‘심각한 타격’, ‘심각하게 생각하다’, ‘심각하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환자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등이다. 중국어와 한국어 단어 ‘深刻’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의 ‘심각(深刻)’은 ‘엄중하다’, ‘중대하다’는 의미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한국어 한자어 ‘深刻’의 간섭을 받아서 오류를 생성한 것을 알 수 있다.

⑨*我国, 韩国就是一个保守的国家, 古往今来, 大人不爱多话, 不大表现自己的感情和心情, 所以年轻人和一些大人之间, 没有那么多的对话。

我们韩国就是一个保守的国家, 古往今来, 大人不爱多说话, 不大表达自己的感情和心情, 所以年轻人和一些大人之间, 没有那么多的对话。

71) 심각하다: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국가여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른들은 말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을 크게 드러내지 않아서 젊은이와 어른들 사이에 그렇게 많은 대화가 없다.

⑩*通过对话, 他们表现出来自己的不满。

通过对话, 他们表达出来自己的不满。

대화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했다.

⑪*人们很喜欢用歌曲表现他们的生活、感情等等。

人们很喜欢用歌曲表达他们的生活、感情等等。

사람들은 노래로 자신들의 생활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기 좋아한다.

중국어의 ‘表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표현(하다) ‘表现出极大的勇敢和智慧’(대단한 용기와 지혜를 나타내다) b. 태도, 품행, 언동 ‘他在工作中的表现很好’(그는 일하는 태도가 매우 좋다) c. 일부러 자신을 나타내다 또는 과시하다, ‘此人一贯爱表现, 好出风头’(사람은 언제나 과시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한국어에서 ‘표현’(表现)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a.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냄. ‘예술적 표현,’ ‘표현 방법이 서투르다,’ ‘그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그마한 선물을 드렸다.’ b.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사물의 이러저러한 모양과 상태.

⑫*这样想, 我的心情安静下来了。

这样想, 我的心情平静下来了。

이렇게 생각하니, 나의 마음이 안정되었다.

⑬*有的人说, 吸烟的原因是为了心里的安静。

有的人说, 吸烟是为了寻求心里的平静。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흡연은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위 두 문장에서 한국 학생은 한국어의 ‘안정’을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었으나 중국어의 ‘安静’의 뜻이 다름을 알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중국어의 문장에서는 ‘安静’을 ‘平静’으로 써야 되는 문장이다.

⑭*那时候中国给他留下了一个很好的印象, 以后他陪他家人去了中国。

那时候中国给他留下了一个很好的印象, 后来他陪他家人去了中国。

그때 중국은 그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고, 후에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중국에 갔다.

⑮*后来我一定要去中国留学。

以后我一定要去中国留学。

후에 나는 반드시 중국에 유학을 갈 것이다.

‘后来’와 ‘以后’는 한국어에서 모두 ‘후에, 나중에’ 등으로 번역된다.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용법은 구분된다. ‘后来’는 과거의 일을 가리키는 데만 사용하지만 ‘以后’는 과거와 미래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어느 시간 이후의 시간을 가리킬 경우 이 둘은 서로 바뀌어 사용할 수 있다.⁷²⁾

⑯*我在生活中遇到艰难的时候, 记忆你们两个人的话。

我在生活中遇到困难的时候, 回忆你们两个人的话。

내가 생활에서 어려울 때마다, 너희 두 사람의 말을 기억한다.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에 의하면 ‘기억(记忆)’은 뜻이 두 가지 있다. a.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 예를 들면, ‘기억에 오래 남다,’ ‘기억을 불러일으키다,’ ‘예전의 기억이 희미하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b. 사물이나 사상(事象)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⁷³⁾ 위의 설명에 의하여 한국어의 ‘기억(记忆)’은 중국어에서 ‘记忆’와 ‘回忆’ 두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⑰*世界上饮食垃圾不可胜数。

世界上食物垃圾不可胜数。

세계에 음식물 쓰레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72) 白水振·李鐵根,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작문 클리닉』, 서울동양북스, 2012, 85쪽.

73) 기억: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⑱*随着人们对健康的意识提高, 我们越来越重视平时吃的饮食。

随着人们对健康的意识提高, 我们越来越重视平时吃的食物。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는 평소 먹는 음식을 점점 더 중시하게 된다.

⑲*我们的生活中, 饮食是不可缺少的生存的必需品。

我们的生活中, 食物是不可缺少的生存的必需品。

우리 생활에서 음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생존의 필수품이다.

한국어의 ‘음식’(饮食)은 사람이 먹는 것을 나타내는데, 밥, 국, 요리 등을 포함한다. 한국학생들은 한국어 한자어 ‘饮食’(음식)을 중국어의 ‘食物’로 잘못 생각한다. 중국어의 ‘饮食’은 먹고 마시는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어떤 것을 먹고 마심을 나타낼 수 있다. 종종 ‘习惯,’ ‘文化,’ ‘结构’ 등의 단어와 결합하여 식습관, 식문화 그리고 식생활 구조를 표현한다.

⑳*父母和子女生长的环境不一样, 所以父母很难理解子女的情况, 子女也不能了解父母的心。这样的情况继续发生的话就容易引起家庭的不和谐音。

父母和子女生长的环境不一样, 所以父母很难理解子女的情况, 子女也不能了解父母的心。这样的情况持续发生的话就容易引起家庭的不和谐音。

부모와 자녀의 성장환경이 달라서 부모는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 쉽게 가정의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다.

㉑*吸烟是继续性的与年龄和性别是无关的。

吸烟是持续性的, 与年龄和性别是无关的。

흡연은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연령과 성별과는 무관하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持续’은 행위나 상황이 줄곧 진행되고 중단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중국어의 ‘继续’은 일이 잠시 중단된 후에 진행됨을 나타낸다. 한국어 한자어 ‘继续(계속하다)’는 행위나 상황이 중단 없이 꼭 계속됨을 나타낸다. 또한 일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진행됨을 나타내기도 한다. 많은 한국 학습자가 중국어의 ‘持续’과

한국어 한자어 ‘继续’을 구별하지 못하며, 실제 상황에서 ‘持续’이나 ‘继续’을 선택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오류를 일으킨다.

2) 한중 어의 차이의 오용

어떤 단어는 모국어에서 부정적이지만 목표어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인다. 어떤 단어는 모국어에서 특정한 감정색채가 없는데 목표어에서는 오히려 분명한 포핌(褒贬) 색채가 있다. 아래는 작문 중 오류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①*他经常在背后讨论别人，老说别人的坏话。

他经常在背后议论别人，老说别人的坏话。

그는 항상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늘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

②*最近在社会上对吸烟问题的议论很热烈。

最近在社会上对吸烟问题的讨论很热烈。

최근 사회에서 흡연문제에 대한 토론이 아주 뜨겁다.

중국어에서 ‘讨论’은 비교적 강한 목적성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사상교류, 문제해결 또는 원인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议论’은 사람이나 사물의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을 비공식적으로 의견 발표하는 것을 강조한다. ‘讨论’은 중성사(中性词)이며, ‘议论’은 폄하하는 뜻으로 사용하며, ‘大发议论(떠들썩하게 의론하다)’, ‘人们对这件事议论纷纷(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의논이 분분하다)’와 같다. 이런 단어나 구의 ‘议论’는 대부분 불평이나 비평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다. 이 두 단어가 한국어 한자어에도 있는데, 한국어 한자어 ‘讨论(토론하다)’, ‘议论(의논하다)’의 의미가 중국어 ‘讨论’과 같지만, 두 단어는 모두 중성사이며 폄하하는 의미가 없다. 한중 문체색채가 다른 것은 학습자가 쉽게 오류를 만드는 요소가 된다.

3) 한중 문체 차이의 오용

①*韩国的高中女子很喜欢化妆。

韩国的高中女生很喜欢化妆。

한국의 고등학교 여학생은 화장하기를 좋아한다.

②*我是十七岁的女子。

我是十七岁的女孩。

나는 17세의 소녀이다.

③*如果我的母亲出生在现代,我想她一定是能对社会做出一定贡献的女子。

如果我的母亲出生在现代,我想她一定是能对社会做出一定贡献的女人。

만일 나의 어머니가 현대에 태어나셨다면, 어머니는 분명 사회에 반드시 공헌하는 여성이 되셨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女子(여자)’는 한국어에서 모든 여성 곧 성인이나 미성년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구어에서 잘 사용된다. 중국어에서 ‘女子’는 서면어이며, 구어에서는 항상 ‘女人’을 사용하며 성인여성을 가리키고, ‘女孩’는 미성년 여성을 지칭하고, ‘女生’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가리킨다. 만일 학생들이 이러한 단어 차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모국어 중 항상 사용하는 의미가 같은 ‘여자’를 대체하여 쉽게 사용하여 문체상으로 뚜렷한 부정적 전이를 조성하게 된다.

④*第二是别忘“咱们是家族。”这一句话。

第二是别忘了“咱们是一家人”这一句话。

둘째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이 한 마디를 잊지 마세요.

⑤*但别忘最重要的一个事实,我们不是家族吗?

但别忘了最重要的事实,我们不是一家人吗?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닌가요?

한국어의 ‘家族’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家族’은 생활 속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어이다. 한 예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중국어에서 ‘家族’은 비교적 공식적이고 문어적 색채를 띠는 단어이고, 혈연관계의 사람이 한 사회집단을 이루어 통상 몇 세대의 사람이 있음을 가리킨다. 위 문장에서의 사용은 지나치게 엄숙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III. 통사 오류 분석

인도유럽어족의 언어와 같은 언어는 비교적 풍부한 단어의 형태 변화가 있어서 많은 문법의미를 어순에 따르지 않고 형태 변화를 통하여 표시하며, 이 때문에 어순은 비교적 자유롭다. 중국어는 서양 언어의 그러한 형태 변화가 없어서 많은 문법의미가 어순을 통하여 나타나고, 중국어의 문장 유형도 종종 어순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어순은 중국어의 문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인다.

중국어에서 어순은 의미 관계와 통사 관계를 구별하는 중요 수단의 하나로서 비교적 고정적이다.⁷⁴⁾ 黄卓明(1992)은 특히 부사어의 오류는 어순 오류의 91.9%나 되며, 보어나 ‘了’자문(字句), 관형어에 있어서 어순 오류의 41.3%, 36.6%, 29.7%에 달하는 등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서 어순 오류의 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한국어는 형태 변화가 복잡한 반면에 어순은 비교적 자유로워 이러한 모국어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의 어순과 관련한 오류를 더욱 빈번하게 발생시킨다고⁷⁵⁾ 보았다.

필자의 조사에 근거하면, 모든 오류 중에 상황어(状语)로 인한 오류가 가장 많고, 그 중에 모국어전어로 인한 오류는 주로 아래의 몇 종류이다.

1. 부사 상황어의 어순어류

부사 상황어와 관련하여 시간 상황어, 어기(语气) 상황어, 장소 상황어 그리고 대상 상황어가 함께 나타날 때, 한국학생들은 모국어전어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 다항 상황어의 배열 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부사를 직접 주어의 뒤에 놓아 어순오류를 만든다.

74) 남궁양석, 『현대 중국어 어순의 정보구조와 초점』, 한국학술정보(주), 2008, 31쪽.

75) 손정애, 「HSK작문 답안을 통한 중국어 어순 오류 분석」, 『중국문학』, 제63권, 199~224쪽, 2010, 200쪽. 그 중에 黄卓明(1992)에 의하면 특히 부사어의 오류는 어순 오류의 91.9%나 되며, 보어나 ‘了’자문(字句), 관형어에 있어서 어순 오류의 41.3%, 36.6%, 29.7%에 달하는 등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서 어순 오류의 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该文为再引用, 见黄卓明, 「从外国留学生书面表达各类错误出现频率的分析中谈中级汉语教学」, 『郑州大学学报』, 第4期, 70쪽. 由于语序而致错的病句高达91.9%……频率为B级的补语、'了'字句和定语运用错误中, 语序错误分别占41.3%、36.6%、29.7%。

①*一定我得到自己的目标。

我一定达到自己的目标。

나는 반드시 자신의 목표를 이룰 것이다.

한국어의 어기 상황어는 모두 주어 앞뒤에 나타낼 수 있는데, 중국어의 일부 어투 상황어는 주어 앞에 올 수 없다.⁷⁶⁾ 傅雨贤(1983)은 중국어에서“절대 긍정 혹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一定’、‘必定’……등은 모두 부위성(附谓性) 부사이며, 이위성(离谓性)을 가지지 않는다.”⁷⁷⁾라고 하였다. 모국어 소극적 전이 및 목표어에 대한 지식의 일반화(泛化) 영향으로, 한국학생들은 종종 절대 긍정 혹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를 주어의 앞에 놓아 어순오류를 만든다. 예 ① 중 긍정의 어기 부사 ‘一定’은 반드시 주어 뒤에 놓아 표시한다.

②*我跟许多外国朋友们常常用英语一起聊天儿。

我常常跟许多外国朋友们用英语一起聊天儿。

나는 자주 많은 외국친구들과 영어로 함께 이야기 한다.

张斌(2010)은 중국어의 시간부사를 표빈부사(表频副词), 표시부사(表时副词)와 표서부사(表序副词)로 분류했다. 표빈부사, 표시부사 그리고 표서부사는 중국어의 문장 중의 위치가 엄격하게 요구된다. 한국어의 시간부사 위치는 매우 융통성이 있는데, 모국어전이의 영향을 받아, 한국학생들은 시간부사를 상황어의 어순으로 삼기에 어순오류가 아주 많다. 예문 ②는 시간부사 상황어와 대상 상황어의 순서가 틀린 것인데, 이런 오류는 주로 시간부사를 도입 동작과 관련된 대상의 뒤에 잘못 놓아 만들어진 것이다. 개사 ‘跟……’은 도입 동작의 협동 대상이며, 동사와의 관계가 더 밀접하여 동사를 가까이 해야 하며, 시간과 빈도수를 표시하는 부사는 이런 개사 상황어 앞에 두어야 한다.

76) 柳英绿, 『朝汉语语法对比』, 延边大学出版社, 1999, 167쪽.

韩语的语气状语都可以在主语前后出现, 但汉语有些语气状语不能出现在主语前。

77) 傅雨贤, 『副词在句中的位置分布』, 『汉语学习』, 第3期, 1983, 8쪽.

여기에서 附谓性是 술어를 가까이 하는 성질을 말하며, 离谓性是 술어를 멀리하는 성질이다.

那些表示绝对肯定或否定的副词如一定、必定……等都是附谓性副词, 不具有离谓性。

한국어에서 빈도 상황어의 부사는 주로 ‘자주, 가끔, 간혹, 늘, 항상, 때때로, 날마다’ 등이 있는데, 이런 단어는 문장 중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明洙常常给父亲写信’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래의 세 형식이 있다.

명주가 가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다.

명주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가끔 쓴다.

가끔 명주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다.⁷⁸⁾

위의 예문에 근거하여 ‘가끔’이 한국어에서 이동의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위치를 어떻게 바꾸어도 한국어 문장의 표현에 영향이 전혀 영향을 없다. 예문 ②의 오류는 한국어의 시간부사 영향을 받아 ‘자주’를 시간과 대상 상황어의 순서를 바꾸는 영향을 주었다.

③*我从来给爸妈没有写过信。

我从来没有给爸妈写过信。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께 편지를 쓴 적이 없다.

위의 문장은 부정부사(否定副词) 상황어 ‘没有’가 잘못 위치하여 대상의 개사구 ‘给妈妈’ 뒤에 나타내어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어의 부정부사 상황어는 보통 술어동사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没有’를 개사구 뒤 동사의 앞에 놓았다. 그러나 중국어의 개사구와 부정부사가 함께 사용될 때, 현실 상황을 표시하는 문장은 개사구와 술어동사의 어의 관계가 밀접하여 술어를 가까이하여 부정부사는 개사구의 앞에 놓아야 한다. 즉 중국어의 부정문 중 ‘把, 被, 给, 跟, 对, 向, 朝, 从, 靠, 凭, 按’ 등 개사구는 모두 ‘不’와 ‘没’의 뒤에 놓여야 한다. 예문 ③의 개사구 ‘给……’는 도입 동작대상임으로 술어 ‘写信’을 가까이 하여 부정부사 상황어 ‘没有’를 개사구 앞에 위치시켜 ‘我从来没有给爸妈写过信’으로 고쳐야 한다.

④*已经春天到了, 济州岛里开满了樱花。⁷⁹⁾

78) 曾晓旭, 「韩中状语语序对比」, 『理论与实践』, 第7期, 2014, 9쪽.

韩语中可作频度状语的副词主要有‘ 자주, 가끔, 간혹, 늘, 항상, 때때로, 날마다’等, 这些词在句子中可以自由移动。例如‘明洙常常给父亲写信’翻译成韩语有下面三种形式……。

春天已经到了, 济州岛到处开满了樱花。

봄이 이미 왔고, 제주도 도처에 벚꽃이 만개했다.

한국어의 시간부사 상황어는 주로 ‘지금, 당장, 이제, 곧, 아까, 갑자기, 요즘, 이미, 벌써’ 등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문장 중 자유롭게 이동한다.⁸⁰⁾ 손남익(1995)은 “시간부사가 동사를 수식하고 한정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동사의 앞에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간부사와 장소부사는 통사론 성분 상 자유 부사로 간주할 수 있다.”⁸¹⁾고 말했다. 따라서 아래의 문장 중 한국어에서 시간부사의 문장의 위치는 고정불변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문장들과 같다.

我刚刚把作业做完了。

나는 방금 숙제를 다 했다.

나는 숙제를 방금 다 했다.

방금 나는 숙제를 다 했다.

他已经把房间打扫干净了。

그는 벌써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

벌써 그는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

중국어에서 시간상황어의 부사는 주로 ‘已, 已经, 刚, 刚刚, 曾经, 才, 偶尔, 有时, 马上, 永远’ 등이 있다. 이런 단어는 문장의 위치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위의 예문 ④에서 ‘시간부사’는 이미 상황어로 주어와 술어 사이에 놓아야 하며, ‘春天已经到了……’로 고쳐야 한다. 예문 ④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벌써 봄이 왔다’이다. 한국어에서 ‘벌써’는 주어 ‘봄’의 앞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야기된 부사와 주어의 위치가 잘못된 오류이다.

79) 为了保证语料的真实性以及说明的针对性, 除了研究的对象以外, 笔者对类似这样的句子中存在的其它偏误不再另做说明。

80) 曾晓旭, 「韩中状语语序对比」, 『理论与实践』, 第7期, 2014, 9쪽.

韩国语中可作时间状语的副词主要有‘지금, 당장, 이제, 곧, 아까, 갑자기, 요즘, 이미, 벌써’等, 这些词在句子中可以自由移动。

81) 손남익, 「부사와 수식 구조」, 『어문논집』, 제34권, 1995, 249~283쪽.

한국학생들이 부사 상황어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어순오류의 원인은 다양하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모두 부사의 품사가 있는데, 문법의미가 같지 않음에 근거하여, 시간·어투·부정 등의 하위분류로 나뉜다. 설사 시간부사가 같다고 할지라도 그 위치는 서로 다른 언어에서 서로 다른 규칙이 있다. 한국어 부사의 위치는 매우 융통성이 있고 이동성이 있으며, 이런 이동성은 학생들에게 지대한 소극적 전이를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모국어의 문법규칙을 원용하여 모국어 중 부사의 위치 규범을 중국어의 표현에 대응시킨다. 총괄적으로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 영향은 한국학생들이 부사로 상황어 어순오류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2. 개사 상황어의 어순어류

중국어의 개사구는 문장 중 定语, 状语, 宾语 등의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흔한 상황을 상황어(状语)로 사용한다. 개사구와 중심어의 어의 관계에서 보면, 시간, 목적, 의거(依据), 범위와 원인의 개사구로 표시되고, 보통 문장 첫머리에 놓이는 수식어가 전체 문장을 통괄하며 문장 중에 놓여 상황어로 쓰인다. 피동, 처치(处置), 대상, 비교, 방식, 도구 등의 개사구로 나타나며, 보통 문장에서 상황어로 위치한다. 한국어는 교착어로 개사구는 문장 중의 위치에서 비교적 융통성이 있으며,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의 영향을 받아 한국학생들은 항상 개사구를 오류의 위치에 놓는다.

수집한 어휘자료로 보면, 개사구 상황어와 순서가 틀린 술어는 개사구 상황어 어순 오류가 주요 유형이다. 한국학생들이 항상 사용하는 개사는 ‘对’, ‘在’, ‘给’, ‘跟’ 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몇 개의 개사 구성의 개사구 오류율이 매우 높다. 한국학생들은 쉽게 상황어의 개사구를 보어의 위치에 놓는다. 이런 상황도 한국어의 상황어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으로 소극적 전이를 생성한다. 한국어의 개사구를 상황어로 충당할 때, 일률적으로 술어동사 앞에 위치하는데, 중국어 개사구는 상황어를 충당할 때, 술어동사 앞이나 술어동사 뒤에 위치한다.

1) 개사구 상황어와 술어 순서오류

중국어에서 상황어는 일률적으로 중심어 앞에 위치한다. 어떤 때에는 특수한 수사(修辞) 상의 필요에 따라 상황어를 중심어 뒤에 놓을 수 있다.⁸²⁾ 상황어가 뒤에 위치

하는 상황은 보통 문학작품에서 흔히 보게 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개사구 상황어를 문미(句尾)에 놓을 수 없다. 수집된 어휘 자료를 보면, 한국학생들은 관계, 목적, 대상, 원인, 비유, 방식 등의 표시를 위해 상황어를 문미에 잘못 위치시켰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다.

①*我们应该有责任意识关于保护环境。

关于保护环境，我们应该有责任意识。

환경보호에 대해 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②*现在我平时也用汉语说为了提高我的会话实力。

为了提高我的会话实力，现在我平时也用汉语说。

나의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나는 평소에도 중국어로 말한다.

③*吸烟是不好对个人健康。

吸烟对个人健康是不好。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건강에 좋지 않다.

④*希望能说汉语说得流利像我的朋友们一样。

希望能像我的朋友们一样汉语说得很流利。

내 친구들과같이 중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기를 원한다.

이상의 예문은 모두 일반적인 서술이며, 강조의 의미가 없고, 특수한 수사상의 필요도 없다. 예문 ① 개사 ‘关于’ 구성의 개사구가 화제에 속하여서 다만 문장 첫머리에 문장 첫머리 수식어로 놓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문장의 가운데에 놓일 수 있어서 예문 ①은 한국어 ‘...에 관하여’의 영향을 받아 문장의 중간에 놓여 소극적인 전이를 생기게 하였다. 예문 ② 개사구 ‘为了……’는 목적을 나타내는데, 문장 중간에 상황어로 놓일 수 있고, 문장 첫머리에 수식어로 놓일 수 있으나 보통 문미에 놓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역시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소극적 전이가 발생했다. ‘对’는 동작대상의 도입이다. 예문 ④ ‘像我的朋友们一样’은 비유 상황어가 되어 슬어동사 ‘说’의 앞에 놓아야 한다. 예문 ③과 ④의 어순은 비록 중국어 문법규칙에 맞지 않지만, 오히

82)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2004, 518쪽.

在汉语中, 状语一律位于中心语前。有时, 为了特殊的修辞上的需要, 可以把状语放在中心语后。

려 한국어 문법규칙에 부합된다. 그래서 예문 ①-④는 모두 한국어 소극적 전이의 영향을 받고 조성된 오류이다.

비록 한국어와 중국어가 서로 다른 유형의 어순에 속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순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주어가 술어 앞에 놓일 수도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어휘가 술어 동사 앞에서 상황어로 쓰이는 것들이 그렇다. 한국어는 SOV형 언어이며, 중국어는 SVO형 언어이며, 중국어 학습자 모두 이 사실을 알고 학습자가 한중 두 언어 사이의 어순 차이가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 전이(正迁移)는 생기지 않는다. 俞理明은 영한 어휘 공통점의 연구를 통하여,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는 유형학상 서로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 전이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⁸³⁾ 한국어와 중국어는 언어유형이 다르며, 한국어는 교착어형 언어이고 중국어는 분석형 언어이다. 그러나 어휘방면의 공통점은 적극적 전이를 생성시키며, 이 방면의 예문이 많다. 어순상의 공통점은 적극적 전이를 생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⑤*她们最后给我起了‘背叛者’的别称, 因为到最后我没跳跟她们。

她们最后给我起了‘背叛者’的别称, 因为到最后我没跟她们跳。

그 여자들은 결국 나에게 ‘배반자’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들과 끝까지 함께 뛰지 않았기 때문이다.

⑥*第二个是旅行日本⁸⁴⁾跟爸爸一起。

第二个是跟爸爸一起去日本旅行。

두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여행을 가는 것이다.

⑦*我想先当空中小姐工作在香港或者中国航空公司然后再学习以后当汉语老师。

我想先在香港或者中国航空公司当空中小姐然后再学习以后当汉语老师。

나는 먼저 홍콩이나 중국항공회에서 스튜어디스가 되고 그 후 다시 공부한 후 중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

⑧*所以我想学习汉语和教育学在大学。

所以我想在大学学习汉语和教育学。

83) 俞理明, 『语言迁移与二语习得』,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4, 175쪽.

学习者的母语和目标语在类型学上互不相关的情况下, 正迁移也可以发生。

84) 例6中‘旅行日本’受韩语中‘일본을 여행하다’的影响, 汉语中‘旅行’是离合词, 后面不能有宾语。在这个例句中, 受离合词的影响导致的偏误另当别论, 在这里不作考虑。

그래서 나는 대학에서 중국어와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다.

⑨*今天她请客, 我和几个朋友吃在朋友的饭店。

今天她请客, 我和几个朋友在朋友的饭店吃饭。

오늘은 그녀가 나에게 한턱낼 것이다. 나와 몇 명의 친구가 친구네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위 예문 ①-④의 오류 조성 원인은 서로 다르며, 위 예문 ⑤-⑨는 모국어전이로 인한 오류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문 ⑤-⑥두 예문의 개사 상황어 ‘跟她们’, ‘跟爸爸一起’는 각각 술어동사 ‘跳’, ‘去’ 뒤에 잘못 위치하였다. 예문 ⑦-⑨의 장소 상황어 ‘在香港或者中国航空公司’, ‘在大学’, ‘在朋友的饭店’는 각각 술어동사 ‘工作’, ‘学习’, ‘吃’의 뒤에 잘못 위치하였다. 사실 한국어에서 예문 ⑤-⑨ 중 개사 구조는 상황어의 어순과 한국어가 일치하여, 모두 술어동사의 앞에 놓였지만, 학습자는 이런 한중 언어 사이의 어순 공통점에 대해 오히려 느끼지 못하였다.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설령 문법규칙 일치에 전제 하에 어순의 공통점이 적극적 전이를 생성하기가 쉽지 않아도, 오히려 오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 개사구 상황어와 주어의 순서 착오

①*这件事对她很满意, 她高兴得好像孩子一样。

她对这件事很满意, 她高兴得好像孩子一样。

그녀는 이 일에 대해 아주 만족해하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 영향을 받아, 한국학생들은 중국어의 개사를 개사 목적어 뒤에 놓아 어순오류를 만든다. 문장 중의 ‘她’는 ‘满意’의 행위를 시작하게 하며, 주어는 ‘她’이며 개사 ‘对’는 동작의 대상 ‘这件事’를 끌어낸다.

②*从中国很多游客来济州旅行。

到很多游客从中国来济州旅行。

중국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제주에 온 것을 보았다.

많은 여행객들이 중국에서 제주로 온다.

많은 여행객들이 제주에 온다. 중국에서.

예문 ②는 개사구 상황어와 주어의 순서착오이다. 중국어의 개사구는 어의 관계가 다르면 문장 중의 위치도 서로 다르다. ‘从中国’은 주체 ‘很多游客’가 공간 변위(位移) 과정 중 경과한 장소를 나타내며, 마땅히 주어 ‘很多游客’ 뒤에 놓아야 한다.

중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개사구가 상황어가 되는 규칙이 존재한다. 중국어의 介詞句 상황어 위치는 비교적 고정적이며, 문장 첫머리에 놓아 전체 문장의 수식어가 되게 하든지, 술어동사 앞에 놓아 상황어가 되게 한다. 특별한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으면, 상황어로 쓰일 때 보통 문장의 끝에 놓지 않는다.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는 교착어이며, 주로 조사 첨가의 방법으로 문법 의미를 표현하며, 문장 중의 위치는 문장의미(句义)의 표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위 예문 ② 중 ‘중국에서(从中国)’은 한국어에서 위치가 자유로워 주어 ‘많은 여행객들(很多游客)’ 앞에 놓일 수 있고, 주어 뒤에 놓일 수도 있어서 예문 ② 역시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3) 개사구 상황어와 부정사 상황어 순서 착오

①*我本来对老师不想说这件事。

我本来不想对老师说这件事。

나는 본래 선생님께 이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예문 ①은 부정사 상황어 ‘不’와 개사구 ‘对老师’의 순서 착오이다. 한국어 대역의 ‘나는 본래 선생님께 이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에서 ‘본래(本来)’와 중국어 ‘本来’의 순서가 일치하여, ‘不想’과 ‘对老师’ 앞에 위치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선생님께(对老师)’는 ‘-지 않았다(不)’ 앞에만 위치할 수 있다. 한중 다항(多项) 상황어의 어순은 완전 불일치여서 한국학생들이 쉽게 모국어간섭을 받고 오류를 생성한다.

3. 조동사 상황어의 어순어류

현대 중국어에서 능원동사도 조동사(助动词)라고 불리며, 주로 가능성과 염원(意愿)을 나타낸다. 문장에서 조동사의 주요 기능은 술어동사 앞에서 표정과 정태(情态) 상

황어를 담당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작문 중에서 오류율이 가장 높은 조동사는 ‘应该’, ‘要’, ‘可以’ 등이다.

①*我们为了高考应该努力学习。

我们应该为了高考努力学习。

우리는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예문 ①에서 중국어의 조동사 ‘应该’는 상황어 ‘为了高考’ 때문에 앞에 둔다. 한국어 대역의 ‘우리는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에서 ‘수능을 위해(为了高考)’가 ‘-해야 한다(应该)’의 앞에 위치할 수 있고, 한중 다항 상황어의 어순은 완전히 상반된다. 그래서 한국학생들은 쉽게 모국어 간섭을 받고 오류를 만든다.

②*水是生命维持的根本，我们应该不能浪费水。

水是生命维持的根本，我们不应该浪费水。

물은 생명유지의 근본이며, 우리는 물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③*为了我们和社会，我们应该不吸烟。

为了我们和社会，我们不应该吸烟。

우리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중국어의 부정사는 일정한 부정 범위가 있고, 그 출현 위치가 다르며, 작용이 다르고, 표현하는 의미도 다르다. 부정사는 조동사 앞에 위치하며, 부정하는 것은 동작을 하는 사람의 염원 혹은 사건의 가능성이며, 부정사는 술어동사의 앞에 위치하고, 부정하는 것은 동작행위 자체이다. 한국어의 부정사는 통상 술어동사 가까이에 붙는데,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 영향을 받아 한국학생들은 종종 부정 동작자의 염원이나 사건 가능성의 상황어를 술어동사의 앞에 놓아 어순오류를 만든다.

예문 ②와 ③에서 부정부사 ‘不’는 ‘应该’의 앞에 놓아야 한다. 예문 ②와 ③은 부정사를 술어의 위치 가까이에 놓았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소극적 전이이다. 그래서 ‘不应该……’로 고쳐야 한다. 예문 ③ 역시 똑같은 문제이다.

④*你对他应该说“谢谢”。

你应该对他说“谢谢”。

너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

⑤*学汉语歌让我们可以放松一下。

学汉语歌可以让我们放松一下。

중국노래를 배우는 것은 우리들이 긴장을 좀 풀게 한다.

예문 ④과 ⑤는 모두 조동사와 대상 상황어의 어순오류이다. 예문 ④의 조동사 ‘应该’는 대상 상황어 ‘向他’ 출현보다 앞서야 한다. 한국어 대역의 ‘그에게(对他)’는 ‘~야 한다(应该)’의 앞에 놓을 수 있어서, 한중 다항 상황어의 어순이 완전히 상반된다. 그래서 한국학생들이 조동사 ‘应该’와 개사구 ‘对他’의 위치를 바꾼 경우이다. 예문 ⑤역시 똑같은 경우이다.

⑥*我先要说我的想法。

我要先说我的想法。

내가 먼저 내 생각을 말할 것이다.

⑦*还有我将来要陪你们世界旅行。

还有我将来要陪你们世界旅行。

나는 장래 너희들과 같이 세계여행을 할 것이다.

중국어에서 시간 상황어와 조동사 상황어의 어순은 비교적 융통성이 있다. 만일 시간과 동작의 어의관계가 밀접하면, 술어동사를 가까이 하여 조동사 상황어 뒤에 놓는다. 예문 ⑥은 ‘我要先说我的想法’로 고쳐야 한다. 만일 시간과 동작의 어의관계가 비교적 소원하면, 시간 상황어는 조동사 상황어 앞에 놓아야 하고, 문장 전체의 상황어가 된다. 예문 ⑦은 ‘还有我将来要陪你们世界旅行’로 고쳐야 한다. 한국어에서 시간부사 ‘먼저(先)’와 시간명사 ‘장래(将来)’는 위치가 자유롭다. 그래서 쉽게 한국어 모국어의 영향을 받고 전이를 생성한다.

4. 수량구 상황어의 어순어류

중국어의 수량구(数量短语)는 술어동사의 앞에 놓여 상황어가 될 수 있고, 술어동사 뒤에 놓여 보어가 될 수도 있으며, 수량구가 상황어나 보어로 쓰이는 것이 표현하는 의미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서 비록 보어가 있지만, 중국어 보어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⁸⁵⁾ 한국학생들이 글쓰기를 할 때,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 간접 및 목표어 지식 이해가 확고하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종종 보어의 수량구를 상황어의 위치에 놓아야 할 것을 상황어의 수량구 보어의 위치에 놓는다.

1) 시량구의 어순어류

①*我来学校明天中午12点。

我明天中午12点来学校。

나는 내일 정오에 학교에 올 것이다.

②*我们1个小时参观了。

我们参观了1个小时。

우리는 한 시간 견학했다.

③*参加模拟联合国的时候，一天我只三个小时睡了。

参加模拟联合国的时候，我一天只睡了三个小时。

모의 국제연합에 참여했을 때, 나는 하루에 세 시간만 잤다.

아래의 예문 (a)(b)과 같이, 중국어에서 시점을 표시하는 어휘는 보통 동사의 앞에 놓여 상황어가 된다. 예문 (c)(d)과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는 보통 동사의 뒤에 놓여 시량보어가 된다. 그리고 동사 뒤에 시량보어와 목적어가 동시에 나타나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시량보어의 개념이 없다. 아래 (a), (b), (c), (d)를 대역한 한국어에서 시점이나 시간이 어떠한지,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는 보통 술어의 앞에 두어 항상 상황어가 된다.

85) 这里参考了黄伯荣·廖序东『现代汉语』中对补语的定义。汉语的补语是动词、形容词短语里中心语后面的补充成分，而韩语的补语是补充说明主语的成分。韩语补语的定义参考了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2005.

(a) 爸爸晚上12点才回来。(时点、状语)

아빠는 저녁 12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b) 我下个星期回济州。(时间名词、状语)

나는 다음 주 제주에 돌아간다.(부사어)

(c) 我在中国待了一个月。(时段、补语)

나는 중국에서 한 달간 머물렀다.

(d) 我学了一个小时(的)汉语。(时段、补语)

나는 한 시간 동안 중국어를 공부했다.

시간과 시점은 한국어에서 모두 상황어로 사용하여 나타내며,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의 영향을 받아, 학생들은 중국어에서 시간과 시점을 나타내는 상황어와 보어가 차이가 없다고 쉽게 잘못 생각한다. 그중 예문 ①은 시점 상황어를 보어로 간주하였다. 예문 ②와 ③은 시간을 상황어로 간주했다.

2) 동량구의 어순오류

①*他每星期一次给家里打电话。

他每星期给家里打一次电话。

그는 매주 집에 한 번씩 전화한다.

②*去中国以后, 我两次到长城去了。

去中国以后, 我去了两次长城。

중국에 간 후, 나는 만리장성에 두 번 갔었다.

③*妈妈看了一下儿我, 却没有说话。

妈妈看了我一下儿, 却没有说话。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셨지만 오히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한국어에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수량사는 늘 동사 앞에 오지만, 중국어에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수량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와서 보어가 된다.⁸⁶⁾ 그러나 중국어의 두 가지 상황은 한국어에서 동량구가 상황어의 상황이 되는 것과 일치한다.

86) 白水振·李鐵根,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작문 클리닉』, 서울동양북스, 2012, 60쪽.

아래의 분석은 주로 白水振·李鐵根(2012)의 결론을 참고하였다.⁸⁷⁾

중국어에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수량사는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만 동사 앞에 올 수 있다.

(a) 어떤 동작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횟수를 강조.

武松三拳就把老虎打倒了。

무송은 단 세 방에 호랑이를 때려 눕혔다.

一趟就拉完了。

한 번에 다 날랐다.

(b) 동사 앞에 ‘曾经’, ‘又’, ‘再’ 등의 부사가 있을 경우.

他曾经两次访问过中国。

그는 중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었다.

他又一次强调了这个问题的重要性。

그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또 강조했다.

예문 ①에서 동량구 ‘一次’는 ‘打电话’가 발생한 횟수를 강조하는 동작이며, ‘打一次电话’로 고쳐야 한다. 예문 ②의 동량구 ‘两次’는 ‘去’의 횟수를 강조하는 동작이며, 술어동사 ‘去’ 뒤에 명사 성질의 목적어를 가져왔다. 보어로 쓰인 동량구는 보통 동사와 명사 성질의 목적어 사이에 놓아야 함으로 ‘去了两次长城’로 고쳐야 한다. 명사 목적어가 지명이나 인명일 때, 수량보어는 명사 앞뒤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예문 ②는 ‘去了长城两次’로 고칠 수 있다. 만일 술어동사 뒤에 대명사 성질의 목적어가 오게 되면, 보어로서의 동량구는 동빈구 뒤에만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예문 ③은 ‘看了我一下’로 고쳐야 한다.

위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어 동량보어의 용법이 한국어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도 서로 같은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완성 동작이 필요한 횟수 혹은 동사 앞에 있는 ‘曾经’, ‘又’, ‘再’ 등을 강조하는 부사의 경우에, 중국어와 한국어의 동량구 용법은 일치하며, 모두 동사 앞에 위치하여 상황어가 된다. 표기이론의 견지에서 보면, 서로 같은 부분은 무표기적이고, 쉽게 습득되며, 쉽게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동량구가 보어가 되는 경우에 중국어에는 많은 규칙이 있는

87) 白水振·李鐵根,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작문 클리닉』, 서울동양북스, 2012, 60쪽.

데, 이때 중국어 표기성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적 습득하기가 어렵다.

5. 소결

어순은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중점과 난점의 하나이다. 본 절에서 한국학생들 상황어 어순 습득 오류문제를 견주어 많은 상황어 어순오류 언어 자료를 고찰하였고,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상황어 어순오류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에, 어휘자료에 근거하여, 각각의 어순오류 모국어전이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였다. 비록 이 절의 연구대상이 상황어의 어순이었지만, 상황어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아니다. 결국 중국어 중의 기타 문장 성분과 각종 관계, 예를 들어 상황어와 주어의 위치, 술어와의 위치, 보어와의 위치 관계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상황어의 오류를 독립적으로 다룰 수 없다.

학생들의 작문 중 오류율이 가장 높은 상황어의 어순오류 분석을 통하여 필자는 아래의 결론을 이끌어 냈다.

첫째, 한국학생들은 부사를 상황어로, 개사구를 상황어로 사용할 때 어순오류율이 가장 높았고, 조동사를 상황어로 사용할 때 어순오류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수량사를 상황어로 쓰고 그 이외 다른 것으로 상황어로 만드는 어순오류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었다. 각 종류의 오류는 단항(单项) 상황어로 주어의 앞에 잘못 두는 것이 가장 전형적이다. 이 외에 상황어를 술어 뒤에 두거나 보어의 위치에 나타나는 것도 비교적 흔하였다. 다항 상황어의 순서오류 중에는 관련 상황어, 시간 상황어, 대상 상황어, 조동사 상황어, 부정사 상황어 등 오류율이 비교적 높았다.

둘째, 한국학생들 상황어 어순오류는 주로 어간전이(语际迁移)와 어내전이(语内迁移)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어는 SVO형의 언어이며, 흔히 풍부한 형태의 표기체계(标记系统)가 없고, 주로 분석수단에 의거하여 각종 문법범주를 나타내며, 어순을 충분히 이용하며, 형태가 문장의 주요 문법요소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한국어는 SOV형 언어로서 복잡한 형태 표기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형태 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문법범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는 문법 标记를 차용하여 그 语义 역할을 나타낼 수 있어서 문장 중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어순이 뒤바뀌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어의 어순은 소극적인 전이

의 영향을 받으며, 한국학생들은 상황어를 사용하여 어순오류가 비교적 두드러진다.

셋째, 중국어 어휘는 풍부하고, 상황어 종류는 대단히 많으며, 각종 상황어가 위치하며 문법규칙이 다르고, 목표어 자체의 난이도가 증가된 것이 한국학생들에게 상황어 어순오류의 중요한 원인이다.

한국학생들이 중국어 상황어를 습득하는 어순오류에 근거하여, 한국학생에 대한 중국어 수업에서, 교사는 우선 어순 수업의 효용(作用)을 중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중 두 언어의 대조연구를 잘해야 하며, 한중 어순 사이의 공통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적극적 전이(正迁移)의 효용을 발휘하고, 최대한 소극적 전이(负迁移)를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介詞句 상황어와 술어의 순서 착오를 분석할 때에, 处所词가 술어동사 앞에서 상황어가 되는 것은 한중 문법규칙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작문 중 학생들은 여전히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구 뒤에 술어의 위치를 둔다. 만일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면, 학생들은 당연히 반복하여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밖에 교사는 중국어 내부의 유사한 지식 포인트 사이의 대조(对比)를 유의하여야 하며, 학생들로 확고하게 목표어의 문법규칙을 이해하게 하며, 중국어 표기가 비교적 강한 문법 포인트를 견주어 교학의 중점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표어의 지식이 일반화되어 생기는 어순오류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모국어가 목표어에 대해 간섭하고 만드는 오류, 관련 어휘와 문법 등 방면을 간과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는 모국어전이가 모국어 소극적 전이가 제2언어 습득 과정 중에 불가피한 현상임을 표명했다. 그러면, 한국인의 중국어 수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모국어전이의 효용을 이용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피하여, 고등학생들의 중국어 작문 수준을 높일 것인가는 사고하고 탐구할 만한 과제다.

도대체 어떻게 중국어 학습 중의 모국어 전이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언어전이 생성 원인 분석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만일 진정으로 학생들의 중국어 작문 실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중국어를 이용하여 사유하는 능력을 높이고, 언어전이의 적극적 전이를 유용하게 이용하려면, 먼저 모국어전이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항상 들은 것은 어떤 중국어 교사가 학생들의 작문이 한국어 작문 형식이어서 이해는 하지만 표준적이지 않다고 하는 불평이다. 사실 이것은 모국어의 기초가 학습자의 언어교제 능력 중에 구현된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의 사상을 표현할 때에,

모국어의 지식을 빌려 문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이며, 중국어 습득 과정 중의 사고전략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국어전이의 적극적인 작용을 표명한 것으로, 즉 모국어는 사고 중 자신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비록 틀리고 표준적이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발화자로 타인과의 사상 교류하는 것을 기초 단계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국어 모국어를 빌려 중국어 학습 임무를 완성하거나 사고 목적을 이루는 이것은 일종의 방법이며 중국어를 배우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한국학생들이 중국어를 습득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오류가 불가피한 것이고, 모국어의 간섭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모국어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모국어의 적극적 전이 작용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발화중이나 글쓰기 중에 항상 각종 오류가 나타나는 것과 관계없이 이런 오류에 대하여 교사는 즉시 지적해야 한다.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를 지적하고, 왜 이렇게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현재 많은 한국의 중국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작문을 교정해 줄 때, 통상 오류를 표시만 하고 어떻게 고쳐야 옳은지 학생들에게 알려주지만 심층적으로 오류의 원인과 유형을 자세하게 지적해주지 않기도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틀린 것을 알지만, 틀린 것이 어떤 유형의 오류인지를 모른다. 만일 교사가 작문 중에 나타난 오류를 가르칠 때, 단지 어휘와 통사론 문제를 분석하고 오류에서 나타난 규율을 총정리하지 않고, 어떤 전략을 써서 소극적 전이가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교정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그 순간에는 자신이 틀린 것을 알겠지만 나중에는 다시 잊어버린다. 이것이 곧 항상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일으켜 학생들이 줄곧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어떤 고질적(頑固性的) 오류는 초급단계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중급단계에서 지속되고, 심지어 고급단계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악성 순환은 학생들이 제2언어를 습득하는데 아주 불리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심지어 중국어 사유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어휘나 문법 방면에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는 학생들의 작문 语料库가 특히 필요하다. 이 작문 오류 语料库는 학생들이 늘 상 보이는 어휘 사용 및 조합이 되지 않는 오류, 문법오류, 흔히 틀리는 어휘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주 오류를 나타내는지 알아야만 학생들이 작문에서 범하는 편향된 오류를 더 잘 예측하고 파악함으로써 평소에 수업에서의 重点과 难点을 확정할 수 있다.

중국의 언어학자 赵世开는 “두 언어구조의 대조를 통하여 언어의 구조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고, 나아가 언어의 본질을 알게 된다.”⁸⁸⁾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黄玉花도 “유형학 측면에서 보면, 한중 언어대조는 유형의 차이가 큰 언어 사이의 대조에 속한다. 형태가 풍부한 한국어로부터 중국어를 관찰하면, 중국어의 본질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⁸⁹⁾고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는 어휘와 문법 등의 방면에서 지대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국어의 사유방식과 규칙을 모방하여 중국어 작문 중 필연적으로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를 야기한다.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를 극복하는 유효한 방법이 곧 대조이다.

제2장 한국학생 작문 중 흔히 보이는 문법오류의 분석에 근거하면, 한국어 母语 사용자가 항상 모국어의 간섭을 받는 문법 항목이 있다. 즉, 조사 ‘了’, 개사 ‘对’, ‘给’, ‘从’, ‘在’, 부사 ‘还’, ‘再’, ‘又’ 및 상황어의 어순이다. 만일 모국어의 간섭을 쉽게 받는 이러한 문법항목을 출발기점으로 하여 대조를 진행하면, “관련이 있는 정합모델(匹配模式)을 향상시켜, 유력하게 모국어전이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⁹⁰⁾

이외 어휘 방면도 대조 방법을 한국학생들의 모국어와 중국어에 활용하여 대조할 수 있다. 대조하는 두 언어의 유의어는 언어의 성질, 어의(词义), 조합 대상과 문체 색채 방면이 다르며, 특별히 한중 어휘 중 유의어는 대등하지 않은 부분이다. 대조언어학의 이론 지식을 응용하여 한중 언어대조를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한국어 소극적 전이를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여 중국어를 배우는 모든 지식 포인트(知识点)의 이해에 대해 학생들을 강화시켜 기억을 심화시킨다.

중국어와 한국어 사이의 대조는 마땅히 한중 언어 차이점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한중 언어 사이의 공통점을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교사가 덮어놓고 차이성만 강조하면, 학생들은 모국어가 중국어 학습에서 소극적인 작용만 일으킨다고 여길 수 있고, 이러

88) 赵世开, 「浅谈英语和汉语的对比研究」, 『外国语教学』, 第3期, 1979, 160쪽.

通过两种语言结构的对比可以更好地认识语言的结构, 进一步认识语言的本质。

89) 黄玉花, 「汉韩语言对比研究的现实困境与路径选择」, 『吉林大学学报』(社会科学学报), 第3期, 2015, 151쪽.

从类型学角度看, 汉韩语言对比属于类型差异很大的语言间的对比, 从形态丰富的韩语反观汉语, 可以深化对汉语本质的认识。

90) 黄玉花, 「汉韩语言对比研究的现实困境与路径选择」, 『吉林大学学报』(社会科学学报), 第3期, 2015, 154쪽.

提炼出相关的匹配模式, 就能有力地解决母语迁移的很多问题。

한 오류관념은 그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모국어의 적극적 전이 작용 역시 중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일부 추상적인 의미의 어휘가 모국어 효과를 빌리면 비교적 좋은 것이다.

이밖에 중국어와 한국어는 문법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교사들도 한중 언어의 유사점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어는 술어 앞에 있고, 처소어(处所词)는 술어동사 앞에서 상황어가 되는 것 등,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에 자신감을 강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유사점을 충분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중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더욱 쉽게 학생들의 중국어 글쓰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글쓰기 훈련 중에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 내용을 적당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며, 학생들을 도와 순서를 따라 점차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 때문에 생성되는 각종 오류를 바로잡아서 학생들의 인지수준과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언어는 문화교류의 매개이며, 작문은 일종의 언어출력 형식이다. 그러나 입력이 없으면 어떻게 출력이 될 수 있는가? 외국어 고등학생들은 주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중국어를 접하는데, 그들은 수업시간에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훈련을 받고 수업시간에 중국어를 대화를 활용하는 것 외에, 평소에 중국어를 말하는 기회가 비교적 적으며, 하루 2시간 수업, 100분의 중국어 학습시간은 많은 시간이 아니다. 한국학생들이 중국어를 습득하는 언어환경은 수업시간에 국한되고, 언어의 입력은 갖가지 조건에 제한을 받으며, 게다가 고등학생들은 이미 언어습득의 최적 연령이 지나고, 하루 종일 한국어의 환경에서 생활하며, 매일 보고 듣는 것은 모두 한국어의 환경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 언어체계 및 한국어의 언어환경은 필연적으로 한국학생들로 하여금 모국어에 의존하게 하고, 이런 의존성은 당연히 모국어의 소극적 전이 현상을 초래하게 한다. 한정된 수업시간 내에 중국어 수업을 개선하려면 교사들이 가능한 한 각종 경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입력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탐색하게 하며, 서로 다른 중국어 자료를 채용하고, 생동하는 활발한 수업환경을 만들고, 중국어 언어입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시도할 수 있겠다.

듣기 방면에서, 교사는 표준어를 말하는 중국영화를 교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단락을 나눌 수 없는 것을 사용하여, 초점을 맞추어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0분

의 영화 한 편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고, 매번 수업할 때 학생들이 20분을 보게 한 후, 교사가 준비한 학습지⁹¹⁾ 근거로 학생들로 빈칸을 채우게 한다. 만일 영화에 나온 어떤 문장이 비교적 중요하다면, 학생들이 완전하게 다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것은 듣기 부분의 훈련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말하기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 20분의 단편 영화를 학생들이 들은 후 다시 말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듣기를 연습할 뿐만 아니라 말하기 표현도 연습할 수 있다.

읽기 방면에서 교사는 읽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정독(精读)과 범독(泛读)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교사는 좋은 교재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탐독하게 한다. 읽기를 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에게 상응하는 문화지식을 교육시킨다. 중국요리와 함께 중국의 명절 문화 등을 알게 한다. 읽기수업은 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에 맞는 개선을 할 수 있다. 현재 제주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예로 든다면, 이 학급 26명의 학생 중 10명의 학생은 중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을 했는데, 짧게는 3년이며 길게는 10년이고, 나머지 학생들도 대부분 HSK 4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래서 기존 교재가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다른 한국 선생님과 상의한 후 동화책으로 중국어를 배우는 새로운 교학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바로 한 학기 동안 동화 한 권을 골라서 읽는 것이다.『爷爷变成了幽灵』, 『小王子』등은 모두 좋은 읽기 교재이다. 위의 동화책에는 많은 단어가 있어서 학습지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읽게 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도 동화책의 내용으로 설명하며 얼마 동안 시행한 후에, 필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학습의 부담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있었다. 학생들이 이전의 수업시간에 비해 적극성이 뚜렷하게 향상되었고, 동화의 내용을 자신의 견해로 발표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한 학생이 외국어대학에 가서 참가한 말하기 대회 원고는 바로 자신을 깨우쳐준 『小王子』였다. 이 외에 필자는 중국어 학습자의 시각으로 쓴 어떤 작문을 읽기 자료로 했는데, 난이도가 적당하고 내용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요컨대, 읽기 방면은 교사가 다양한 방법을 채용하여 중국어의 어감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읽기 과정 중에 자료 이면의 중국어 사유방식 및 단어와 문장의 표현 방식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에게 중국어 습득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어휘는 언어의 기초이며, 또한 좋은 작문을 위한 전제이다. 만일 어휘양이 부족하면

91) 附录1은 笔者가 만든 이와 관련된 学习纸이다.

어떻게 조리 있고, 화려하며 우아한 문장을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휘수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의 어휘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어에는 많은 동형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동형어의 어의 확장, 축소 또는 언어 성질의 전환으로 인해 학생들이 작문 중에 많은 어휘오류가 나타났다. 한중 동형어는 비록 학습 과정에서 오류를 생성하지만, 이 부분이 가져오는 적극적인 전이 효과는 여전히 한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가진 것보다 독보적으로 우세하다. 그래서 교사는 가능한 한 이 장점을 이용하고, 학생들을 격려하며 한중 동형어의 특징을 이용하고 어휘를 확장하여 어휘 축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교사가 한중 동형어로 생성되는 소극적 전이 영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한자어가 소극적 전이 작용에서 생성하는 오류는 가끔씩 무의식적이다. 그래서 어휘 수업 중에 교사는 한중 두 언어 어휘의 ‘같고’, ‘다름’의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연구 성과를 교학 실천에 활용하고, 교학 방법을 조정하여, 학생들이 잘못 사용하기 쉬운 단어의 뜻을 제때에 발견하고 고쳐주어야 한다.

曹慧(2002)는 “언어의 규칙과 심리적 메커니즘은 문장 측면의 어휘 수업이 인지와 기억에 도움이 된다.”⁹²⁾고 지적하였다. 언어 환경(语境) 수업을 강화하려면 바로 언어 환경의 제약 때문에 어휘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서로 다른 언어 환경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어의를 표현해야 학생들에게 더욱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고, 간섭을 배제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언어의 학습과정은 하나의 입력으로 흡수되고, 다시 출력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 입력과 출력이 서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중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 언어의 출력은 학생들에게 언어 입력의 이해와 견고함(巩固)을 강화시킬 수 있고, 말하기와 작문은 언어 출력의 중요한 두 형식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어 출력 시에, 한국어의 사유방식에 의거하는 습관이 있어, 머리에서 등가의 의미가 있는 단어를 찾아 교환하여 분명한 한국어 색채를 띠고 있다.

매번 작문의 강평이 끝나면 교사는 자신이 쓴 작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학생들에게 격려했는데 외교 작문 수업의 수행평가는 바로 학생들이 모두 앞에서 자신의 작문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의 부족한

92) 曹慧, 「从留学生作文谈篇章层面的词汇教学」, 『语言文字应用』, 第2期, 2002, 95쪽.
语言习得规律和心理机制表明篇章层面上的词汇教学有助于认知和记忆。

점을 알게 할 수 있고, 발표를 통하여 말하기 표현 능력을 연습시킬 수 있다. 발표하는 학생은 매번 자신이 쓴 내용을 볼 수 없게 요구했기 때문에 어느새 학생들은 많은 것을 암송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는 또한 수업시간 전 5분을 학생들에게 주어, 학생들이 학번의 순서를 따라 매일 중국어를 이용하여 3분 자유주제 발표를 진행하는데, 강제성이 있어서 평소 늘 입을 열지 않던 학생들도 연습을 시킬 수 있었다. 다른 학생들도 당일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그날 발표자는 대답을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발표자 자신뿐만 아니라 반 전체 학생들도 연습을 할 수 있다.

중국어 작문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필히 쓰기 방면 연습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이 작문과정 중에 드러난 부족과 결합하여 맞춤형 훈련을 해야 한다. 작문의 주제에 대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상관이 있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주제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쓰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필자가 선택한 주제에는 ‘介绍一下济州岛的四季’, ‘介绍一个韩国的传统节日’, ‘给父母或朋友写一封信’, ‘高考以后的打算’ 등이 있다. 쓰기를 다 한 후에 시간이 있을 때, 학생들 사이에 서로 고쳐주게 하고, 끝으로 교사가 강평하고 보충 교정을 한다. 언어 형식과 언어 내용 방면의 오류를 고치는 것 외에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 중 긍정하고 찬양할만한 것이라는 것을 더 알아내야 한다.⁹³⁾ 작게는 낱말을 골라 문장을 만들고, 크게는 문장을 구성한다. 그리고 어떤 격려의 의미가 있는 평가를 잘 활용하여 학생들을 격려하여 글쓰기의 적극성을 향상시킨다.

93) 附录2,3.

IV. 결론

본문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작문에서 흔히 보이는 오류분석에 근거해서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모국어전이 성질의 어휘방면 전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어휘 성질 전이(词性迁移)이다.

언어유형으로 보면,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하여 그 자체가 복잡한 형태변화가 있으며, 어미변화로 문법상 성질과 시제를 구분한다. 한국어에서 한자 명사에 어미 ‘-되다’, ‘-시키다’, ‘-하다’를 덧붙이면 동사가 된다. 이것은 형용사에도 활용된다. 어떤 명사에 어미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어떤 형용사에 부사 어미 ‘-이’, ‘-히’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중국어는 고립어에 속하여 그 자체 형태변화가 없다. 그래서 중국어의 문법상 성질 표시(标记)와 시제표시가 아주 불분명하다. 이런 차이로 인해 한국 유학생이 어휘 문법상의 성질을 몰라 사용 중 오류를 만든다. 학생이 한국어의 문법상 성질을 답습하여 중국어에 가져오는 것은 항상 보게 되는 현상으로, 문법상 성질 전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문 중 학생들이 명사를 동사로 오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经验 / 同伴’ 등을 동사로 오용하고, 동사를 명사로 오용하는 것이다. ‘结婚’과 같이 동사를 형용사로 오용하고, 심리활동 동사인 ‘伤心, 感动, 害怕’를 형용사로 오용하는 것이다. 동시에 필자가 알게 된 것은 자동사의 타동사 오용 빈도수가 높는데, 주로 이합사의 사용 중에 그러하다. 예를 들어 ‘入学’, ‘毕业’, ‘旅行’, ‘请客’와 같은 경우이다.

둘째는 어의 전이(词义迁移)이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동형 유의 동사 사이에 복잡한 어의 관계가 교차된다(错综). 두 언어 중에는 단어의 의미가 같은 것이 있고, 교차하는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다. 이 때문에 중·고급단계 한국의 중국어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기 쉽다. 한중 동형어인 ‘小心’은 한중어휘체계에서 관련된 단어의 의미가 전이되는 한중동형어에 속한다. 예를 들면, 중국어의 ‘小心’이 가리키는 것은 ‘谨慎(근신)’과 ‘注意(주의)’이다. 한국어 ‘소심(小心)’이 가리키는 것은 ‘대답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다.

한국어에 새로운 한자어 생성이 중국어에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사이에 일대다(一對多)의 현상이 형성되었다. 한국어 한자어 ‘矚心’에 대응하는 중국어 어휘는 ‘矚心,’ ‘矚注,’ ‘興趣’이며, 한국어와 중국어 일부분의 어휘는 일부분 의미가 같고, 일부분 의미가 다른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 ‘文章’의 의항이 한국어 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뜻을 파생시키지만, 한국어 한자어 ‘文章’에는 중국어의 ‘文章’이 가진 그런 뜻을 단 하나의 문장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중 의미항 대응이 불일치하여 조성된 모국어전어이다.

모국어전이 성질의 虚詞 方面 전어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介詞 方面의 주요 표현은 ‘在,’ ‘到,’ ‘从’의 혼용이다. 한국어 ‘에게’의 영향을 받아 ‘給’과 ‘對,’ ‘向,’ ‘跟,’ ‘让,’ ‘使’를 오용하고 있으며, 중국어 개사와 한국어 부사격조사 사이의 ‘多對一’ 대응관계가 오류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밖에 한중 두 언어의 어떤 동사는 성질이 달라서 개사를 추가로 잘못 사용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둘째, 副詞 方面의 주요 표현은 ‘也’나 ‘还’을 주어의 앞에 잘못 놓는 경우이다. 또 ‘再’와 ‘又’의 혼용이 있고, ‘都’를 누락시키는 일도 많다.

셋째, 助詞 方面의 표현은 현재 한국어의 반복 습관을 나타내는 ‘-었’에 대한 ‘了’의 전어에서 나타나고, 한국어의 과거 상태를 나타내는 ‘있’에 대한 ‘了’의 전어로 나타난다. 한국어의 과거 완성을 나타내는 ‘있’에 대한 ‘了’의 전어, 한국어 미래 완성을 나타내는 ‘있’에 대한 ‘了’의 전어 그리고 한국어 과정 부정문 대 중국어의 ‘了’의 전어에서 나타난다.

중국어 조사 ‘了’의 오류는 주로 학생들의 모국어 時/體 표기를 가져오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국학생들은 중국어 학습 과정 중 한국어의 무표기향을 중국어의 유표기향에 대응하여 소극적 전어를 생성시킨다. 중국어에는 體표기는 오히려 무시(無時) 표기이고 시간 개념은 주로 어휘와 문장 중의 기타 성분을 사용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학생들은 중국어의 體표기도 한국어의 時/體표기와 똑같이 시간의 문법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한국학생들이 한국어의 時/體표기와 중국어의 體표기와 시간개념의 단어 차이를 항상 줄인다. 또한 ‘了’를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주로 학생들이 작문 중에 회피전략을 채택하여 실수를 줄이려고 고의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모든 어순오류 중 상황어로 인한 오류가 가장 많고, 상황어 어순 오류 중에는 한국 학생들이 부사를 상황어로 사용하고, 介詞句를 상황어로 사용하는 어순오류가 가장 많으며, 조동사를 상황어로 쓸 때의 어순오류가 그 다음이며, 수량사를 상황어로 하는 것 그리고 기타를 상황어로 쓰는 어순오류는 상대적으로 적다. 각종 오류는 단항의 상황어를 주어의 앞에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전형적이다. 그밖에 상황어는 술어의 뒤에 위치시키고, 보어의 위치에도 비교적 자주 보인다. 다항 상황어의 잘못된 순서는 관련 상황어, 시간 상황어, 대상 상황어, 조동사 상황어, 부정사 상황어 등 오류율이 높다. 이 외에도 설령 한중 문법규칙의 일치됨을 전제해도, 어순의 공통점이 적극적인 전이를 생성하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오류를 생성함을 필자가 알게 되었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찾아냈다. 한국 학생들이 중국어 학습 중 모국어에 의존하는 정도는 특정한 언어 구조 표기성에 달려 있는데, 한국어의 무표기(无标记项)와 유표기(有标记项)에 비해 더욱 쉽게 전이가 발생한다. 한국학생의 중국어 문법 학습 시에, 항상 모국어의 동태조사(중국어의 ‘了’에 해당), 위격조사(중국어의 ‘在’), 여격조사(중국어의 ‘给 / 对’) 등의 영향을 받아 어간상의 오류를 발생시킨다. 비교와 분석을 통해, 찾아낸 이러한 한국어 조사는 상관된 중국어의 문법항목과 비교하여 대부분 넓게 분포되고, 문법 의의가 넓고, 사용 빈도가 높으며, 통상 무표기항에 속하는데 비해 중국어 규칙은 상반되어 유표기항에 속한다.

요컨대 모국어전이는 두 언어 수업 중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모국어전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업 중에 의식적으로 전이이론의 성과를 수업에 응용해서 소극적 전이의 영향을 낮춰야 한다. 중국어 작문 수업 중에 한중 언어대조를 중시해야 하며, 오류가 나타나는 유형을 총결산해야 한다. 평소의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의 언어 입력과 언어 출력의 결합을 강화하고, 작문 오류자료를 모아 데이터화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학생들의 작문에서 모국어전이 성질의 오류 수를 낮추고, 학생들의 중국어 작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가나다순, 알파벳 순 및 연대순

【书籍类】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면 개정 한중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5.
- 남궁양석, 『현대 중국어 어순의 정보구조와 초점』, 한국학술정보(주), 2008.
- 白水振·李鐵根,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작문 클리닉』, 서울동양북스, 2012.
- 서정수,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사, 1996.
- 황옥화,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오류분석』, 한국학술정보(주), 2008.
- 储泽祥, 『现代汉语方所系统研究』, 华中师范大学出版社, 1997.
- 戴耀晶, 『现代汉语时体系统研究』, 浙江教育出版社, 1997.
- 傅雨贤·周小兵等, 『现代汉语介词研究』, 中山大学出版社, 1997.
- 高远, 『对比分析与错误分析』, 北京航空航天大学出版社, 2002.
- 黄伯荣·廖序东,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1991.
- 金昌吉, 『汉语介词和介词短语』, 南开大学出版社, 1996.
- 刘珣, 『对外汉语教育学引论』,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0.
- 刘珣, 『汉语作为第二语言教学简论』,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2002.
- 任雪梅, 『外国留学生汉语离合词偏误分析』, 『汉外语言对比与偏误分析论文集』, 北京大学出版社, 1999.
- 韦旭升·许振东, 『韩国语实用语法』,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1995.
- 俞理明, 『语言迁移与二语习得』,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4.
- 柳英绿, 『朝汉语语法对比』, 延边大学出版社, 1999.
-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2004.
- 张斌等, 『现代汉语描写语法』, 商务印书馆, 2010.
- 张谊生, 『现代汉语副词研究』, 学林出版社, 2000.

朱德熙, 『定语和状语』, 上海教育出版社, 1958.

【论文类】

- 김경천, 「중국어화자의 한국어 쓰기 오류실태」, 『중국문화연구』(13), 2008.
- 박덕준, 「중국어 작문의 오류 분석 및 교수 모델의 구상」, 『중국어문학』, 제22권, 1993.
- 박덕준, 「对韩国学生的写作教学策略」, 『중국문학』, 제49집, 2006.
- 박태숙·오치성,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because 사용에 관한 모국어전이 효과」, 『언어학연구』(39), 2016.
- 백이연, 「일본어 작문에 나타나는 모어의 영향-한국인 학습자의 의미 전이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제89집, 2014.
- 손남익, 「부사와 수식 구조」, 『어문논집』, 제34권, 1995.
- 손정애, 「HSK작문 답안을 통한 중국어 어순 오류 분석」, 『중국문학』, 제63권, 2010.
- 신봉수, 「영어 관용어 학습에 있어서 한국 EFL 학습자의 모국어 전이와 이해책략에 관한 연구」, 『신언어영문학』, 27호, 2004.
- 신성철,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문법 오류와 교육적 시사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36권, 2010.
- 윤유정,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속 응결장치 오류 분석」, 『중국 언어연구』, 제78집, 2018.
- 이경휘, 방건춘, 백지영, 「한국인 화자의 중국어 통사 오류 유형 분석-대학교 중급 중국어 학습자의 구어 오류 실례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85), 2018.
- 이미영, 「오류분석을 통한 중국어 작문 지도방안 연구-허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승아,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과수동화 오류-모국어 전이 효과 재고찰-」, 『영어학』 11(4), 2011.
- 이정숙, 「부사 ‘也’의 통사적 위치 오류 분석-〈HSK動態作文語料庫〉를 基礎로-」, 『중국어문학』, 제58권, 2011.
- 이혜진, 「대학 신입생의 영작문에서 나타난 오류 분석 연구」, 『코기토(Cogito)』(83),

- 2017.
- 이효영, 「오류 분석을 통한 중국어 쓰기 교육 개선 방안」, 『중국 언어연구』, 제45권, 2013.
- 정윤철,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공간표현 대조분석-한→중 작문오류를 중심으로-」, 『中國研究』, 제39권, 2005.
- 제해성·황일권, 「초급 단계의 중국어 작문에 나타난 문법적 오류 실례 및 원인 분석」, 『중어중문학』, 제33권, 2003.
- 최정인,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모국어 전이에 관한 연구」, 『영어학』16(2), 2016.
- 曹慧, 「从留学生作文谈篇章层面的词汇教学」, 『语言文字应用』, 第2期, 2002.
- 崔立斌, 「韩国学生汉语介词学习错误分析」, 『语言文字应用』, 2006.
- 曹秀玲, 「汉语'这那'不对称性的语篇考察」, 『汉语学习』, 第4期, 2000.
- 陈奕帆, 「韩国学生汉语写作语序偏误研究」, 湖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 崔贤美, 「针对韩国留学生的汉语写作教学研究」, 北京语言大学 硕士学位论文, 2009.
- 傅雨贤, 「副词在句中的位置分布」, 『汉语学习』, 第3期, 1983.
- 葛丽莲, 「母语迁移对中国学生英语表达的影响-大学英语写作典型实例分析」, 『首都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4期, 2003.
- 韩容洙, 「对外汉语教学中的介词教学」, 『汉语学习』, 第12期, 1998.
- 何丽香, 「基于高等HSK作文语料库的韩国学生“在+处所”偏误分析」, 南京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 何婉, 「对韩国学生汉语写作教材编写及教学的探讨」, 『教育与教学研究』, 2012.
- 何薇, 「对象类介词向的分析与教学」, 『湖北社会科学』, 第12期, 2006.
- 黄玉花, 「韩国留学生汉语趋向补语习得特点及偏误分析」, 『汉语学习』, 第4期, 2007.
- 黄玉花, 「汉韩语言对比研究的现实困境与路径选择」, 『吉林大学学报』(社会科学学报), 第3期, 2015.
- 黄卓明, 「从外国留学生书面表达各类错误出现频率的分析中谈中级汉语教学」, 『郑州大学学报』, 第4期, 1992.
- 寄化龙, 「中韩同形词正负迁移初探」, 『汉语学习』, 第1期, 2000.
- 金立鑫, 「成分的定位和状语的顺序」, 『汉语学习』, 第1期, 1988.
- 金贞林, 「韩国学生的汉语语用偏误分析及教学建议——以“请求”、“拒绝”、“道歉”为例」,

- 山东大学, 2011.
- 贾晓露, 「基于HSK动态作文语料库的韩国学生“被”字句习得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 姜俊峰, 「对韩中级汉语写作教学现状与对策」, 东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5.
- 姜泰希, 「韩汉两种语言中汉字词的比较」, 北京语言文化大学, 2000.
- 康焯, 「韩国学生汉语书信写作案例分析」, 湖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 李金红, 「国外主流写作理论对我国外语写作教学的启示」, 『国外外语教学』, 第2期, 2006.
- 李晶, 「简论韩国留学生的汉语写作偏误及其教学」, 陕西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
- 刘明章, 「语音偏误与语音对比—谈朝鲜人汉语语音教学问题」, 『汉语学习』, 第5期, 1990.
- 李勤, 「语言迁移视角下大学生英语写作中的介词研究」, 『天津外国语大学学报』, 第4期, 2013.
- 林妍芝, 「韩国大学中文系中级汉语写作课教学设计」, 山东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 刘枫, 「从HSK同素逆序词看对外汉语词汇教学」, 『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 第3期, 2007.
- 刘菊玲, 「英语写作中的迁移错误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2005.
- 鲁健骥, 「外国人学习汉语的词语偏误分析」, 『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1987.
- 毛向樱, 「对外汉语教学中副词“都”的用法」, 『淮北师范大学学报』, 第12期, 2013.
- 孟祥英, 「谈对外汉语教学中的近义词辨析」, 『天津师大学报』, 1997.
- 孟桂兰, 「从中韩学生的作文看中韩文化的互补与融合」, 『青岛大学师范学院学报』, 1995.
- 朴珍珠, 「韩国学生词汇知识与汉语写作的相关性研究」, 北京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 秦思, 「对韩汉语词汇教学中韩国汉字词的迁移作用及教学策略」, 黑龙江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 全香兰, 「汉韩同形词偏误分析」, 『汉语学习』, 第4期, 2004.
- 尚清, 「韩国学生汉语叙述体语篇“零形指称”现象研究」, 华侨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
- 商悦, 「韩国学生作文中典型偏误分析」, 『旅游纵览』(下半月), 2013.
- 唐仁芳, 「大学生英语写作中的母语负迁移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8.
- 王光全·柳英绿, 「同命题“了”字句」, 『汉语学习』, 第3期, 2006.
- 王文楠, 「叙述和议论语篇中的省略研究及韩国学生的偏误分析」,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2011.

- 王一宁,「基于HSK动态作文语料库的韩国留学生“了”的习得偏误分析」,渤海大学 硕士学位论文,2016.
- 文炼·胡附,「汉语语序研究中的几个问题」,『中国语文』,1984.
- 徐嘉婧,「中高级阶段韩国学生汉语写作语篇衔接偏误分析」,黑龙江大学 硕士学位论文,2015.
- 徐建宏,「汉语助词“了”与韩国语词尾“-았”的对比」,『辽宁大学学报』,2004.
- 徐丽华·谢仙丹,「韩国留学生习得的“了”的偏误分析及教学对策」,『浙江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2期,2009.
- 肖奚强,「韩国学生汉语语法偏误分析」,『世界汉语教学』,第2期,2000.
- 扬中华,「母语迁移对英语写作的影响」,『教学与管理』,第3期,2009.
- 禹恩映,「基于任务型教学法的韩国汉语写作课设计」,山东大学 硕士学位论文,2011.
- 袁毓林,「多项副词共现的语序原则及其认知解释」,『语言学论丛(第二十六辑)』,商务印书馆,2002.
- 周小兵,「语法偏误类别的考察」,『语言文字应用』,第4期,2007.
- 曾晓旭,「韩中状语语序对比」,『理论与实践』,第7期,2014年.
- 张会平,「基于语料库的中国学习者英语概念迁移研究」,东北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2013.
- 张娟,「韩国学生初级写作中的偏误及教学建议-以韩国分院为例」,『商业故事』,2015.
- 张娟,「渤海大学韩国分院汉语初级写作偏误情况分析」,渤海大学 硕士学位论文,2016.
- 张信强,「基于HSK动态作文语料库的“韩国学生”汉字书写的偏误研究」,鲁东大学 硕士学位论文,2015.
- 赵健,「试论母语对中国大学生英语写作中句法结构的影响」,陕西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2004.
- 赵世开,「浅谈英语和汉语的对比研究」,『外语教学』,第3期,1979.
- 赵政,「语言迁移对中国学生英语写作的影响」,西安电子科技大学 硕士学位论文,2007.
- 周小兵,「语法偏误类别的考察」,『语言文字应用』,第4期,2007.
- 周毅敏,「浅析语用迁移的表现」,『广西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30卷,2008.
- 赵扬,「韩国学生汉语词语习得研究」,『世界汉语教学』,第3期,2011.
- 朱静芬,「语言迁移对二外学习者英语写作的影响」,『外语教学』,第1期,2000.

【其它】

北京语言大学HSK动态作文语料库

汉典 <http://www.zdic.net/c/8/6c/105906.htm>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ABSTRACT

Among the four basic skills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in Chinese learning, writing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complicated and difficult skill to master. The complexity of Chinese writing has made Korean students' Chinese writing often plagued by mistakes. Among the many factors that lead to errors, mother tongue transfer has attracted more and more attention in recent years. Due to the interference of negative mother tongue transfer, students are unable to use the Chinese knowledge they have learned to write Chinese correctly. Among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the influence mechanism and solutions of negative mother tongue transfer are analyzed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thesis mainly adopts the theory of bias analysis, mainly taking the Chinese composition of Jeju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tudents as the research object and combining the dynamic composition corpus of Beijing Language University to explore the types and causes of Korean students' errors in Chinese composition, revealing the negative transfer of mother tongue to students.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Chinese writing with purpose of reducing and overcoming the influence of negative mother tongue transfer on students' Chinese writing and putting forward teaching strategies to develop students' Chinese writing abili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ias caused by the factors of mother tongue transfer in the Chinese composition of the students, the paper finds that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homographs in Korean is easy to lead to errors in the part of speech, meaning, collocation, and style. The grammatical aspects of the bias caused by the nature of mother tongue transfer are unbalanced: prepositions with high bias rate (‘对’, ‘给’, ‘从’, ‘在’), adverb (‘还’, ‘再’, ‘又’, ‘都’), auxiliary words (‘了’) and word order we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analysis, this paper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negative mother tongue transfer in Korean Chinese essays.

The vocabulary used is main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native Korean language, the intersection of mother tongue and target language, the interpretation of reference books, and coinciding grammar aspects of Chinese and Korean. The correspondence of language grammar items is inconsistent. In particular, Korean adverbial auxiliary words are more widely distributed than Chinese-related grammar items. They are widely distributed, have wider grammatical meaning, and are frequently used, causing students' essays to be prone to errors. Unmarked items that are usually untagged to Korean are more likely to migrate than marked items.

At the end of the thesis, the author discusses how to use the role of mother tongue transfer to avoid disadvantages and improve the Chinese writing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The paper proposes to correctly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mother tongue transfer. In 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of negative mother tongue transfer in high school students' Chinese writing, we should make targeted solutions in Chinese teaching, including paying attention to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Chinese and Korean languages, summing up the language bias and, in the usual classroom teaching, strengthening the combination of students' language input and language output, and establish a corpus of essay bias.

부록

1.

관련단원	汉语会话2 微电影《车四十四》。	
학습목표	掌握电影中出现的常用表达和语法。	
공부한 날	20 년 월 일 요일	2학년 중국어 반 ()번 이름 ()

男乘客:谢了,我在这儿都等了两个多小时了。

女司机:没事儿。

男乘客:我能抽根烟吗?

女司机:你抽你的。 (抽chōu 피우다)

男乘客:这不是你吧?

女司机:减肥了嘛。

男乘客:替别人班儿。你这车还挺新的。 (替tì 대신하다)

女司机:找个地儿坐吧。喂,他怎么了?

(여기 양사 수가 들어가서 부드럽게 바뀌는 어감을 확인합니다)

歹徒1:把钱都他妈掏出来。(他妈는 전형적인 중국욕입니다, 掏tāo 끄집어내다)

歹徒2:听见没有!

歹徒1:你们丫是不是都耳聋啦?全都给我撸下来!快点!快点!……

(耳聋ěr lóng 撸lū 훑다. 걷다)

歹徒2:你,钱,快点!手表!快点!你,掏钱,快点!……这混蛋不给钱。

歹徒1:谁啊?你是不是找死啊你?

女司机:不会,不()麻烦。你还是把钱给了吧。(找麻烦:성가시게하다,페를끼치다)

歹徒1:还有谁想惹麻烦?我就把谁给办了!(惹rě 야기하다,기분을 건드리다.别惹我!)

歹徒 2:快点儿走吧, 啊。

(명령문과 금지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재촉이나 어떤일이 당연하다는 기분을 나타냄.)

女司机:干嘛?你干嘛?我不是把钱都给你了吗?救命啊! (救jiù)

歹徒 2:都不许动啊! (许xǔ 허가하다)

女司机:我求你放过我好吗?

(放过: 한번 봐주다. 我不会你的。)

男乘客:怎么都坐着呀?

歹徒 2:你他妈找死啊你。

男乘客:您没事儿吧?对不起啊。

女司机:下车! 你给我下车。

(명령문의 어기를 나타낼 때에 “给 +명사” 를 사용할 수 있다.)

男乘客:为什么呀!我刚才可是唯一下车救你的人。 (唯一wéiyī 유일한)

警 察:你们两个上去!上边儿上去!

呼叫声:B2, 请确认车号。

警 察:AD1,B2两叫。我们看到的是四十四路。

呼叫声:救护车已经出发了。

警 察:怎么着了?刚确认, 车上所有的乘客和司机都没气儿了。

(没气: 숨이 끊어지다)

(怎么着了: 怎么样。例如: 你爸爸的病怎么着了?)

2.

관련단원	汉语作文		
학습목표	能用汉语表达自己的爱好		
공부한 날	20	년	월 일 반 ()번 이름 ()

13.我开始学弹钢琴的理由是因为打赢跟我小时候的对手的竞争。

⑭学弹钢琴以后我很高兴地时候或者悲哀的时候都用它表现了我的感情。

15以后我停止上钢琴补习班在家继续弹的时候。

16.我从在英语音乐剧社团以后，产生了对音乐剧很感兴趣。

17.它的雄壮让我兴奋，还有给我很感动。

18.从小时候开始的我的梦是糕点面包师。

19.你们的爱好是什么?如果没有爱好的话，现在也不慢。

20.现在向你问一问吧：“你喜欢什么活动？”

21.我希望大家都能经常抽出自己的兴趣爱好。

22.所以我可以感到了更多的成就感。

23.我们在宿舍里生活。所以有很多空闲时间是很难。

24.我经常回家做我的爱好过时间。

1.因为看电影的时候，可以忘掉不愉快的事情，开心地享受快乐。 --○수

2.我还喜欢读推理小说，小说到最后逆转加逆转让我的心脏跳得很快，所以我有一瞬间想当侦探，但最近我觉得爱好只是爱好。 --○민

3.

관련단원	汉语作文					
학습목표	能用汉语表达自己的爱好					
공부한 날	20	년	월	일	요일	반 ()번 이름 ()

25.初中的时候我经常去网吧玩儿游戏。但是，我玩得很多，妈妈生气了我。

26.小时候，我跟妈妈上学一个学校。因为妈妈是老师，所以我每天在教室里等了她的下班。

27.读书是不仅我的爱好，而且成为习惯。

28.我小的时候，我有了很多爱好有得感到自豪。

29.我还记得为了比朋友打字打得更快。

30.刚开始我很胖了。我妈妈看我身体以后决定了让我去篮球补习班。

31.所以最近我找看中国电影。

32.我希望合格决赛第一名。

33.上个星期，考完以后，我做了我的爱好。

34.从小时候我对运动有了很大的关心，一开始我没有对很多运动都感到兴趣。

- 1.没有什么可做的时候，我常常自己弹钢琴。 --○희
- 2.电影开阔了我的眼界，所以我每个星期至少看一部电影。 --○진
- 3.对我来说，看电影是一个可以跟爸爸一起交流的时间。 --○환
- 4.我的三个兄弟说我做的菜非常好吃，也许我遗传了爸爸的做菜天赋。 --○주
- 5.我是电视剧迷，每天晚上十点都是我看电视剧的固定时间。 --○연
- 6.看完以后，我会带走电影的宣传海报，收集宣传海报是我的爱好之一。 --○완

4. 介词오류자료

1. 他们的旋律，歌词给我轻松愉快。
2. 因为济州岛的天气比较暖和，所以对橘子养的环境很合适。
3. 教孩子们的时候，自己也有很多学习的地方对孩子。
4. 我在公共汽车上捡到你的钱包，我怎么给你还。
5. 我[]保证老师，明天我一定要不迟到。⁹⁴⁾(我向老师保证)
6. 我给那个人说，你不行做这样。
7. 我[]自豪我的家乡。
8. 我从来给爸妈没有写过信。
9. 吸烟是不好对个人健康。
10. 现在想起来我去年[]留学的时候，常常给你们打电话。
11. 今天考试地点[]外国语大学，我[]这里很陌生。
12. 我很健康，很用功而且过得比[]韩国还愉快得多。
13. 现在父母都希望自己的孩子[]社会上有所成就。
14. 父母和子女之间[]很不同的环境里成长的。
15. 我以前[]报纸上看过。
16. 所以在商店里去看，大多数农产品写是'绿色食品'。
17. 她回答说：“在釜山来的。”
18. 在大学毕业以后，我想在出版社翻译办公室工作。
19. 在教室里有很多书。
20. []这样的情况下我真受不了，于是对父母发脾气。
21. 这样，很多人[]一起生活的情况下……
22. []我的各种努力中，我要介绍一下我生活的一部分。
22. []这过程中，最重要的是互相努力。
23. []我的记忆中，妈妈总是鼓励我。
24. 他们是肯定比我经历得多各个方面。(在各个方面)

94) []부분에 개사가 누락되어 있다.

25. 从我小的时候[], 我就喜欢跟爸爸看电影。
26. 从小时候[]我对运动有了很大的关心。
27. 从我小时候[], 我喜欢很多歌手。
28. 从小时[]我非常喜欢看电视剧或电影。
29. 我从中学生[]非常关心社会问题。我从中学时起
30. 我从小孩子的时候学了英语。
31. 这个问题应该先从国家起解决。
32. 我从在英语音乐剧社团以后, 产生了对音乐剧很感兴趣。
33. 我从她[]学习了自己的独立性。
34. 从这篇[]文章学了很多事情。
35. 随着现代文明的发展, 我们从各种媒体[]很容易获得多样的信息。
36. 我觉得当军队的厨艺师会对我带来很大的帮助。
37. 其中对我留下了最深刻的印象的地方就是桂林。
38. 但, 平平凡凡的他, 对我留下了不同寻常的印象。
39. 香港对我的印象是……。
40. 那时候应该给您们写信但我没写信对您们对不起。
41. 对这样的情况我对父母真对不起。
42. 我总觉得对爸爸很对不起。
43. 我也对他们很感谢。
44. 所以对父母非常感谢。
45. 我给老师问了问题。
46. 朋友给我告诉了那件事。
47. 老师给我们教汉语。
48. 现在我介绍给大家我的城市。
49. 我说说我的想法给你。
50. 今天上午我找到了老师给她交作业。
51. 因为绿色食品给人们的身体有好处。
52. 虽然人们知道吸烟给身体有害, 但不断地吸烟。
53. 我不会给你们失望的。

54. 我认为流行歌曲不但给人们高兴而且是一个很好的休闲爱好。
55. 虽然社会的发展给人类的生活方便了很多。
- 56.为了解决这种问题，最主要方法就是先进的国家要主动地给贫穷国家伸出援助之手。
57. []中国旅行的时候，我接触到了中国的文化。我接触到了中国的文化，所以我对我的梦想进了一大步。
58. 那时候他对中国收到了好的印象。
59. 那时候我决定了要帮助困难地生活[]这个世界的人。
60. 跟你们看我的进步，包括我的发音和作文能力等等。
61. 在亚洲运动会[]连续三次成为冠军。(在……上)
62. 刘翔在跳上障碍物的时候，再一次在腿上受了伤。
63. 调查历史韩国跟中国是从很久[以前][]交流了。(从……开始)
64. 我每天觉得笑脸最漂亮，所以我每天给朋友们称赞。
65. 峻赫你好，你在运动会[]踢足球得很棒!(在……上)
66. 那时候我们都太饿了，所以在十一点吃了晚饭。从十二点我们去了网吧，我觉得没有意思，但是준혁和준수到三点一直玩游戏了。
67. 最后貌来里有난드르村子。난드르对游人受欢迎。
68. 我要写对朋友谢谢的事。
69. 我的梦想是文化市场专员。我想成为对我的中国文化的关心和‘文化’的兴趣结合。
70. 结果现在在QQ[]我交了很多中国朋友。(在……上)
71. 我跟朋友聊天关于外国语（特别英语）以后，我能发现他们的共同点。
72. 我平时的爱好是[]写作有关。
73. 我想问[]现实和理想转来转去的世界里我要持有什么态度。
74. 通过NIE活动，可以增加对关心领域的背景知识。
75. 当我成为教师的时候，学心理学，社会学，行政等我想告诉多样的知识给学生。
76. 我知道了这些对我的价值观的形成受到了很大的影响。
77. 有的时候，我换电影的内容。比如说，在电影[]主人公死，但是在我的想象[]没死。(在……中)
78. 我喜欢很多歌手，所以我加入了舞团体，我在庆典[]演出了很多次。(在……上)
79. 我特别喜欢看电影，电影给我大的认识。

80. 在我喜欢的电影中我最爱的是‘阿让’，这部电影是音乐片形式，在‘阿让’演员唱歌唱得让我感动了。
81. 我偶尔制作蜡烛给礼物。
82. 如果没有爱好的话，现在也不慢，现在向你问一问吧：“你喜欢什么活动？”
83. 看电影让我很舒服还有对我很感兴趣。
84. 昨天，我对公司请五天假
85. 我对朋友们保证了那朋友一个小时以后来。
86. 我特意[]买了他的礼物。他很感谢我了。（给他买了礼物）
87. 她说：“我在公共汽车上捡到你的钱包。我怎么给你还这个？”
88. 可是路上堵车，师傅保证我不迟到。（应该修改为‘向我保证’，遗漏了介词‘向’）
89. 医生说：“你别吃辣的！”[]那以后，我每天按时吃饭。
90. 所以我给他约好明天我请客！
91. 所以他给我们班请客。
92. 那时我看了旁边的人路上扔垃圾，我才知道从像扔垃圾一样的小小的事情小心的话，我们可以保护环境。
93. 请对我的话要深深牢记在心。
94. 我小时候去美国留学。在学校没有韩国人，每天我一个人学习。环境[让我]很寂寞。

5. 副词오류자료

1. 我们家每星期天去教会。上个星期天也我们去了教会。
2. 现在也我喜欢跳舞。
3. 因为我喜欢音乐，所以我假日的时候，跟朋友们一起去歌厅唱歌，也最近我参加了唱中国歌比赛。
4. 在韩国还家庭主妇很多。
5. 我比你还多了解那件事。
6. 我再等了很长时间，可是她还是没来。

7. 再过了一段时间。
8. 他们的关系再好了。
9. 以后在我们的帮助下他再开始上学了。
10. 最后一次，又相信我吧。
11. 对发音练习有很大的帮助，然后我往往看了舞台影像，改善了我的问题。
12. 原来我对汉语没有感兴趣。
13. 希望你们每天看我时[]开心。
14. 环境污染是目前世界每个国家[]非常关注的重要问题。
15. 最近天气很好，到处[]开满花了。
16. 最近各个地方[]不让吸烟。
17. 爸爸经常说：“无论什么情况[]不要流泪。”
18. 我对什么事[]很有自信。
19. 相信自己什么事情也自己能做。
20. 特别我住在的济州有很多中国游客，所以我可以经历中国人对我的汉语能力很有帮助。
21. 特别我做的意大利面和大酱汤很好吃。
22. 我听不懂上海话，而且上海的物价比较贵，但上海的风景很美丽，特别上海的夜景非常好看。
23. 先我介绍的爱好是看电影。
24. 刘翔虽然没有幸运，但他永远会记成‘不知道放弃的运动选手’。
25. 前不久，一位中国人向我问路了。我最大限度活用了从来学过的汉语。
26. 朋友们和老师们称赞我汉语句子说得比去年更长了，又把我想说的话说得很好。
27. 那时候我真的不喜欢流汗，所以我只一个星期中两天打篮球了。
28. 在韩国，接触中国文化的机会不多，特别为了觉得中国的礼节和生活的特点，需要直接的经验。
29. 有机会的话，我往往用这些单词跟中国朋友聊天。
30. 有个人说“现在中国是世界上第二名，但是终于中国一定要世界的中心”。
31. 所以我认为济州外国语高中的教育和经验是只我的武器。
32. 开始学习汉语的时候，发音，表现都是很生疏。但是多亏我的朋友们的帮助，我不

能放弃学习汉语。

33. 如果我再得了几个机会, 我再想去英国跟门萨会员一起玩儿门萨游戏。
34. 因为我是高中三年级, 所以我马上就去参见大学面试。
35. 寒假的时候我想去很多国家, 因为我的朋友们在美国, 中国和俄国, 所以先我打算去中国然后我要用火车去别的国家。
36. 还有, 我可以实现了遗愿清单之一, 就是在水里没带游泳眼镜着睁眼。
37. 我还没没知道我要当什么行业。
38. 学汉语的时候我有很多困难, 特别汉语的声调很难。
39. 最近, 我有新的爱好, 那是就木工。
40. 我只看外国的幻想电影, 还有只我一个人去电影院。
41. 还有我有一个爱好。
42. 医生说: “昨天你吃得很多, 不疼, 就是奇怪。”
43. 他很周到, 他从来一次也没让我失望。

6. 助词오류자료

1. 我五岁的时候第一次去过这里。
2. 我从十四岁的时候开始了打篮球。
3. 刚开始我很胖了, 我妈妈看我身体以后决定了让我去篮球补习班。
4. 我跟许多外国朋友们常常用英语一起聊天儿。可是, 一天我发现了了几个中国朋友不能参加我们的对话。
5. 所以我决定了在济州外国语高中学习汉语。
6. 为了让两国关系能更上一层楼, 我开始思想了关于外交官这个职业。
7. 如果我的运动水平很差了的话, 我相信我没有像现在一样这么幸福了。
8. 小时候我不喜欢了妈妈, 因为她每天让我做运动。
9. 我初中三年级的时候, 我跟我得各种爱好过了有意思的生活。
10. 我小的时候, 我有了很多爱好有得感到自豪。
11. 从小时候我对运动有了很大的关心。一开始我没有对很多运动都感到兴趣,

而只对运动有了很大的关心。当我朋友们去玩电脑游戏的时候我每天去踢了足球。我的足球实力越来越高了，后来能通过足球这个运动来交了很多朋友。

12. 为了我的身体我每天打篮球了。
13. 因为妈妈是老师,所以我每天在教室里等了她的下班。
14. 我的家里有一个钢琴, 所以我不会跟姐姐玩儿, 没有什么可做的时候, 我常常自己弹了钢琴。但是我开始上补习班, 然后我不喜欢了弹钢琴。
15. 有一天, 我看了韩国队跟日本的足球比赛了。
16. 虽然我实现了梦想很重要, 但是我也想成为给周边人带来积极影响的人。
17. 一到教室老师就批评了我。“老师!我保证这不是我的错误”,可是老师一直不相信了我。
18. 我十二岁的时候通过爸爸认识的朋友, 初次去中国旅行, 牧园大学的哥哥, 姐姐和我一起去过北京。
19. 以前的我觉得志愿活动只是美化环境了。
20. [从那]以后我有[]一个目标, 就是‘提高汉语水平’
21. 当我入学外国语高中开始学习汉语的时。
22. 听他们的答案以后我很大吃了一惊了。
23. 以后一有机会, 我就去中国感觉那些的差异。
24. 我很喜欢看运动比赛。所以我在中国的时候也经常看了许多种类的运动比赛。
25. 在我第一次看的奥林匹克, 就是2008年北京奥林匹克的时候。
26. 最近最热点[]话题是南韩和北韩的外交。
27. 京剧[是]从北京开始发展了。
28. 我从十四岁的时候开始了打篮球。
29. 以前我有了这么多的爱好。不过这都是现在不存在的一时的爱好。
30. 如果我再得了几个机会, 我再想去英国跟门萨会员一起玩儿门萨游戏。
31. 我从来没染色和烫发过, 我很期待。
32. 因为那天下雨我们只坐[]两次过山车。
33. 我要上着大学准备就业。
34. 他的性格很好, 所以他接受我的玩笑, 我们经常笑, 最近我们亲近地很多。

35. 还有, 我可以实现了遗愿清单之一, 就是在水里没带游泳眼镜着睁眼。
36. 我们约好一起跳下。一二三! 可是我没跳下了, 只一个朋友跳下了。
37. 因为中国不是像韩国那样从小时候就得开始上很多复习班, 所以我就能得到了很多学运动的机会了。
38. 小的时候, 爸爸妈妈忙着工作, 所以我常常跟奶奶和爷爷过了一天。
39. 每次我跟爷爷说, 他就陪我一起去玩儿了。
40. 为了想再次感受这些魅力, 我决定想当航空公司乘务员了。
41. 帮助一位奶奶的韩语学习的活动等。
42. 有的时候, 我换电影的内容。比如说, 在电影主人公死[], 但是在我的想象没死。
43. 看中国的电视剧, 喜欢[]中国人, 我对中国文化产生了兴趣。
44. 但是发现我说话时中国人也能听懂的时候我非常高兴了。
45. 我从小就开始学跳芭蕾舞。我常常演出过。
46. 我特意买了他的礼物。他很感谢我了。
47. 果然这家饭馆的菜好吃? 我担心了。
48. 但是已经支付[]学费, 所以不得不去了这大学。

7. 语序오류자료

1. 我想当空中小姐在香港或中国航空公司。
2. 我想学习汉语和教育学在大学。
3. 我的兴趣是玩儿跟我的狗。
4. 因为我对汉语很感兴趣, 所以我跟家人一起去了两次中国旅行。
5. 吃饭的时候, 我一个人睡觉的时候, 都我感到在世界上只有我一个人。
6. 现在我平时也用汉语说为了提高我的会话实力.
7. 我希望跟不仅原语民老师而且很多中国人用汉语很流利地对话.
8. 我觉得你不一样别的学生.
9. 他们也说在他们的家我可以住宿.
10. 我最近对国际象棋感兴趣了,自从下了棋几次以后,我就爱下棋.

11. 产生了对音乐剧很感兴趣.
12. 最近我没有时间这么多, 所以现在我有时骑马.
13. 我跟许多外国朋友们常常用英语一起聊天儿.
14. 我也想跟爸爸妈妈去玩儿公园.
15. 我想跟中国的外交是很好的机会对我和韩国
16. 我在济州岛学习汉语一个月.
17. 我来外高的时候只两个单词知道‘你好, 谢谢’.
18. 准备考试中记住的单词和熟悉的表达全部都在你的心中保存, 总有一天会发光.
19. 和我学习汉语的朋友们比我更长时间学习汉语.
20. 最近天气变化很大, 小心身体, 出去穿多点衣服.
21. 今天她请客, 我和几个朋友吃在朋友的饭店.
22. 水是生命维持的根本, 水给我们直接的影响, 我们应该不能浪费水.
23. 首先开始不扔垃圾怎么样?
24. 如果他计划用20万, 绝不超过20万. 我们总是满意地吃不了.
25. 扔垃圾对环境太不好, 所以人们从现在应该保护环境.
26. 我想给你们推荐吃橘子一下.
27. 所以四季也比别的地方比较暖和, 所以找济州岛的游客很多.
28. 最近济州岛里开满了樱花而且正在济州市厅附近举行樱花庆典.
29. 全世界的人们都喜欢旅行济州.
30. 春天的济州不冷也不热, 每天去赏花很合适.
31. 我们在宿舍里生活, 所以有很多空闲时间是很难.
32. 今年下雪很多了.
33. 秋天是最好的季节来济州.
34. 我新有了我人生的目标.
35. 初中的时候我经常去网吧玩儿游戏, 妈妈生气了我.
36. 第二个是旅行日本跟爸爸一起.
37. 我习惯睡晚了.
38. 不得不我开始复数专业.
39. 以前是银行职员受到欢迎的职业.

40. 我努力学习汉语，进步汉语水平。
41. 我需要休息，所以我请假三天。
42. 我想起来在出租车落钱包。
43. 医生建议我在家休息休息，只好我回家了。
44. 只好今天我一个人吃饭。
45. 我在公共汽车上捡到你的钱包，我怎么给你还。
46. 所以我快去，结果我到了按时。
47. 在饭店吃完饭以后，找了钱包掏钱，可是钱包没有。
48. 我给妈妈打电话，问她是否在家里有钱包。她告诉我在客厅落了钱包。
49. 我保证老师，明天我一定要不迟到。
50. 为了保护环境你应该在垃圾桶扔垃圾。
51. 我给那个人说，你不行做这样。
52. 你不可以扔垃圾这儿里。
53. 如果你做生意的时候，你可能要请客很多人。
54. 妈妈看了一下儿我，却没有说话。
55. 今天我要讲通过学习汉语我想实现的目标以‘中国和我’为主题。
56. 如果我在中国会说一口流利的汉语的话，那就我可以给他们留下一个很好的印象。
57. 所以我平时很努力学习汉语，例如读课文很多遍。
58. 我找到各种首歌的歌词两天。
59. 如果你们有机会去中国，我推荐你们去旅行这里。
60. 希望能说汉语说得很流利像我的朋友们一样。
61. 毕业中国大学以后关于全世界的好多外交关系研究然后想和其他国家外交官讨论这个问题。
62. 当然应该个人有差异。
63. 就是一直挑战用汉语说。
64. 我是姜守软，保护的守，性格很温和，所以和谁都能好好得一起生活，正努力地生活像我的名字一样。
65. 四个年在韩国的小学生活以后我第二次去了美国。
66. 有很多计划比这些更想做。

67. 但是준혁和준우到三点一直玩游戏了。
68. 去中国以后，我两次到长城去了。
69. 其次貌似跟海边近，所以有庆典有关海边。
70. 她们最后给我起了‘背叛者’的别称，因为到最后我没跳跟她们。
71. 从小就我喜欢听音乐。
72. 一定我得到自己的目标
73. 已经春天到了，济州岛里开满了樱花。
74. 我们应该有责任意识关于保护环境。
75. 这件事对她很满意，她高兴得好像孩子一样。
76. 我看从中国很多游客来济州旅行。
77. 我本来对老师不想说这件事。
78. 我们为了高考应该努力学习。
79. 为了我们和社会，我们应该不吸烟。
80. 你对他应该说“谢谢”。
81. 学汉语歌让我们可以放松一下。
82. 我先要说我的想法。
83. 还有我要将来陪你们世界旅行。
84. 我来学校明天中午12点。
85. 我们1个小时参观了。
85. 参加模拟联合国的时候，一天我只三个小时睡了。
86. 他每星期一次给家里打电话。
87. 中国朋友还说在他们的家我可以住宿。
88. 我们应该不能浪费水。
89. 在生活中国，我经验了中国各种各样的味道。
90. 我很难融合到跟同学们。
91. 我研究的过程中国知道了南北文化的差异很大，知道了以后我问我们班里住过中国的朋友们所有的事实真的。
92. 每次想放弃的时候，想起‘硬着心肠’这个四字，我总是能振作起来
93. 以前我以为学语法和单词，那么就好好学习。

94. 我决定照顾我的身体好。

